제 1 편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전략
차 례

제1장 머 리 말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과 선행 연구 검토 ..................... 7
1. 개념의 정립 ........................................................ 7
   1) 도시 어메니티의 도입 배경 ...................................... 7
   2)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과 속성 ................................... 8
   3)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구성 요소 ............................... 11
2. 선행 연구 및 국내 「도시 어메니티 플랜」 검토 ......................... 11
   1) 선행 연구 및 국내 도시 어메니티 플랜 검토 ................... 11
   2)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6

제3장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과 발굴사례 분석 .................... 19
1.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구축 ................................ 19
   1) 기존의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검토 ...................... 19
   2)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구축 및 활용 .................... 21
2.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절차 .......................... 22
국내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 24
  1) 사례조사 개요 ................................................................. 24
  2)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 24
  3)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 31

4. 종합 검토와 시사점 .......................................................... 37
  1) 도시네 자원에 대한 어메니티 인지도 저조 ................................ 37
  2) 도시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도시 어메니티 자원 속성 상이 .......... 38
  3)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추진 시책간 연계 미흡 .................... 39

제4장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운용 실태와 문제점 ...... 41

1.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현황 ................................ 41
   1) 국내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현황 ....................... 41
   2) 국내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현황 ....................... 46

2. 도시 어메니티 창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실태 ...................... 48
   1) 조사 개요 ................................................................. 48
   2) 도시 어메니티 인식과 정책수요 조사: 도시지역 자치단체장 조사결과 48

3.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운용 실태와 문제점 ............. 51
   1) 전반적인 도시미관과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 미흡 .................... 51
   2)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의 투명성과 단일적인 운용 .... 52
   3)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법적 근거 미흡과 관련법 체계의 연계 부재 .... 52
   4) 도시 어메니티 창출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적 추진체계 미흡 ........ 53

제5장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 55

1. 해외의 도시 어메니티 창출정책 동향과 사례 ............................ 55
   1) 영국 ................................................................. 55
   2) 미국 ................................................................. 56
   3) 일본 ................................................................. 60
   4) 종합 검토와 시사점 .................................................... 67
제6장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전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79

1. 도시 어메니티 창출 전략의 기본 원칙 …………………………………… 79
   1) 도시민의 이용성·만족감 증진을 통한 ‘정주성’ 제고 ……………… 79
   2) 도시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도시 정체성과 문화·심미성’ 제고 …… 80
   3) 도시내 어메니티 자원의 ‘공간적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 ………… 80
   4) 도시 어메니티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참여와 추진의 ‘자율성·협력성’ 제고 82
2. 도시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 82
   1) ‘도시 정주성’ 제고와 정책 과제 …………………………………… 82
   2) ‘도시 정체성 및 문화·심미성’ 제고와 정책과제 …………………… 82
   3) ‘공간적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와 정책 과제 ………………………… 83
   4) 지속적 참여와 추진의 ‘자율성·협력성’ 제고와 정책 과제 ………… 86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89

참 고 문 헌 …………………………………………………………………… 91
부 록 ………………………………………………………………………… 95
표 차례

<table>
<thead>
<tr>
<th>표</th>
<th>제목</th>
<th>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2-1</td>
<td>국내 도시 어메니티 관련 주요 선행연구</td>
<td>12</td>
</tr>
<tr>
<td>2-2</td>
<td>도시별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td>
<td>13</td>
</tr>
<tr>
<td>2-3</td>
<td>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 전략 및 시책 제재(성남시 사례)</td>
<td>14</td>
</tr>
<tr>
<td>2-4</td>
<td>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어메니티 평가지표(안양시 사례)</td>
<td>15</td>
</tr>
<tr>
<td>2-5</td>
<td>도시 어메니티 플랜과 기존 도시계획의 비교</td>
<td>16</td>
</tr>
<tr>
<td>2-6</td>
<td>주요 선행연구의 차별성</td>
<td>17</td>
</tr>
<tr>
<td>3-1</td>
<td>기존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주요 선행연구)</td>
<td>20</td>
</tr>
<tr>
<td>3-2</td>
<td>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화 및 자원분류체계</td>
<td>20</td>
</tr>
<tr>
<td>3-3</td>
<td>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화 및 자원분류체계</td>
<td>21</td>
</tr>
<tr>
<td>3-4</td>
<td>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설문조사 결과)</td>
<td>27</td>
</tr>
<tr>
<td>3-5</td>
<td>안양시 핵심 주요 어메니티 자원별 속성 및 가치 평가</td>
<td>28</td>
</tr>
<tr>
<td>3-6</td>
<td>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설문조사 결과)</td>
<td>33</td>
</tr>
<tr>
<td>3-7</td>
<td>군산시 핵심 주요 어메니티 자원별 속성 및 가치 평가</td>
<td>34</td>
</tr>
<tr>
<td>3-8</td>
<td>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 현황</td>
<td>37</td>
</tr>
<tr>
<td>3-9</td>
<td>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주요 속성(설문조사 결과)</td>
<td>38</td>
</tr>
<tr>
<td>4-1</td>
<td>공간 위계별 현행 어메니티 증진 관련법 및 계획</td>
<td>42</td>
</tr>
<tr>
<td>4-2</td>
<td>도시 어메니티 증진 관련 주요 법률 및 조례(예시)</td>
<td>43</td>
</tr>
<tr>
<td>4-3</td>
<td>부처별 어메니티 증진시책 추진사항 (2007년)</td>
<td>45</td>
</tr>
<tr>
<td>4-4</td>
<td>일본, 미국 및 우리나라 경관협정의 범위</td>
<td>46</td>
</tr>
</tbody>
</table>
표 4-5 도시 어메니티 보전 및 창출을 위한 현행 정책수단 종합 .............. 47
표 4-6 정책수요 조사 개요 (도시지역 자치단체장 대상) ......................... 48

표 5-1 일본의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 .................................. 60
표 5-2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테마별 유형 및 주요 내용 .................................. 63
표 5-3 어메니티 타운계획 주요 실현수단 .......................................................... 64
표 5-4 일본의 어메니티 관련 법률 및 제도 ......................................................... 66
표 5-5 외국의 도시 어메니티 운영체계와 주민참여 형태 .............................. 69
표 5-6 영국내 CARTs의 유형 ........................................................................... 69

표 6-1 국내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사례와 중점 활용전략 ..................... 81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 4

<그림 2-1> 도시 어메니티 욕구의 변화 .................................. 9
<그림 2-2> 도시 어메니티의 기본 속성 ................................... 10

<그림 3-1>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절차 ..................... 22
<그림 3-2>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흐름도(부산시 사례) .............. 23
<그림 3-3>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절차 ............. 25
<그림 3-4>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 ... 30
<그림 3-5>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절차 .......... 31
<그림 3-6>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설문조사 결과) ... 36
<그림 3-7>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 비교: 안양시와 군산시 사례 ... 38

<그림 4-1> 도시 어메니티 개념의 정책적 도입 및 활용 분야 .......... 49
<그림 4-2> 도시 어메니티 개념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50
<그림 4-3>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 50
<그림 4-4>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 ............ 50
<그림 4-5> 산 조망을 가진 도시내 고층 아파트군 ..................... 51
<그림 4-6> 각기 다자인되어 흔들스려운 간판들 ..................... 52
<그림 4-7> 녹지 공간없이 건물만 빼곡히 들어선 모습 ................ 52

<그림 5-1> 특색있는 가로 장비를 통한 도시 어메니티 창출사례(휘터 블리바드) ... 57
<그림 5-2> 기존 디자인과 뉴어버니즘 디자인 비교 (제손벌 사례) ............... 59
<그림 5-3> 일본의 어메니티 타운계획 개요 ........................................... 65
<그림 5-4> 양재천 정비이후 생태환경의 변화 ........................................ 70
<그림 5-5> 강천산내 산책로와 편의시설 ................................................. 71
<그림 5-6> 평촌중앙공원 재정비 전후 전경 비교 ................................. 72
<그림 5-7> 이용자 및 활동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시설배치와 운영 .......... 72
<그림 5-8> 진주한옥마을 전경 및 전신지중화사업 현황 ...................... 74
<그림 5-9> 파주 해리네 건축 및 조경 설계지침에 따라 조성된 모습 ...... 75
<그림 5-10> 통영시 시범가로네 설치된 타일과 동피랑네 가로조성 모습 .... 76
<그림 5-11> 석수시장 프로젝트 전형모습 ........................................... 77

<그림 6-1>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 연계전략 ......................... 80
<그림 6-2> 기존 도시계획과 어메니티 계획체계 정비 .............................. 84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면서 양적인 도시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방식과 정책수단을 주로 운용해온데 따라 도시화의 질적 수준과 삶의 질은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삶의 질, 건강과 환경,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공간의 질’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장은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창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이 1) 1960년 39.1%에서 1980년 68.7%, 그리고 2005년 현재 89.1%로 도시화 속도가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2) 급속한 도시화의 진정은 도시용 토지에 대한 단기적인 개발수요 증대를 야기하였으며, 양적, 물리적 측면에 치중한 도시정책 및 개발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따라서 도시내 토지나 주택도 단순히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또는

2) 프랑스는 1936년 도시인구비율이 52.0%였다가, 그것이 50%가 중가한 것이 1990년도시화율 74%으로 50년 이상이나 겉린 것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김현식외, 1998: 49쪽).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도시내 공공 공간(public space)에 대한 불
감증과 개인 공간에 대한 파괴감증 등 도시 미관에 대한 인식도 도시 공간의
절락 수준을 저하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도시의 주변 산이나 강
등 자연경관과 부조화된 아파트와 빌딩, 건축물을 둘러싼 간판물, 건설물로 복잡
하게 덮인 가로경관, 방치된 공원과 녹지공간, 자동차 위주의 도로, 교통정체와
소음, 대기오염 등은 익숙한 우리 도시 모습이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환경, 웰빙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산업화 지향적인 도시성장 과
정에서 야기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 환경과 아름다운 미관을 갖춘
도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해 관심이 높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
의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운동, 영국의 어번빌리지(Urban village) 운동, 일본의 미체스무리 운동은 도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 어메니티
창출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
에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도시내 어메니티 자
원의 발굴과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 작업이 필요하다.

3) 20세기 초반의 근대도시계획이 기능 위주의 접근을 취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도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
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산업사회의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중심으로 기능적인 도
시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양적인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는 성공하였으나, 도시의 개성이나 삶의 질 수준에서
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인 제이콥스는 기능중심의 현대도시들을 도시내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시민중심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박재길, 2006).

4)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의 철학은 "전통적인 이웃들(traditional neighborhoods)"이라는 개념에서 출발
하였다. 전통적인 도시이웃들 또는 커뮤니티로부터 온 복합적인 개발(mixed use), 그리고 보행자 중심
의 거리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구조 등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이 지향하는 디자인의 개념은 첫째, 도시의 도심중심기를 새로운 환경화시킨다. 둘째, 교외화를
현대의 커뮤니티로 방향을 돌려놓는다. 셋째,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존한다. 넷째, 전통적 도시환경과
디자인을 가꾸고 보전한다.

5) 1980년 후반 화소 환경에가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을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반성과 변화, 그리고 실
천이 필요하다는 안건 이후에 이에 공감하는 건축가, 계획가 등이 힘을 모아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어번빌리지 운동은 복합적 토지이용, 보행자중심의 교통,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고품격의
도시설계를 통해 다양한 개성을 갖춘 개성있는 도시를 만들자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전영환, 2006: 35면).

2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도시민의 평활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 구현과 산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국토 전체의 가치와 국민의 산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미래 산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의 일환으로서, 도시 공간에서 어메니티 역량 발굴 및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속성 정립과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둘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사례분석, 셋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과 관련한 정책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 넷째,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사례와 동향, 다섯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등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국토의 하위 공간단위인 도시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중앙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시와 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를 행정구역상의 시(市)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6) 농림부는 동(洞)을 도시로, 읍·면을 농산어촌으로 구분하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시·읍(군)을 도시로, 면을 농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만인 이상 지역을 시(도시), 2~5만인 미만지역은 읍으로 구분하고 있다(통계청 이매일 설문조사표 자료, 2007).
(2) 연구의 방법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현장답사 및 면담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협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개념 정립과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참고문헌 분석 (literature survey)을 활용하였으며, 도시 어메니티 자원 목록화 작업을 위해 사례로서의 인터넷, 관광안내책자, 백서 등 관련 자료를 사전 검색하였다.

둘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식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전국 지자체 장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중 설문 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시역 지역 지자체장(시장 및 구청장)의 조사 결과를 발췌 활용하였다.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위해 2007년 6월~8월 중 안양시와 군산시를 사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葛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4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셋째, 국내 도시 어메니티 자원 유형별 사례 검토를 위해 안양시, 파주시, 전주시, 통영시 등 현지 답사(field study)와 실무자 면담(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넷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 분류체계, 도시 어메니티 자원 목록 작성 및 자원 필터링(filtering),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inventory) 작성,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전략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및 연구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과 선행 연구 검토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과 속성,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도시 어메니티의 이론적·정책적 도입 배경, 도시 어메니티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개념의 정립

1) 도시 어메니티의 도입 배경

도시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1909년 영국의 도시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이래 관련 법률7)에서 사용되었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 생활공간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강조하는 계획 원리이자 수단으로 도입·운용되어 왔다.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홀포드(W.Halford, 1959)는 어메니티는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가치로서 "주거·집안의 설비 등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right place)" 또는 전체로서 화려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김정섭·오현석, 2002). 영국의 도시계획가 컬링워스(Cullingworth, 1964)도 어메니티를 도시 및 지역계획

의 기본 개념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이나 기념축조물의 보존, 수목이나 수림의 보전, 양호한 디자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도시 어메니티는 ‘정주 어메니티’로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열악해진 도시민의 물리적 생활환경과 공중위생 해소 등 산업 도시가 지닌 문제점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과 속성

(1)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 정의
19세기 영국에서 어메니티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폐해들을 저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과 주거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쾌적성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영국의 도시계획에서는 공해방지, 결핵, 죽음의 위험도와 관련한 공중위생, 디자인 상태와 심미성 등과 연관된 쾌적함, 그리고 역사성, 개성, 문화, 경제적·교육적 가치, 재산을 중시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공간의 보존 등을 담는 포괄적인 의미로 어메니티가 사용되었다.

OECD의 환경분과 위원회는 어메니티를 방재 및 사고 방지에 관한 안전성, 공해방지·건강관리·환경위생 등의 보건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편리성, 오픈스페이스 보전 및 역사적 풍부보존·경관 보존 등의 쾌적성 등 환경의 네 가지 상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승환, 2007, 찾아가는 국토 현장포럼 발제자료 참조).

한편, 도시 어메니티는 도시내 ‘공간의 질’과 거주민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시대와 도시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전영옥(2003)은 어메니티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규정하고, 시대에 따라 도시 어메니티 욕구가 편리성→환경성→심미성→문화성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아

8)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제약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관리성이 중요하였으며, 산업혁명 이후는 공해 해소가 당연과제가 되었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었으며,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개회를 계기로 도시의 건축물과 가로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성에 호소하게 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획일화된 현대도시에 대한 반면으로 도시의 문화성, 정체성 회복을 추구하였다(전영옥, 2005).

8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전략 연구
지고 있으며, 현재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은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의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전영옥, 2003:5~6면).

이 연구에서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도시내 ‘공간의 질’과 거주민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도시 거주민과 이용자의 감각, 사고 및 행동에 있어서 심리적 만족(pleasure)과 행복(happiness)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 또는 환경적 가치나 요소로서 정의하였다.

(그림 2-1) 도시 어메니티 욕구의 변화

자료: 전영옥(2003:5면)

(2) 도시 어메니티의 기본 속성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주요 속성으로 심미성, 환경성, 정체성, 편리성, 경제성을 들 수 있다.10) 심미성은 경관성, 문화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미적

9) 도시 어메니티 개선의 유행별 사례로 편리성추구사례는 브라질의 꾸리찌바(대중교통시스템), 상주시(자전거나시), 환경성추구사례는 독일 하노버(자연과의 친화성 회복), 대구시(숲에 의한 환경조화), 심미성추구사례는 미국의 뉴욕(경관제도를 통한 도시디자인), 양평군(자연생태보전조례), 그리고 문화성추구사례는 네덜란드의 론토르만(문화공간창조), 서울 인사동(문화의 거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전영옥, 2003:6면)

10) 漢土五人(1996)은 ‘살기 좋은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PVESM을 제시하였다. PVESM 요소는 물리적(Physical: 생산성, 안전성, 편리성으로부터 가능적인 마을 만들기), 시각적(Visual: 경관성, 미관성에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생태적(Ecological: 자연성, 생태보전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 사회적(Social: 사회성, 시대성, 지역성을 배려한 “다음”이 있는 마을 만들기), 정서적(Mental: 정신성, 감동
감각을 촉각시켜주는 요소로서 디자인, 건축물 형태, 가로경관, 스타이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환경성은 생태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로서 기후, 밝은 공기, 옥외공간, 주변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정체성은 지역성, 사회성, 역사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다양한 도시와 차별화되어 도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요소로서 역사적 시설, 랜드마크, 도시 이미지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중교통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현된다. 편리성은 접근성, 안전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3)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구성 요소


한편, 미국의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을 주장한 안드레 두아니(Andre Duany)는 미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택단지, 쇼핑센터, 사무실 지역, 공공 또는 시민사회 지역, 도로 등을 주요 요소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요소들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최현선 외, 2006:18면).

영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종합적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정책 지침서(Planning Policy Guidance 17, 1997)는 도시내 공공공간의 대상 및 범위로 공원과 정원, 친환경 준 천연공간, 녹지 희망, 외부 운동시설, 녹지판의시설,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시설, 시민 및 커뮤니티 정원과 농장, 묘지 및 교회 앞뜰, 도시 주변의 접근가능한 전원지역, 시민광장 및 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선행 연구 및 국내 「도시 어메니티 플랜」 검토

1) 선행 연구 및 국내 도시 어메니티 플랜 검토

(1) 국내 선행 연구의 검토

어메니티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어메니티의 개념과 사상 등 이론적 측면에 관한 연구, 둘째, 환경·지역계
획, 지역개발 측면의 연구, 셋째, 어메니티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관련 연구, 넷째, 어메니티의 가치와 효과 등 경제성 관련 연구, 다섯째, 어메니티 정책 및 제도를 다룬 연구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 어메니티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는 첫째,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 및 조사·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둘째, 도시 어메니티 증진방안 연구, 셋째, 도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과 관련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내 안양시를 비롯한 몇 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어메니티 플랜」은 어메니티 요소를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한 요소로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실제 계획 수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음은 국내 주요 선행 연구들이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선행 연구</th>
</tr>
</thead>
</table>

〈표 2-1〉 국내 도시 어메니티 관련 주요 선행연구
(3) 국내의 도시 어메니티 플랜 내용분석

①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와 기본 방향


국내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는 첫째, 어메니티를 높이는 요소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둘째, 비어메니티(dis-amenities)를 제거 혹은 최소화하는 것, 셋째, 주민의 참가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의 깨끗함과 조용함, 자연과의 공생과 친근감,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네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 도시별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어메니티 플랜 목표</th>
</tr>
</thead>
<tbody>
<tr>
<td>성남시, 안산시, 수원시</td>
<td>맑고 깨끗한 도시(지역의 깨끗함과 조용함)</td>
</tr>
<tr>
<td></td>
<td>자연과 공존하는 도시(자연과의 공생 및 친근함)</td>
</tr>
<tr>
<td></td>
<td>전통과 문화가 갖춘 도시(지역의 역사와 문화)</td>
</tr>
<tr>
<td></td>
<td>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도시</td>
</tr>
<tr>
<td>부천시</td>
<td>맑은 환경 속의 도시</td>
</tr>
<tr>
<td></td>
<td>생활의 편리함을 갖춘 도시</td>
</tr>
<tr>
<td></td>
<td>문화도시</td>
</tr>
<tr>
<td></td>
<td>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도시</td>
</tr>
</tbody>
</table>

②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의의와 내용

도시 어메니티 플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폐쇄적이고 종요로운 도시환경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와 환경 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도시 어메니티 플랜은 도시내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한 계획수단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둘째,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셋째, 다른 도시로의 보급에 의의를 두고 있다.

표 2-3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목표, 전략 및 시책 체계(성남시 사례)

<table>
<thead>
<tr>
<th>목표</th>
<th>전략</th>
<th>시책</th>
</tr>
</thead>
</table>
| 맑고 깨끗한 도시          | 공기의 정화                        | · 대기보전계획의 작성 및 추진  
                               |                     | ·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  
                               |                     | · 자전거 도로의 조성 및 정비 |
| 하천, 저수지의 환경보전과 | 수질보전계획의 작성 및 추진          | · 탄천의 함유량 증대 추진  
                               | 이용                    | · 탄천과 그 근처의 천연하천화 및 천수공간화  
                               |                     | · 탄천생태지역의 작성 |
| 조용한 거리 만들기      | 자동차 경적 적게 울리기              | · 동네소음 줄이기                                                  |
|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 도시내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및 녹지의 보전과 이용 | · 산림의 보전  
                               |                     | · 도시내 언덕녹지의 보전 및 녹화  
                               |                     | · 도시내 언덕녹지의 보전 및 녲화  
                               |                     | · 탄천과 그 근처의 천연하천화 및 천수공간화  
                               |                     | · 탄천생태지역의 작성 |
| 편안한 도시, 즐길 수 있는 도시 | 교통환경의 정비                  | · 교통환경의 정비  
                               |                     | ·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  
                               |                     | · 자전거 도로의 조성 및 정비 |
| 전통·문화가 깃든 도시  | 역사적 환경의 보전, 재생, 활용 및 문화, 정보기반의 조성 | · 역사, 시설 및 문화재의 복원, 정비  
                               |                     | ·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계승  
                               |                     | · 지역축제의 지속적 추진  
                               |                     | · 관광자원의 개발, 읍내재개발의 추진  
                               |                     | · 관광자원의 개발, 읍내재개발의 추진  
                               |                     | · 환경(공원, 하천 등) 신흥/자원봉사의 육성  
                               |                     | · 환경교육의 개발  
                               |                     | · 생태환경에 대한 심미만들기(성남8경 등) |

자료: 성남시 어메니티 플랜(1998) 자료 참조

도시 어메니티 평가지표 체계는 대체로 공해, 자연, 도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주민의식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거치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어메니티 플랜의 공통요인으로 풍부한 녹지, 신선한 공기, 가까운 자연환경, 조용
함, 동네풍경, 문화적 분위기, 깨끗한 물, 청결한 도로, 공기 등이다.

〈표 2-4〉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어메니티 평가지표(안양시 사례)

<table>
<thead>
<tr>
<th>지표</th>
<th>세부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지역의 깨끗함과 조용함</td>
<td>공기의 깨끗함</td>
</tr>
<tr>
<td></td>
<td>연못과 하천의 깨끗함</td>
</tr>
<tr>
<td></td>
<td>지역의 청결함</td>
</tr>
<tr>
<td></td>
<td>지역의 조용함</td>
</tr>
<tr>
<td></td>
<td>일조조건의 양호함</td>
</tr>
<tr>
<td>자연과의 공생 및 친근함</td>
<td>녹지와의 공생 및 친근함</td>
</tr>
<tr>
<td></td>
<td>물과의 공생 및 친근함</td>
</tr>
<tr>
<td></td>
<td>홍과의 공생 및 친근함</td>
</tr>
<tr>
<td></td>
<td>야생조류 코충과의 공생 및 친근함</td>
</tr>
<tr>
<td></td>
<td>산림의 자연성 및 생태성</td>
</tr>
<tr>
<td>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td>
<td>거리의 아름다움</td>
</tr>
<tr>
<td></td>
<td>거리의 편안함</td>
</tr>
<tr>
<td></td>
<td>레크레이션 시설의 편안성</td>
</tr>
<tr>
<td>지역의 역사와 문화</td>
<td>지역의 역사와 전통성</td>
</tr>
<tr>
<td></td>
<td>지역의 문화성</td>
</tr>
<tr>
<td></td>
<td>지역의 문화기반</td>
</tr>
</tbody>
</table>

자료: 안양시 어메니티 플랜(1998) 자료 참조

③ 도시 어메니티 플랜과 현행 도시계획의 차이

도시 어메니티 플랜은 다루는 대상이나 도시의 부문별 기능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환경계획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메니티 플랜은 비법정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실현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성격상 물리적 계획(도시계획, 환경계획)의 과정과 내용의 지표로서 작용하는 기조계획(평의의 어메니티 플랜)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전체 계획과정의 시스템 중 부문계획(협의의 어메니티 플랜)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민생활에 근원적 가치를 두고 일상생활에서 중요시되는 공간의 아름다움, 역사성, 전통성, 문화성의 보전·유지·관리 등 절대 수준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 계획과 프로그램 계획을 통합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도시 어메니티 플랜은 주민참여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상이하다. 기존 도시계획이 공청회나 공람 등 소극적인 참여방식인데 비해, 어메니티 플랜은 주민에 의한 참여계획이 되도록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골격을 형성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표 2-5] 도시 어메니티 플랜과 기존 도시계획의 비교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존 관련계획(도시계획)</th>
<th>어메니티 플랜</th>
</tr>
</thead>
<tbody>
<tr>
<td>목표</td>
<td>한정된 국토자원의 합리적 활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td>
<td>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 등 지역이 지닌 독특한 기능과 성격을 토대로 그에 적합한 환경 조성 제시</td>
</tr>
<tr>
<td>계획내용 및 대상</td>
<td>자연환경, 건축물, 문화재 등 물리적 환경만을 대상(물적 계획)</td>
<td>지역축제, 전통적 분위기적비물적 환경까지 포함(물적 계획 + 프로그램 계획)</td>
</tr>
<tr>
<td>계획수립 및 주민참여</td>
<td>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공람 등의 형식적인 주민참여절차(하향적 접근방식)</td>
<td>주민이 주제가 되어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어메니티 자원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 참여 전제)</td>
</tr>
<tr>
<td>집행</td>
<td>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추진</td>
<td>다양한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융통성있는 계획</td>
</tr>
<tr>
<td>법적 근거</td>
<td>법정 계획</td>
<td>비법정 계획(행정계획)</td>
</tr>
</tbody>
</table>

자료: 김세용외(2003), 발췌 재작성

2)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범위와 대상, 연구내용 측면에서 이 연구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자연환경 위주 내지 생활환경 위주를 다룬 선행연구에 비해 종합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다루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정립 및 자원목록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민 대상의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적인 접근을 중
시하였다. 또한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를 예시적으로 작성 제시함으로써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정책적 활용 및 홍보 방안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설계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 및 발굴상의 문제점, 정책수단 운용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제시하고 있다.

넷째, 이 연구는 도시, 농산촌, 연안, 어촌, 환경지역 등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공간단위별 연구의 일환이나, 궁극적으로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내 자원의 어메니티 창출전략과 함께, 농산촌, 연안, 어촌 등 여타 공간단위 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화 방안을 제시로자 하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 표 2-6 주요 선행연구의 차별성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선행연구목적</th>
<th>연구방법</th>
<th>주요연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주요연구 1</td>
<td>- 과제명: 계획원리로서 어메니티 평가에 관한 기초 연구</td>
<td>- 연계문석</td>
<td>- 계획원리와 어메니티 이론</td>
</tr>
<tr>
<td></td>
<td>- 연구목적: 도시 어메니티 평가에 대한 이론과 계획원리 고찰</td>
<td></td>
<td></td>
</tr>
<tr>
<td></td>
<td>- 연구목적: 도시 어메니티 평가기준 및 방법</td>
<td></td>
<td></td>
</tr>
<tr>
<td></td>
<td>- 도시어메니티 창출전략과 함께, 도시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화 방안을 제시로자 하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 2장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과 선행연구 검토 17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와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 등
의 자원 유형 비교를 감안해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새로 체계 정립하였다. 그리고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례 도시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였다. 도
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대표적인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 등을
통해 향후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시사점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구축

1) 기존의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검토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기준은 특성과 활용 측면에 따라 다양하다. OECD(1997)
는 인간 기여정도(the degree of human contribution)에 따라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Almost intact nature),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
메니티 자원(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man),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
티 자원(Man-made)으로 분류하고 있다(OECD, 1999: 9면).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기준 및 체계는 연구 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세부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하나, 도시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자원, 역사·
문화자원, 사회(생활)자원으로 크게 분류·활용하고 있다.
국내 도시 어메니티 플랜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을 공원녹지자원,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생활자원 등 5개로 구분하고, 세부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와 예시적인 자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table>
<thead>
<tr>
<th>유형</th>
<th>도시 어메니티 자원 예시</th>
</tr>
</thead>
</table>
| 자연자원      | · 수변자원(하천, 호수, 섬, 해수욕장, 방파제, 침수공간, 낚시터)  
|               | · 지형자원(산, 고개, 경관자원)                                                       |
| 공원녹지자원  | ·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가로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단지내 소공원, 화단, 보호수, 어린이놀이터, 녹도 등 |
| 역사자원      | · 종교·역사적 건물, 기념비·기념품, 역사적 경관, 역사적 사건, 유적지, 문화재 등          |
| 문화자원      | · 건축물, 도시시설물, 교육·체육시설, 민속행사·축제, 복지시설, 도시 가로경관, 예술 등 |
| 생활자원      | · 시장·상업지역, 향토음식·토산물, 정거장, 악수터, 행사, 편안한길, 먹거리             |

주: 국내의 도시 어메니티 플랜(6개 도시)에서 분류한 유형 구분과 예시 자원임

---

<table>
<thead>
<tr>
<th>표 3-2</th>
<th>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과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 (Almost intact nature)</td>
<td>공원녹지자원</td>
</tr>
<tr>
<td></td>
<td>자연자원</td>
</tr>
<tr>
<td>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 (Interaction between man and nature)</td>
<td>역사자원</td>
</tr>
<tr>
<td></td>
<td>문화자원</td>
</tr>
<tr>
<td>인위적 어메니티 자원 (Man-made)</td>
<td>생활자원</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20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2)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구축 및 활용

이 연구에서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OECD의 인적 기여정도에 따른 자원분류체계를 대분류로 하고, 중분류 및 소분류는 국내 도시 어메니티 평판에서 활용한 자원분류체계를 합성하여 새로이 구축하였다. 대분류에서 OECD 기준을 채택·활용한 국제적인 표준화 차원의 의도가 크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의 구축은 첫째, 자원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의 검토와 제시가 가능하고 둘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 조사·발굴의 편의성제고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반면,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자원을 유형화하다보면 주로 유형적이고 점적인 자원 위주로 발굴·분류될 가능성 이 크다. 이를테면 맑은 공기, 온난한 기후, 조용한 주변여건, 소리, 도시민의 친절도 등 도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 자원을 발굴·자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table>
<thead>
<tr>
<th>대분류</th>
<th>중분류</th>
<th>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td>
<td>자연자원</td>
<td>수변자원, 지형자원</td>
</tr>
<tr>
<td></td>
<td>경관자원</td>
<td>도시공원, 사찰녹지, 유원지, 기념물</td>
</tr>
<tr>
<td>인간과 자연간 상호작용 의한 어메니티 자원</td>
<td>역사 자원</td>
<td>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td>
</tr>
<tr>
<td></td>
<td>시설자원</td>
<td>건축물, 교육시설, 체육시설, 경관</td>
</tr>
<tr>
<td>문화 자원</td>
<td>활동자원</td>
<td>민속</td>
</tr>
<tr>
<td>생활 자원</td>
<td>경제활동자원</td>
<td>시장</td>
</tr>
<tr>
<td></td>
<td>공동체활동자원</td>
<td>상업지역, 향토음식, 지역축제</td>
</tr>
</tbody>
</table>

제3장·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과 발굴 사례분석 21
2.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절차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발굴을 위해서는 문헌조사, 위청조사, 현지방문·관찰조사, 면담·설문조사 등 방법이 활용된다. 문헌조사, 위청조사, 설문조사 등이 주로 활용된다.

문헌조사는 기존 도시 어메니티 플랜 등에서 활용한 자원분류체계를 토대로 대, 중, 소분류로 구분하여 문헌조사, 인터넷 등을 통해 도시내 자원분포 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원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방법이다. 위청조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자원에 대해 현지방문 및 실무자(공무원),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자원을 필터링하는데 활용된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문헌조사와 위청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자원에 대해 주민이나 공무원, 방문객 등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어메니티 자원을 평가, 최종 추출하는데 활용된다.

<table>
<thead>
<tr>
<th>단 계</th>
<th>방 법</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도시자원 리스트 구축</td>
</tr>
<tr>
<td>2단계</td>
<td>위청조사 (amenity watching)</td>
</tr>
<tr>
<td>3단계</td>
<td>자원 필터링</td>
</tr>
<tr>
<td>4단계</td>
<td>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inventory) 작성</td>
</tr>
</tbody>
</table>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도시가 보유한 자원 목록화(list)를 위해 문헌, 책자, 인터넷 등에 의한 문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법에 의해 도시자원 목록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지방문, 면담 및 필터링( eventData)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빠진 자원을 추가하거나 자원 필터링 (filtering) 과정을 거쳐 도시자원 목록화 작업은 완료된다.13) 〈그림 3-2〉는 부산시 서구지역에 대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어메니티 플랜 수립 절차 흐름도이다.

13) 기존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자원조사 방법은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자원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발굴하는 한편,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내 어메니티 인지자원 발굴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문헌조사에 의한 자원조사와 주민조사(만족도 조사)에 의한 조사 향도가 상이하여 수렴하여 활용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료: 김승환외(1997)

도시 어메니티 자원발굴은 단순히 자원을 조사·발굴하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주민과 실무자에 의한 도시자원 필터링 과정이 완료되면, 도시내 핵심 어메니티 자원들에 대해서는 인벤토리(inventory) 작업을 실시하여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어메니티 수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업무카드 작성,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자원 홍보작업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국내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1) 사례조사 개요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절차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국내 도시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금번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는 첫째,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에 의해 해당 도시에서 발굴된 자원에 대한 주민의 어메니티 인식도, 어메니티 속성, 해당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평가 등을 설문하여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필터링하고, 둘째, 도출된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유형별로 어메니티 보전 및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사례 도시의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 어메니티 창출 및 활력화 정책방안 도출에 유용하도록 수도권(안양시) 및 비수도권(군산시)에 소재한 도시를 선정하여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도시 입지여부(수도권·비수도권), 인구규모, 도시 형태(전통적인 도시, 도-농 통합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양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전통적인 도시로서 인구는 2007년 9월말 624,730명인 반면, 군산시는 1990년대 중반 전라북도의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하여 형성된 도-농 통합시로서 현재 인구는 260,338명이다.

2)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1)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절차

안양시 어메니티 플랜, 안양시정 백서, 관광안내책자, 홈페이지, 신문 자료 등에 의해 발굴된 자원(98개)으로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안양시 어메니티 자원리스트에 대한 필터링 작업을 위해 2007년 6월 안양시정에서 주관하는 시민자치대학 수강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조사표를 배포하고 조사의 취지와 방법을 직접 설명하였다. 조사결과 회수 및 분석에 활용된 조사표는 총 80부(회수율 50%)이다.
(2)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사례 분석내용

①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분포 유형

도시 어메니티 자원리스트 구축결과(단계),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은 총 98개로서 거의 자연 그대로의 자원 5개(5.1%),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 69개(70.4%), 인위적인 어메니티 자원 24개(24.5%)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중분류별 자원분포 현황은 자연자원 5개(5.1%), 경관자원 15개(15.3%), 역사자원 24개(24.5%), 문화자원 30개(30.6%), 생활자원 24개(24.5%)로 나타났다.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원이 약 7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문화자원, 역사자원, 생활자원, 경관자원, 자연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정백서, 관광안내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안양시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알려져 있는 자원들이다.15)

14) 조사대상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1.8세이고, 안양시 평균거주기간은 19.8년으로 나타났다.
15) 본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 유형적인 어메니티 자원 위주로 발굴되는
②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 수준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과정에서 시민대상의 설문조사 응답율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핵심자원, 주요자원, 일상자원, 잠재자원으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는 핵심자원은 응답자의 75%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자원을, 주요자원은 응답자의 50%이상~75%미만이 인지하는 자원을, 일상자원은 25%이상~50%미만이 인지하는 자원을, 잠재자원은 25%미만의 응답자만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 총 98개 가운데 시민들이 핵심자원으로 인지하는 자원은 안양유원지 1개소에 불과하며, 주요자원은 학의천, 평촌중앙공원 등을 포함해 11개이다. 전체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12%i만 핵심 및 주요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88%의 자원은 조사 대상자(안양시민)들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일상·잠재자원으로 분류되었다.16)

자원 유형별 인지 수준을 보면, 자연자원은 전체 5개 가운데 학의천·안양천·수리산 등 4개가 주요자원으로 분류되고, 청계산만이 일상자원으로 분류되었다. 경관자원은 전체 15개 가운데 핵심·주요자원 3개, 일상자원 4개, 잠재자원 8개로 나타났다. 문화자원 및 생활자원은 일상자원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사자원은 핵심·주요자원으로 인지하는 자원이 전무하며, 대부분 잠재자원으로 분류되었다.17)

③ 안양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현황과 속성

안양시의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 12개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자연자원(4개) 33%, 경관자원(3개) 25%, 문화자원(2개) 17%, 생활자원(3개) 25%로 자연자원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역사자원은 핵심 및 주요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계를 보이고 있다.

16) 안양시 10대 어메니티 자원(어메니티 자원 중 유형별 소수외 제외한 10개를 순위대로 선정): 안양유원지, 수리산 산림욕장, 학의천, 안양천, 수리산, 평촌중앙공원, 관악산, 안양시장, 문예회관, 안양시민축제(설문조사 결과).
17) 안양시의 유형별 대표 어메니티 자원(소수유형별 제외 대표): 자연자원(학의천), 경관자원(중앙공원), 역사자원(삼막사 마애삼존불), 문화자원(안양시장), 생활자원(중앙시장)
### 표 3-4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설문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자원분류</th>
<th>핵심자원 (75%이상)</th>
<th>주요자원 (50%-75%미만)</th>
<th>일상자원 (25%-50% 미만)</th>
<th>잠재자원 (25%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자연 일반자원 (5)</td>
<td>-</td>
<td>학위, 안양천, 수리산, 관악산</td>
<td></td>
<td></td>
</tr>
<tr>
<td>경관 자원 (15)</td>
<td>안양, 중앙공원, 수리산 산림욕장</td>
<td>자유공원, 비산공원, 비산도로변 녹지, 경계도로변 녹지</td>
<td>경관공원, 광활공원, 청계공원, 수리산, 석수산, 풍수공원, 석수산, 관악산 등</td>
<td></td>
</tr>
<tr>
<td>문화 자원 (30)</td>
<td>-</td>
<td>문예회관, 안양시청</td>
<td>문예회관, 안양시청, 도서관, 관악산, 양궁장, 관악산, 석수산, 경계도로변 녹지</td>
<td></td>
</tr>
<tr>
<td>인위적 자원 (24)</td>
<td>중앙시장, E마트, 안양시민축제</td>
<td>남부시장, 중앙시장, 대로변, 관악산, 경계도로변 녹지, 관악산, 석수산, 관악산, 석수산, 관악산, 경계도로변 녹지</td>
<td></td>
<td></td>
</tr>
<tr>
<td>총 98개</td>
<td>1개</td>
<td>11개</td>
<td>40개</td>
<td>46개</td>
</tr>
</tbody>
</table>

주: 안양유원지는 2006년 2월 안양예술공원으로 개명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던 명칭인 안양유원지로 설문하였음
자료: 안양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2007년 6월)
<table>
<thead>
<tr>
<th>자원 분류</th>
<th>자원명</th>
<th>대중</th>
<th>소</th>
<th>자원 인지 여부</th>
<th>환경·생태성</th>
<th>문화·심미성</th>
<th>지역·역사성</th>
<th>경제성</th>
<th>폐기성 (접근성)</th>
<th>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자연자원</td>
<td>수변자원</td>
<td>학교폭</td>
<td>56</td>
<td>48</td>
<td>5</td>
<td>14</td>
<td>8</td>
<td>24</td>
<td>0</td>
<td>4.0</td>
</tr>
<tr>
<td>자연자원</td>
<td>수목자원</td>
<td>수목산</td>
<td>53</td>
<td>40</td>
<td>10</td>
<td>20</td>
<td>6</td>
<td>16</td>
<td>0</td>
<td>4.3</td>
</tr>
<tr>
<td>자연자원</td>
<td>유역자원</td>
<td>관악산</td>
<td>39</td>
<td>35</td>
<td>10</td>
<td>26</td>
<td>3</td>
<td>16</td>
<td>0</td>
<td>4.3</td>
</tr>
<tr>
<td>경관자원</td>
<td>도시공원</td>
<td>중심공원</td>
<td>52</td>
<td>12</td>
<td>26</td>
<td>10</td>
<td>7</td>
<td>27</td>
<td>3</td>
<td>3.9</td>
</tr>
<tr>
<td>유원지</td>
<td>수리산 삼림욕장</td>
<td>58</td>
<td>42</td>
<td>5</td>
<td>16</td>
<td>3</td>
<td>20</td>
<td>3</td>
<td>3.9</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안양유원지</td>
<td>61</td>
<td>28</td>
<td>29</td>
<td>25</td>
<td>6</td>
<td>18</td>
<td>1</td>
<td>4.2</td>
<td></td>
</tr>
<tr>
<td>문화자원</td>
<td>문화재</td>
<td>문화재</td>
<td>44</td>
<td>1</td>
<td>37</td>
<td>9</td>
<td>7</td>
<td>19</td>
<td>0</td>
<td>4.2</td>
</tr>
<tr>
<td>문화자원</td>
<td>안양사람</td>
<td>49</td>
<td>7</td>
<td>19</td>
<td>22</td>
<td>9</td>
<td>28</td>
<td>0</td>
<td>4.1</td>
<td></td>
</tr>
<tr>
<td>사적자원</td>
<td>사적자원</td>
<td>-</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0</td>
</tr>
<tr>
<td>사회자원</td>
<td>중심시장</td>
<td>중심시장</td>
<td>45</td>
<td>7</td>
<td>0</td>
<td>23</td>
<td>23</td>
<td>24</td>
<td>1</td>
<td>3.8</td>
</tr>
<tr>
<td>사회자원</td>
<td>읍면</td>
<td>읍면</td>
<td>41</td>
<td>1</td>
<td>3</td>
<td>10</td>
<td>25</td>
<td>28</td>
<td>4</td>
<td>3.9</td>
</tr>
<tr>
<td>사회자원</td>
<td>읍면존재</td>
<td>한성대</td>
<td>45</td>
<td>0</td>
<td>33</td>
<td>29</td>
<td>8</td>
<td>10</td>
<td>0</td>
<td>4.1</td>
</tr>
<tr>
<td>사회자원</td>
<td>유형별 대표 속성 및 평균값</td>
<td>-</td>
<td>90</td>
<td>116</td>
<td>82</td>
<td>32</td>
<td>112</td>
<td>7</td>
<td>4.1</td>
<td></td>
</tr>
<tr>
<td>핵심 및 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대표 속성 변동과 가치 평가</td>
<td>핵심 및 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대표 속성 변동과 가치 평가</td>
<td>-</td>
<td>266</td>
<td>181</td>
<td>226</td>
<td>108</td>
<td>249</td>
<td>13</td>
<td>4.1</td>
<td></td>
</tr>
</tbody>
</table>

안양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에 대한 분석결과, 환경·생태성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꼽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리성, 지역·역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연자원은 환경·생태성을, 경관·문화자원은 문화·심미성을, 사회자원은 폐기성을 어메니티의 주요 속성으로 들고 있다.

④ 안양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평가

안양시의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 12개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 전체 평점은 4.1점이며, 유형별로 자연자원(4.2점), 경관·문화자원(4.1점), 사회자원(3.9점)의
순으로 어메니티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공원, 시장 및 상업지역의 어메니티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특징 및 활용방안

안양시의 어메니티 자원조사에서 나타난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양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주요 속성 내지 기능으로 환경·생태성 이외에 관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도시의 환경·생태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민의 생활과 이용성을 중시하는 도시계획 및 시설 배치 등을 도시계획의 주요 착안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역사자원이나 시설경관자원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도시내 역사자원, 시설경관 제고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도시민들의 생활과의 연계성을 최대화하여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케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작업은 자체로서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작업을 통해 도시가 보유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 정책업안자나 설무자들에게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토록 하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양양시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어메니티 체감도 제고하기 위해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인벤토리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4>는 양양시 평촌중앙공원을 사례로 어메니티 자원인벤토리를 작성한 자료이다. 자원 인벤토리 내용에는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체계, 자원의 입지유형, 자원의 속성과 기능, 자원의 가치수준 평가, 자원의 특성과 이용현황,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잠재적과 문제점, 어메니티 자원 보전·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공이나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자원의 특성 및 개요

<table>
<thead>
<tr>
<th>분류 기호</th>
<th>안양시-03</th>
<th>자원 이름</th>
<th>분류</th>
<th>자원분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평촌중앙공원</td>
<td></td>
<td>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어메니티(대) - 경관자원(중) - 도시공원(소)</td>
</tr>
</tbody>
</table>

###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안양역 북동쪽 2km 지점)
- 문의처: 안양시청 녹지공원과 예술공원관리팀 031)389-3128

### 입지유형

<table>
<thead>
<tr>
<th>자원유형</th>
<th>도시</th>
<th>위치도 및 현황 사진</th>
</tr>
</thead>
<tbody>
<tr>
<td>어메니티 속성 (10점기준)</td>
<td>3.9 / 5.0</td>
<td></td>
</tr>
</tbody>
</table>

### 어메니티 가치평가

1. 자원의 특성
   - 면적: 36,000평
   - 시설현황: 분수를 비롯한 다양한 천수시설, 인라인 스케이트장(1,000평)
   - 나무그늘, 파고라, 산책로는 녹음 및 그늘을 제공하며 야간에 수영 시설의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 연출

2. 이용현황
   - 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동적인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차 없는 거리" 및 "벼룩시장"을 조성
   - 가족 단위 및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간

### 문제점 및 잠재력

<table>
<thead>
<tr>
<th>황후 정책시점 및 활성화 방안</th>
</tr>
</thead>
</table>
| 신도시(평촌)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공원으로 구도시(만안구)에서도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
| 차없는 거리, 벼룩시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의 연계하여 도시민의 종합적인 휴식·이용공간으로 높은 잠재적 보유 |
| 인근 가주민들의 카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멀어지기 위해 "벼룩시장" 등 활성화
| 주민교류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화
|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들을 개최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이용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원 필요 |
| 구도시와의 접근성 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티버스 운행 및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연결 확대 지원필요 |

30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3)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 사례분석

(1) 자원조사방법 및 발굴 절차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을 위해 군산시 관광안내책자, 시청 벽보, 홈페이지, 신문 등 관련자료 검색을 통해 120여개 이상의 자원목록을 구축하였다. 자원 설문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도시계획분야 실무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사전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81개의 자원리스트를 구축하였다. 군산시 어메니티 자원리스트에 대해서는 2007년 7~8월 중 군산시 공무원 200명을 대상(18)으로 조사표를 배포, 최종적으로 회수·분석에 활용된 조사표는 118부(회수율 59%)이다(19).

<그림 3-5> 군산시 도시어메니티 자원조사방법 및 절차

<table>
<thead>
<tr>
<th>단 계</th>
<th>방 법</th>
<th>예 시</th>
</tr>
</thead>
</table>
| 1 단계 | 도시어메니티 자원 리스트 구축 | ○ 문헌조사를 통한 어메니티 자원리스트 구축  
- 지역관련문헌(시청벽보, 관광안내책자)  
- 인터넷 조사(군산시청 홈페이지)  
- 신문스크랩 및 지형도 활용(군산시 관광안내지도)에 의해 발굴된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및 자원리스트 구축 |
| 2 단계 | 어메니티 자원 필터링(어메니티 자원 평가) | ○ 군산시 실무공무원(도시계획과) 자문을 통해 1차 필터링 작업  
○ 군산시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2차 필터링 및 어메니티 자원 조사  
- 군산시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200명 배포, 118명 응답, 회수율 59%) |
| 3 단계 | 도시어메니티 자원인벤토리 작성 | ○ 위정조사(자원대상지 답사)를 통한 해상 및 주요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 |

18) 당초 군산시민을 조사대상으로 기획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 하였다.  
19) 조사대상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7세이고, 군산시 평균거주기간은 약 30년으로 나타났다.
(2)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사례 분석내용

①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분포 유형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리스트 구축 결과, 군산시의 도시 어메니티 자원은 총 81개로서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 6개(7.4%),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 62개(76.5%), 인위적인 어메니티 자원 13개(16.1%)이다. 이들 자원의 종류별 분포는 자연자원 6개(7.4%), 경관자원 10개(12.3%), 역사자원 24개(29.6%), 문화자원 28개(34.6%), 생활자원 13개(16.1%) 등이다.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이 약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형별로는 문화자원, 역사자원, 생활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 수준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조사응답자의 75%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핵심자원은 선유도해수욕장, 고군산군도 등 4개이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인지하는 주요자원은 금강시민공원 등 11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81개 자원 가운데 16개인 약 19%만이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이며, 일상자원 45개(약56%), 잠재자원 20개(약25%)로 분류되었다.

자원 유형별 인지 수준을 보면, 자연자원 6개 가운데 선유도해수욕장, 고군산군도, 내항, 금강시민공원 등 4개가 핵심·주요자원으로 나타났다. 경관자원 11개 중에서 은파유원지와 금강호유원지가, 역사자원 24개 중에서 군산해망굴과 이영춘가옥이, 문화자원 28개 중에서 산업단지, 철새조망대, 금강하구둑이, 생활자원 13개 중에서 수산물종합센터, 군산세계철새축제,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

20) 조사대상 응답자의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자원을 핵심자원(응답자의 75%이상), 주요자원(응답자의 50%이상~75%미만), 일상자원(응답자의 25%이상~50%미만), 잠재자원(응답자의 25%미만)으로 유형화하였다.
21) 군산시 10대 대표 어메니티 자원(빈도수 순위 기준): 은파유원지, 원봉공원, 고군산군도, 선유도해수욕장, 내항, 철새조망대, 군산세계철새축제, 금강하구둑, 금강시민공원,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32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핵심: 주요자원으로 꼽았다. 그리고 역사자원, 문화자원, 생활자원의 대다수 자원들은 일상자원 군으로 인지·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사자원에 대한 인지도에서 안양시에 비해 어메니티 자원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설문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도시어메니티 자원 분류</th>
<th>핵심자원 (75% 이상)</th>
<th>주요자원 (50% 이상 - 75% 미만)</th>
<th>일상자원 (25% 이상 - 50% 미만)</th>
<th>잠재자원 (25%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지역</td>
<td>자연자원 (6)</td>
<td>선유도해수욕장, 고군산군도</td>
<td>방주폭포, 오성산</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전용자원 (8)</td>
<td>삼척도의 해수욕장, 금강시민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경관자원 (12)</td>
<td>선유낙조, 서양호수</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문화자원 (24)</td>
<td>선수관, 천천호수</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인위적자원 (32)</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자연자원 (10)</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전용자원 (6)</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경관자원 (8)</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문화자원 (16)</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인위적자원 (40)</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자연자원 (4)</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전용자원 (4)</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경관자원 (4)</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문화자원 (4)</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인위적자원 (4)</td>
<td>선수관, 해수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총 대상</td>
<td>81개</td>
<td>4개</td>
<td>12개</td>
<td>45개</td>
<td>20개</td>
</tr>
</tbody>
</table>

자료: 군산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2007년 7~8월)

22) 군산시 유행별 대표 어메니티 자원(소분류별 최고 반도수 기준): 자연자원(대항, 고군산군도), 경관자원(반도항, 선수관, 해수욕장), 문화자원(철수전망대, 관광자원).
군산시의 핵심 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현황과 속성

군산시의 핵심 주요 어메니티 자원 16개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자연자원 4개(25.0%), 경관자원 3개(18.8%), 역사자원 2개(12.4%), 문화자원 3개(18.8%), 생활자원 4개(25.0%)이다. 이 가운데, 핵심자원은 자연자원 2개(선유도해수욕장, 고군산군도)와 경관자원 2개(은파유원지, 월명공원)이다.

表 3-7 군산시 핵심 주요 어메니티 자원별 속성 및 가치 평가

<table>
<thead>
<tr>
<th>자원 분류</th>
<th>자원명</th>
<th>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어메니티 가치평가</th>
</tr>
</thead>
<tbody>
<tr>
<td>자연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수변자원</td>
<td>내항</td>
<td>환경, 생태계, 생물다양성, 자생</td>
<td>4.0</td>
</tr>
<tr>
<td>선유도해수욕장</td>
<td></td>
<td></td>
<td>3.3</td>
</tr>
<tr>
<td>경관자원</td>
<td>고군산군도</td>
<td></td>
<td>3.4</td>
</tr>
<tr>
<td>유원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공원</td>
<td>금강산시민공원</td>
<td></td>
<td>4.4</td>
</tr>
<tr>
<td>월명공원</td>
<td></td>
<td></td>
<td>4.3</td>
</tr>
<tr>
<td>은파유원지</td>
<td></td>
<td></td>
<td>4.4</td>
</tr>
<tr>
<td>금강호유원지</td>
<td></td>
<td></td>
<td>4.1</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역사자원</td>
<td>주요문화재</td>
<td></td>
<td></td>
</tr>
<tr>
<td>유형문화재</td>
<td>군산 해망굴</td>
<td></td>
<td>3.6</td>
</tr>
<tr>
<td>이영춘 가옥</td>
<td></td>
<td></td>
<td>3.8</td>
</tr>
<tr>
<td>기념물</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생활자원</td>
<td>공동체활동자원</td>
<td></td>
<td></td>
</tr>
<tr>
<td>시설자원</td>
<td>상업지역</td>
<td></td>
<td></td>
</tr>
<tr>
<td>건축물</td>
<td>상업지역</td>
<td></td>
<td></td>
</tr>
<tr>
<td>건물</td>
<td>상업지역</td>
<td></td>
<td></td>
</tr>
<tr>
<td>수변자원</td>
<td>내항</td>
<td></td>
<td></td>
</tr>
<tr>
<td>생활자원</td>
<td>동향활동자원</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설자원</td>
<td>상업지역</td>
<td></td>
<td></td>
</tr>
<tr>
<td>문화자원</td>
<td>공동체 활동자원</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문화자원</td>
<td>상업지역</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관자원</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군산시 핵심 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대표적 그룹별 가치 평가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군산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기능)에 대한 설문 결과, 환경·생태성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입체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역사성, 문화·심미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 유형별로는 자연자원은 환경·생태성을, 경관·문화자원은 환경·생태성을, 역사자원은 지역·역사성을, 생활자원은 경제성을 어메니티의 주요 속성으로 들고 있다.

④ 군산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평가
군산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 16개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전체 평점은 4.1점이며, 유형별로 자연자원 4.2점, 경관·문화자원 4.1점, 생활자원 4.0점, 역사자원 3.7점의 순으로 어메니티 가치를 평가하였다. 특히, 역사자원의 어메니티 가치를 여타 자원 유형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군산시 도시어메니티 자원조사 특징 및 활용방안
군산시 어메니티 자원조사에서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산시 어메니티 자원의 주요 속성으로 환경·생태성 이외에 경제성도 높게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관자원(공원, 유원지)과 공동체 활동자원(축제)의 어메니티 가치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도농통합시인 군산시의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창출을 위해서 지역적 경제성과 경제성 확보에 대한 주안점을 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6>은 군산시의 고군산군도의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 예시이다.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

<table>
<thead>
<tr>
<th>분류 기호</th>
<th>군산시-01</th>
<th>자원 이름</th>
<th>고군산 군도</th>
<th>자원분류</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및 연락처</td>
<td>- 위치 : 군산시 옥도면</td>
<td>- 문의처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0-4436</td>
<td></td>
<td></td>
</tr>
<tr>
<td>임차유형</td>
<td>도시</td>
<td></td>
<td></td>
<td></td>
</tr>
<tr>
<td>어메니티 속성 (10점 기준)</td>
<td></td>
<td></td>
<td></td>
<td>4.4 / 5.0</td>
</tr>
<tr>
<td>어메니티 가치평가</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 자원의 특성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는 섬의 무리로 대장도(大長島), 선유도(仙遊島), 신시도(新侍島)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에로부터 선유8경이라 하여 자연이 창조해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여 왔으며 이곳에 230만평 규모의 국제해양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2. 이용현황
- 고군산군도의 섬은 바다낚시로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천혜의 해상공원으로 고군산 일주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외적인 관광 명소로 부각될 관광지임

문제점 및 잠재력
- 오래전부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지가 상승 및 난개발 등 경관 해손 심각
- 주요 조망점에 불법건축물 난립으로 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관관리에 저해받는 대두 가능성
-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편임

향후 정책지원 및 활성화 방안
- 섬의 독특한 어메니티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관협약 및 토지 이용반안(건축물 규제, 공가며 활용 지원) 마련 필요
-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선박편 및 섬내 다양한 교통시설 제공(자동차, 카트, 보도 등)

<그림 3-6> 군산시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
4. 종합 검토와 시사점

1) 도시내 자원에 대한 어메니티 인지도 저조

안양시와 군산시를 사례로 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첫째, 도시내 자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어메니티 자원 인지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경우, 핵심 어메니티 자원 1개와 주요 어메니티 자원 11개로 전체 98개 가운데 약 12%만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군산시는 핵심 어메니티 자원 4개와 주요 어메니티 자원이 12개로 전체 81개 가운데 약 19%만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20%내에 불과하며, 도시내 자원들이 대체로 일상자원 내지 잠재자원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표 3-8>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핵심 자원</th>
<th>주요 자원</th>
<th>일상 자원</th>
<th>잠재 자원</th>
</tr>
</thead>
<tbody>
<tr>
<td>안양시</td>
<td>98개 (100.0)</td>
<td>1개 (1.0)</td>
<td>11개 (11.2)</td>
<td>40개 (40.8)</td>
<td>46개 (47.0)</td>
</tr>
<tr>
<td>군산시</td>
<td>81개 (100.0)</td>
<td>4개 (4.9)</td>
<td>12개 (14.8)</td>
<td>47개 (55.6)</td>
<td>20개 (24.7)</td>
</tr>
</tbody>
</table>

핵심자원: 조사 대상자 가운데 75%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자원  
주요자원: 조사 대상자 가운데 75%이하 50%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자원  
일상자원: 조사 대상자 가운데 50%이하 25%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자원  
잠재자원: 조사 대상자 가운데 25%미만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자원

둘째, 역사자원에 대한 어메니티 자원 인지도가 저조하며, 생활자원은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평가가 저조한 편이다. 역사자원의 경우, 핵심·주요자원에 해당되는 자원이 안양시의 경우는 전무하며, 군산시도 2개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활동 및 생활자원인 사회자원의 어메니티 가치평가는 여타 자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내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거주민의 체감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도시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도시 어메니티 자원 속성 상이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핵심·주요자원의 대표 속성으로 환경·생태성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양시는 편리성을, 군산시는 지역·역사성을 주요 속성으로 들고 있다. 즉 어메니티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지만, 도시 특성 및 조사 대상자에 따라 어메니티의 속성(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 비교: 안양시와 군산시 사례

![그림](image_url)

〈표 3-9〉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주요 속성(설문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100.0)</th>
</tr>
</thead>
<tbody>
<tr>
<td></td>
<td>1위</td>
</tr>
<tr>
<td>안양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 (12개)</td>
<td>환경·생태성 (25.5)</td>
</tr>
<tr>
<td>군산시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 (16개)</td>
<td>환경·생태성 (26.1)</td>
</tr>
</tbody>
</table>

23) 안양시와 군산시의 전체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은, 핵심·주요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 결과와 달리 지역·역사성과 문화·심미성을 우위적인 어메니티 속성으로 뽑고 있다.

38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향후 도시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및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시별 특성과 거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수단과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추진 시책간 연계 미흡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 어메니티 및 경관의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녹지 조성이나 가로, 건축물 등에 대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어메니티 제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간의 갭(gap)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향후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요소 발굴 및 주민 수요를 토대로하여 주민의 행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즉 도시 어메니티 자원은 개별적인 도시자원 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창출되는 집합적인 도시 어메니티 여건의 조성이 보다 중요하다. 도시 정체성·이미지, 도시구조 및 동선, 스카이라인 구축을 위한 종합적 고려가 중요하다.

24)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어메니티 타운계획 수립시 도시의 인구규모, 산업구조, 도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8개(대도시, 수도권, 수도권 중핵도시, 지방중추도시, 지방중규모 도시, 지방소도시, 농촌도시)로 유형화하여 도시별 특성에 따라 어메니티 창출과제와 실현방법을 상이하게 제시하였다.

25) 미국에서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을 주장한 안드레 두아니는 미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택단지, 쇼핑센터, 사무실 지역, 공공 또는 시민사회지역(civic space), 도로 등 5개를 주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뉴어버니즘이 지향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은 첫째, 현재 도심중심지로의 재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교외화 확산을 방지하며 커뮤니티로 바꾸기 전환시킨다. 셋째,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존한다. 넷째, 전통적 도시환경과 미스를 가꾸고 보존한다(최현선외, 2006: 18-19번).
이 장에서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해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정책추진체계 등 도시 어메니티 창출과 관련한 제반 정책수단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향후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현황

1) 국내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현황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은 첫째,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관련계획 수립·집행, 둘째, 양호한 도시환경 증진을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해 직접적규제, 셋째, 도시 어메니티 증진사업과 시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넷째,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자율규제, 협정·협약 등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 유도 지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 창출정책 실현, 평가를 위한위원회와 민간 차원의 자발적 활동 등의 어메니티 추진체계 운영이 있다.

26) OECD 국가들의 어메니티 창출정책은 크게 규제정책(토지이용규제, 특정 어메니티 규제, 토지보상), 재정적 인센티브정책(관세,세금,비용지원), 상업적 가치증가 지원정책(어메니티 이용권 시장, 지리적 표시, 품질인증 시장), 집합적 행동 지원(자율규제, 협정, 네트워킹 지원)으로 구분된다(OECD, 1999; 오현석·김정섭, 2002).
(1) 어메니티 관련법률 및 계획 수립

우리나라는 도시환경 및 환경개선, 넓게는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해 각종 법률과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다. 어메니티와 관련한 현행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역·지구계획), 경관법(경관계획), 도시공원법(자연환경보전계획,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계획), 건축법(건축물 계획),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도로경비계획), 하천법(하천경비계획), 옥외광고물관리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 등이 있고, 어메니티 플랜 관련계획에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이 있으며, 비법정계획으로는 정기종합개발계획, 도시환경기본계획, 지방의계획 21개 등이 있다(김세용외, 2003: 178쪽). 이들 법률과 계획들은 <표 4-1>과 같이 공간 위계별로 도시 및 지역 차원, 근린 커뮤니티 차원, 주거단위 차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도시 및 지역차원</th>
<th>근린 커뮤니티 차원</th>
<th>주거 차원</th>
</tr>
</thead>
<tbody>
<tr>
<td>관련 법</td>
<td>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역·지구계획), 경관법(경관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법</td>
<td>도시공원법(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법)</td>
<td>건축물(건축물계획), 주차장법(주차장계획), 옥외광고물관리법(옥외광고물정비계획)</td>
</tr>
<tr>
<td>도시공원법(자연환경보전계획,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전계획), 도로법(도로경비계획), 하천법(하천경비계획)</td>
<td></td>
<td></td>
<td></td>
</tr>
<tr>
<td>관련 계획</td>
<td>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도시환경기본계획, 환경관리계획 등</td>
<td>지구단위계획</td>
<td>개별 건축물계획</td>
</tr>
<tr>
<td>관련 지침</td>
<td>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경관관리지침과 산지·구릉지의 계획적 이용·관리지침</td>
<td>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김세용외(2003:178쪽) 및 경관법 등 참조
또한 도시 어메니티 관련 현행 법률은 적용 대상에 따라 도시경관 및 집합건축물, 간판, 건축물 등 개별 시설물 관리, 도시내 자연환경 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시 경관과 집합건축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예란법(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경관법(경관계획), 도시개발법(도시개발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공
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에서 도시어
메니티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둘째, 도시내 개별 시설
물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전계획), 도
로법(도로정비계획), 하천법(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계획) 등에
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표 4-2) 도시 어메니티 증진 관련 주요 법률 및 조례(예시) 1)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근거 법</th>
<th>조례목적</th>
<th>대상 및 정책수단</th>
</tr>
</thead>
<tbody>
<tr>
<td>도시경관(도시구조, 건축물, 시설물 등)</td>
<td>국토의계획 및이용예란법</td>
<td>도시계획</td>
<td>공공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td>
</tr>
<tr>
<td>(없음)</td>
<td>도시경관조례</td>
<td>도시경관창출</td>
<td>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법(경관계획), 경관협정, 경관위원회</td>
</tr>
<tr>
<td>경관법(2007.11 시행)</td>
<td>-</td>
<td>-</td>
<td>간판정리(간판물, 외부건축물, 조명 등),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회의, 경관계획</td>
</tr>
<tr>
<td>(없음)</td>
<td>전주시Art-polis조례</td>
<td>도시관련 및 디자인 제고</td>
<td>디자인기아드미마인, 디자인심사위원회</td>
</tr>
<tr>
<td>건축법</td>
<td>건축조례</td>
<td>건축물 안전, 기능 및 미관향상</td>
<td>건축문화, 주거, 분수 등</td>
</tr>
<tr>
<td>(없음)</td>
<td>조정(시설)/관리조례</td>
<td>도시계획, 경관향상</td>
<td>녹지, 분수 등 조정시설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td>
</tr>
<tr>
<td>옥외광고물 관리법</td>
<td>옥외광고물관리조례</td>
<td>향익한</td>
<td>고품종,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td>
</tr>
<tr>
<td>문화재 보호법</td>
<td>문화재보호조례</td>
<td>문화재보전, 향토문화계승과 발전 기여</td>
<td>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전문가, 전통문화계승구역 등</td>
</tr>
<tr>
<td>자연경관</td>
<td>자연환경 보전법</td>
<td>자연환경보전법 위임</td>
<td>자연환경보전, 해양환경,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추진,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 자연환경보전계획</td>
</tr>
<tr>
<td>(없음)</td>
<td>자연환경보고서조례</td>
<td>자연환경보전</td>
<td>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추진,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 자연환경보전계획</td>
</tr>
</tbody>
</table>
| 주*: 경관법 시행이전까지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 예정  

제4장·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운용 실태와 문제점 43
셋째, 도시의 물리적 환경 이외에 자연환경 및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법(지방자치시설가능발전 기본전략), 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법령이 운용되고 있다.

(2) 건축물, 개별 시설물 등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규제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해 규제(regulation)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 간판물 등 개별 시설물의 형태나 위치, 배치 등에 대해 직접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과 지구·지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첫째, 건축물을 비롯한 개별 옥외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법(건축선 지정 및 건축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설치), 옥외광고물관리법(광고물 허가·신고), 경관 관리지침(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위치, 색채, 용적률, 재질, 옥외광고물, 조명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에서 설치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형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개발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권역별 행위제한, 대규모 개발사업규제), 군사시설보호법(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내 건축행위제한) 등에서 특정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여 광역적 단위에서 관리되어 운용되기도 한다.

(3) 도시 어메니티 증진사업 추진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하여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시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특정·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부처들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어메니티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살기좋은

27) 건설교통부는 2005년 국토 어메니티 혁신 기획보고서(안)를 마련하여, 국토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환경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메니티 개선의 정책목적을 크게 국가경쟁력 제고, 도시건축의 예술적

44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도시아이덴티티 만들기 사업 등, 행정자치부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과 환경정 도로망 구축사업, 도시 공간문화 개선사업, 환경부는 에코시티 조성사업, 자연생태하천 만들기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표 4-3] 부처별 어메니티 증진시책 추진사례 (2007년)

<table>
<thead>
<tr>
<th>부처</th>
<th>어메니티 관련 정책추진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건설교통부</td>
<td>경관 기본법 제정(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간고싶은 도시 만들기·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원 만들기·친환경 웰빙도시 만들기, 도시친수공간 조성·도시아이덴티티 만들기</td>
</tr>
<tr>
<td>문화관광부</td>
<td>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국회 계류 중) 및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사업·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생활환경적 문화 공간 조성·일상장소 문화 생활 공간화 기획, 컨설팅 지원·간판문화 개선사업·건축문화 개선사업</td>
</tr>
<tr>
<td>행정자치부</td>
<td>환경정 공간화 도로망 구축·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조성</td>
</tr>
<tr>
<td>환경부</td>
<td>에코시티 조성, 환경 복원을 통한 자연·생태화활 만들기·도심친수공간 조성, 도시내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td>
</tr>
</tbody>
</table>

최근 도시 어메니티 증진이라는 법 목적 29)과 유사한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도시 정관(넓게는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즉 걷고싶은 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정비·개선

28)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모부처가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취한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총괄·지원하면서 건교부(간고싶은 도시), 농림부(살기좋은 농촌), 문광부(가고싶은 섬), 행자부(지자체 우수계획) 등이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29)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 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정비·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정하고 있다.
사업, 지역녹화, 야간경관 조성,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협정·협약 등 자율적·집합적 활동(collective action) 유도 지원

경관법에서는 경관 협정(경관협약,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조항을 두어 도시내 주민과 사업주체들간의 자율적인 협정을 유도하고 지원토록 하고 있다.30) 최근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을 제정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민·관간의 공동협약 체결을 일례로 들 수 있다.

2) 국내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현황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도시 어메니티 및 경관 환경 개선을 위해 어메니티 관련 법률에 의거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심사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건축심사위원회,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30) 우리나라의 경관협정 범위는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인정제도, 경관협정, 경관협의회 등과 같은 조항들을 두어 지자체의 다양한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존재하여 지역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중시한다.

<table>
<thead>
<tr>
<th>일본(경관협정)</th>
<th>미국(커브먼트)</th>
<th>우리나라는 경관협정</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물 형태, 의장·색채, 구조, 유도, 설비기준, 옥외광고물, 농지보전, 수림지 보전, 녹화 등</td>
<td>건축시 제한요건, 주택외장재료 및 색채, 액화본토수, 주택내 영업활동금지, 유효 및 안전관리</td>
<td>건축물 의장, 색채, 설비기준, 옥외광고물, 건축물, 시설물 외부공간, 토지의 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경관 등</td>
</tr>
</tbody>
</table>

자료: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첨부(2006.7.14)

표 4-4 일본, 미국 및 우리나라 경관협정의 범위

46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관사업 추진협의체’와 같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민과 시민단체 등 민간 자원조직들도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한다.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같이 민간비영리조직이나 자율적 시민단체 등을 조직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개발적으로 운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측면에 있어서 추진주체의 전문화 ․ 다중화 ․ 네트워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내 어메니티 증진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 ․ 운영, 유사 목적을 갖는 비영리조직 간 네트워킹을 통한 어메니티 증진 추진 등이 그것이다.

(표 4-5) 도시 어메니티 보전 및 창출을 위한 현행 정책수단 종합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관련 법령 및 정책수단</th>
</tr>
</thead>
<tbody>
<tr>
<td><strong>정책 수단</strong></td>
<td></td>
</tr>
<tr>
<td>어메니티 관련계획 수립 및 법령 제정</td>
<td>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법(경관계획), 도시공원법(자연환경보전계획),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계획), 도로법(도로정비계획), 하천법(하천경비계획) 등</td>
</tr>
<tr>
<td>건축물 형태 등 대한 직접적 규제수단 활용</td>
<td>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용도지역 ․ 지구 지정 및 개발행위 제한), 경관 관리지침(높이, 스키라인, 형태, 위치, 색채, 유적물, 재질, 옥외광고물, 조명 등), 건축법(건축성 지정 및 건축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td>
</tr>
<tr>
<td><strong>유형</strong></td>
<td></td>
</tr>
<tr>
<td>어메니티 증진사업 재정 ․ 기술적 지원</td>
<td>건고신은 거리 등 가로환경 정비, 지역녹화, 아간경관 조성 등에 개정 지원(경관법)</td>
</tr>
<tr>
<td>자율적 집합적 활동 유도 및 지원</td>
<td>살고싶은 도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CI작성 ․ 홍보 지원활동 등</td>
</tr>
<tr>
<td>추진 체계(조직)</td>
<td>관련 법률에 의거한 위원회 구성 통해 사업심사 및 지원결정</td>
</tr>
<tr>
<td></td>
<td>지자체내 도시경관을 총괄하는 별도 조직 미비, 도시계획과 관련 개별부서 운영</td>
</tr>
<tr>
<td></td>
<td>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과 및 재 주관으로 조직 신설 운영(서울시는 공공디자인본부 직제 설치 ․ 운영)</td>
</tr>
<tr>
<td></td>
<td>주민, 시민단체, 예술단체 등에 의해 어메니티 보전활동 추진 노력</td>
</tr>
</tbody>
</table>
2. 도시 어메니티 창출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 실태

1) 조사 개요

도시 어메니티 창출에 대한 인식여부, 정책지원 및 분야 등 정책수요 파악을 2007년 4월~5월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하고자 도시지역 자치단체장의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6〉 정책수요 조사 개요(도시지역 자치단체장 대상)

| 조사목적 | 도시 어메니티 인식, 정책지원 필요성, 정책지원 수요 등 |
| 조사내용 |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 어메니티 자원보유 실태, 정책수행과정에서 어메니티의 도입여부, 정책수행과정에서 어메니티의 활용형태, 어메니티 도입, 운영의 지역효과,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 및 정책유형 등 |
| 조사방법 | 우편 및 팩스 설문조사 |
| 조사기간 | 2007년 4월~5월중 |
| 회수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227부 배포(총 회수 72부, 도시지역 48부) |

2) 도시 어메니티 인식과 정책수요 조사: 도시지역 자치단체장 조사결과

(1) 어메니티 개념에 대한 인지도

도시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어메니티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어메니티를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메니티의 개념도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서 느끼는 편안함”,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 “만족을 주는 자원” 등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내 어메니티 자원 유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9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3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대상의 설문 조사표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제1권 총론보고서 부록에 실었다. 여기서는 이들 가운데,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조사결과 만을 발췌하여 분석·停车位한 내용이다.
(2) 정책수행 과정에서 어메니티 개념의 도입시기와 적용 분야

정책수행 과정에서 어메니티 개념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75%가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메니티 개념의 도입 시기는 2000년 이후에 도입한 도시가 69.2%에 달하여 최근의 정책적 관심증대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도시 어메니티 개념의 도입 내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메니티 지역브랜드 활용(36.7%), 어메니티 계획수립(24.1%), 어메니티 개선사업 추진(19.0%), 어메니티 지원 보전(11.4%), 어메니티 자원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도시내 어메니티 자원을 어메니티 브랜드로 활용하거나 어메니티 계획 수립 및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창출활동에 대하여 지원 위주의 정책이 우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수행 과정에서 어메니티 개념 도입효과

어메니티 개념을 행정수행과정에 도입하였거나 향후 도입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분야별 도입효과에 대해서도 지자체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관 제고효과(4.5점), 지역이미지 제고효과(4.5점), 지역환경 개선효과(4.4점), 주민 삶의 질 제고효과(4.1점), 지역관광소득 증대효과(4.1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4장・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운용 실태와 문제점 49
(4) 도시 어메니티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분야

도시내 자원의 어메니티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약 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정책수단으로는 상품개발 지원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상업적 가치 향상(44.9%), 직접지불 보조금제 등 어메니티 가치 증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34.7%), 협약·네트워킹 등 어메니티 자원 보호를 위한 집합적 활동 지원(10.2%), 어메니티 자원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운용 실태와 문제점

1) 전반적인 도시미관과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 미흡

도시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됨에 따라 자원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현행 도시시설 관련법령에서 도시내 쾌적성 및 거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건축물이나 옥외광고물, 가로경관 등 도시내 다양한 시설 및 녹지·자연 경관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도시미관·구조 형성을 하는 데 미흡한 것이 실정이다. 또한 개별적인 건축물 및 시설 디자인의 일관성 있게 계획되어 있지 않고, 외부환경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입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훼손되거나, 보행자 중심의 가로 조성 미흡 및 녹지·공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32) 최근 영국 정부는 공공 공간 디자인의 핵심으로 특정 공간들의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밀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구조에서 건물과 건물, 건물과 공간, 공간과 공간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이 도시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김정후, 2007: 106-107번).

<그림 4-5> 산 조망을 가린 도시내 고층 아파트군

32) 도시의 녹지와 공원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녹지가 부족하다(시설1인당 논지면적은 워싱턴 50㎡, 빈 25㎡, 런던 9㎡, 우리나라 4.9㎡)

제4장·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운용 실태와 문제점 51
2)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의 획일적·단발적인 운용

도시 어메니티 자원창출을 위한 현행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규제와 같이 어메니티 보전 위주의 정책수단이 운용되어 자발적인 유도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걷고싶은 도시, 간판개선사업 등의 어메니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시범 지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 일방적, 하향적, 시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지속화·확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문화관광부와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도시속의 예술 2006’이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황폐화로 전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한민호, 2007: 96쪽)

3) 도시 어메니티 플랜의 법적 근거 미흡과 관련법 체계화와 연계 부재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메니티 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를 계획화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어 도시 어메니티 플랜을 수립
하였다. 그러나 이들 도시 어메니티 플랜은 어메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등 현행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과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계획으로서 실효성있는 집행수단 및 추진체계 부재 등으로 페이퍼 플랜에 그친 실정이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도시 어메니티 플랜에서 지향하는 목표나 내용과 차이가 있다.

4) 도시 어메니티 창출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적 추진체계 미흡

도시 어메니티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어메니티 추진조직은 각종 법률에 의한 위원회를 위주로 계획이나 사업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부분 단발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추진되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어메니티 추진조직은 자발성을 토대로 운동(movement)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민간부문간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을 제시하였다. 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사례는 일본의 어메니티 플랜 수립사례와 미국의 뉴어버니즘 실행사례, 그리고 영국의 공공 공간 정책 사례 등을 통해 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내 도시 어메니티 창출사례는 현지 답사와 면담 등을 토대로 자원 유형별 도시내 일상 자원의 어메니티 창출 사례 위주로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다.

1. 해외의 도시 어메니티 창출정책 동향과 사례

1) 영 국

도시 어메니티의 태동은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아기된 도시문제, 위생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정주환경 창출에서 비롯되었다. 도시 어메니티 창출과 관련하여 영국의 정책사례는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어메니티 개념 도입과 시민협의체 등 조직 구성을 통한 어메니티 실천방안으로 구분된다.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영국의 어메니티 정책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환경의 질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1909년 도시계획법에 어메니티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근간까지 어메니티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어변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벨리지(Urban village) 운동과 시민생활 중심의 도시 만들기사업이 시도된 바 있다. 이 운동은 복합적 토지이용, 보행자 중심의 교통,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고품격의 도시설계를 통해 다양성을 갖춘 개성있는 도시만들기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한편, 어메니티 추진조직 및 체계와 관련하여 영국은 시민협의체를 통한 자발적인 추진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어메니티 추진은 시민협의체인 로컬 어메니티 소사이어티(Local Amenity Society)를 결성하여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중앙정부 주도하에 ‘건축 및 도시관리 정책위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 the Built Environment)’를 설립하여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공공 공간(public space)의 어메니티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과 관련한 계획정책지침서(Policy Planning Guidance: PPG 17)에서는 오른 공간과 운동 및 여가활동 공간을 다루는 정책으로 공공공간정책에 관한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정책지침서에서 다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공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의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세기말 도시미화운동(Urban Beautification movement)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조남(zoning)에 기초한 토지이용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도시 경관과 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육외광고물 규제시책, 미관규제시책, 조망경관보호시책 및 디자인 심사제도 등의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는 가로환경 개선,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등에 의한 도시 어메니티 증진 사업과 최근 뉴어버니즘 디자인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34) 다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공간에는 ①공원과 정원 ②천연 혹은 준천연 공간 ③녹지화장 ④운동시설 ⑤녹지편의시설 ⑥건물과 결합이 가능한 전원지역 ⑦시민과 커뮤니티 정원과 농장 프로젝트 및 경원 앞뜰 ⑧도시주변의 접근 가능한 전원지역 ⑨시민농장 및 시장 등이 포함된다(김정호, 2007:106).
(1) 도시 어메니티 증진사업 추진사례

① 휘터 블리바드(Whitter Boulevard)
휘터 블리바드 지역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동부에 있는 상업지역의 요지로 이 지역의 라틴아메리카 공동체의 중심지역이다. 이 지역은 1982년에 경기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어메니티 활성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LA County가 새로운 계획을 채택하여 바리오 기획회사(Barrio Planners)가 이 지역의 거리를 매력적인 경관으로 유지하도록 기획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은 특색 있는 아즈텍과 스페인식 테마를 통하여 현수막, 벤치, 쓰레기통, 등을 장식하였고, 거리와 보도의 포장디자인은 멕시코 풍으로 개선하여 이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점 앞을 더 매력있게 꾸미는 상인에 대한 낮은 이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역내 상인들의 효과적 판매 촉진과 특별한 이벤트를 통하여 공동체의 요구를 크게 만족시키면서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리를 지속적으로 개선, 깨끗이 유지하려는 상인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매력있는 가로 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5-1〉특색 있는 가로 정비를 통한 도시 어메니티 창출사례(휘터 블리바드)

![Before After 사진: http://www.scag.ca.gov/livable/]

제5장•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57
이 지역의 어메니티 창출사례의 시사점은 보행자 위주의 계획적 가로설계를 했다는 점과, 상점 앞을 매력있게 꾸미는 상인에 대해 낮은 이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함께 했다는 점이다.

② 올드 파사다나(Old Pasadena)
올드 파사다나시(市)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지역으로 1970년대부터 지역 보존주의자와 민간사업자들이 Old Pasadena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78년 보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지역은 보행전용도로, 거리축제와 예술박람회, 품질경기 등으로 방문객 유도하고자 하였고, 어메니티 활성화 지원차원으로 조명·거리시설물 개선, 매력적인 신호등 교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재정적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③ 다운타운 레드랜즈(Downtown Redlands)
다운타운 레드랜즈시(市)는 1980년대 지역주민, 사업가, 시장 등이 중심가에 사회, 문화, 상업기능이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전략 수립에 고심하며, 1985년 보행로 개선(State street), 가로수길, 벽돌벽, 벤치, 고전적 디자인을 가진 조명과 상업건물 입구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어메니티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도심내 거리 및 공공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지원 등을 하였다.

④ 올드 타운 몬로비아(Old Town Monrovia)
올드 타운 몬로비아시(市)는 사업가와 도시 지도자들이 이 지역에 재투자를 시작하면서 도시 면모가 변화되었다. 어메니티 활성화 지원차원으로 조명, 거리시설물, 신호등 개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도로폭 감소 및 보행로 확대 등을 하였다.
제5장
∙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59

(2) 최근 동향과 뉴어버니즘 디자인 적용 사례


뉴어버니즘은 전통적인 도시이웃들 또는 커뮤니티로부터 온 복합적인 개발, 보행자 중심의 거리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구조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미국의 전통적 도시환경(건물, 구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도심지역 재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최현선외, 2006:20).

<그림 5-2>는 미국 플로리다주 샌순빌시의 페르난디나 비치의 주택단지 사례이다. 원본의 사진은 기존 미국의 주택단지 개발의 모습이라면, 오른편은 두아니(A.Duany)의 뉴어버니즘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모습이다.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주택단지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5-2> 기존 디자인과 뉴어버니즘 디자인 비교 (잭슨빌 사례)

기존의 도시개발방식
자료: 최현선외(2006: 20면)

뉴어버니즘 디자인 개발방식

제5장 •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59
3) 일본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도시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공해문제는 시민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부터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어메니티 타운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정책적 노력은 기울였다. 이후 다양한 법률 및 정책에 내재화되어 발도의 어메니티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케도리다(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체계 구축과 도시의 풍적환경 창출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7) 여기서는 일본의 도시 어메니티 창출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어메니티 플랜 수립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5-1〉 일본의 도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정책 수단 (예시)</th>
</tr>
</thead>
</table>
- 환경정: 어메니티 마스터플랜 작업사업(1987), 차세대도시변비사업(애플리티, 환경공생모델도시 등), 남기고싶은 일본의 음풍경 100선 등 |
| 어메니티 조례 제정 (지자체) | - 도시아무어메니티 행정조례 제정(1993)
- 어메니티위생회, 어메니티어드바이스제도, 가이드라인, 어메니티 담당부서, 어메니티예산 1%시스템 창설, 경관시스템레이션 등 예측시스템 운영
- 어메니티형성기분계획 수립: 계절이나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리 조성 등 |
| 어메니티 타운계획 수립 | - 58개 도시도시 선정(1984-1986년, 전국 도도부현 1개소) 15개가지 타입, 환경차원 타입, 문화타입, 문화방식 타입 |
| 어메니티 증진시책 추진 (중앙정부) | - 황사있는 녹색 어메니티가 풍부한 사이토(彩都) 건설
- *彩都: 오사카 북부에 위치한 계획인구 5만 명 국제문화도시 |
| 어메니티 운동 및 교육 | - 공중도덕심 함양, 건전미 마음 함양, 평생학습 등 |

37) 일본의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공중도덕심 고양, 건전미 마음 함양, 평생학습 등 문화와 가치의식 시설의 어메니티 운동부터, 중앙정부의 어메니티 증진시책 추진, 어메니티 플랜 및 조례 제정, 어메니티 도시 건설, 토지이용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5장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1)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개요

① 어메니티 타운계획 수립 배경과 현황


②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대상도시 유형화

어메니티 타운계획을 수립한 도시를 인구규모, 산업구조, 도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토대로 8개 그룹의 도시모형(대도시, 수도권, 수도권 중핵도시, 지방중추 도시, 지방중핵도시, 지방중규모도시, 지방소도시, 농촌도시)으로 유형화되며, 도시 규모별 특성에 따라 어메니티 창출과제와 실행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메니티 타운으로 선정된 도시 유형은 평가가치 타입, 환경자원 타입, 문화 타입, 접근방식 타입으로 구분하여 계획수립 및 내용 차별화하고 있다.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테마별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가가치 타입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진행에 있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메니티 개념을 파악하여 전문가, 지역 대표자, 시 관계자로 구성된「쾌적한 지역조성 간담회」가 주체가 되어 조사, 계획행정, 실현화 구상 단계로 진행한다.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목표설정에 있어 4가지 도시상(마음이 풍부한 시민의 도시, 살아있는 녹의 도시, 제어 가능한 도시, 배움을 창조하는 도시)을 구상하여 녹환경, 문화 환경, 스포츠 레크레이션, 시가지 정비변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내용은 바다와 친근한 환경 조성(시가도, 도순환 도로), 산과 친근한 환경 조성(산간의 숲 사업), 역사가 숨쉬는 환경 조성(고분공원), 볼과 녹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의 창조(하천의 호안녹지, 하수도 정비, 도시녹화), 매력있는 도시공간의 창조(만남도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나. 환경자원 타입

환경자원 타입의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진행은 1979년부터 시민과 행정의 협력에 의하여 지역에 대한 배려심과 긍지를 심기위한 지역 만들기 시작되었으며「지역인」의식 양성을 위하여 시민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계획의 목표로 「주민이 주역이 되는 마을」 조성, 지역운동에 의한 어메니티 실현, 자연을 살린 환경 조성, 펜촉하고 활약있는 도시공간 조성, 문화유산의 보전, 계승과 향토문화의 창조의 4가지를 세웠다. 계획의 내용은 주로 고양운동에 의한 어메니티의 실현이나 지역의식 고양, 지역운동 추진, 펜촉하고 활약있는 도시공간 조성, 문화유산의 보전, 계승과 향토문화 창조, 역사문화 보전 및 계승하고자 하였다.

d. 문화 타입

문화타입 어메니티 타운 계획의 경우, 1983년 3월에「고시가야시(越谷市) 환경관리계획」을 확정하여 1984년부터 제2차 종합정기계획인 물과 녹과 태양이 가득한 만남과 활력의 문화도시」를 건설하였다. 이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越谷市 어메니티 타운계획」을 시행하였다. 어메니티 타운상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주요주제로 중앙도시축 기본계획, 녹지네트워크 기본계획, 문화도시 형성을 위한「문화도시로의 지침」을 설정하였다. 계획의 진행은 중앙도시축 계획(역전 전신주 지정우사업 통한 보도정비, 종합시민회관 건설, 구획정비사업), 녹의 네트워크 기본계획(녹지축, 보조 녹지축, 커뮤니티 몰, 중앙도시축의 4가지 축과 거점지구로 구성), 문화도시로의 지침(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越谷市 도시디자인 계획」을 확정하고 11지구의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본 계획은 종합체육관, 북부 시민회관, 아동관, 보건센터, 도서관 등의 디자인 결정에 선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라. 접근방식 타입

접근방식 타입의 어메니티 타운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지역조성시책의 계승·확충, 더욱 적극적인 펜촉한 지역 조성을 목표로 하여 물과 녹이 풍부한 도시생활 공간의 창출과 함께 자연환경·역사적 유산의 보전 및 계승, 환경을 배려한 시민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에 의한 시민의사소통과 현장 탐사에 의해 나타난 환경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
역 전체의 환경을 배려하여, 초등학교구 단위의 환경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
차원에서 환경의 골격을 검토하는 등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지역 조성의 방향
성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구성에 있어 쾌적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골격이 되
는 5가지 지역조성에 관한 구상→『역사환경구역 계획, 공공시설구역 계획, 도시
축 계획, 물과 녹의 축 계획, 녹의 곡(曲) 계획』을 제안하였다.

<table>
<thead>
<tr>
<th>어메니티 타운 테마</th>
<th>주요 내용(핵심)</th>
</tr>
</thead>
<tbody>
<tr>
<td>평가기치 태마</td>
<td>음악당, 관광당</td>
</tr>
<tr>
<td></td>
<td>미(美), 깨끗함</td>
</tr>
<tr>
<td></td>
<td>조화, 공존</td>
</tr>
<tr>
<td></td>
<td>평화</td>
</tr>
<tr>
<td>환경자원 태마</td>
<td>물, 녹음, 공원</td>
</tr>
<tr>
<td></td>
<td>자연, 비다, 산, 강</td>
</tr>
<tr>
<td></td>
<td>야조, 동식물</td>
</tr>
<tr>
<td>문화 태마</td>
<td>문화</td>
</tr>
<tr>
<td></td>
<td>역사</td>
</tr>
<tr>
<td>접근방식 태마</td>
<td>시민참여</td>
</tr>
</tbody>
</table>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어메니티 타운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위상, 현상 파악 및 평가, 어메니티 타운
상의 추출, 기본계획 및 부문 계획, 어메니티 타운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 구성된
다. 어메니티 타운계획은 태마별로 자연계, 문화계, 역사계, 기타로 분류하였고,
계획수립에 있어 주민참여방법은 의식조사방법을 활용하였고, 쾌적환경조성협
의회, 지역위원회와 같은 계획수립 조직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도시 어메니티 창출의 주요 사업분야
도시 어메니티 창출의 주요 사업분야는 도시경관 정비, 수변공간의 정비, 녹과
의 접촉공간 형성, 역사적 환경보전, 도시활동의 활성화, 생활공간의 확충 등 근
린주거 주변의 정비와 도시의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의 형태를 보인다.

제 5장 •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63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주요 실현수단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주요 실현수단으로 중점적 시책, 지구별 시책, 거점·회랑조성, 행정·주민주체별 시책, 소프트·하드시책, 테마지구 설정으로 구분하여 규모별, 대상별, 지역 특성별로 구분하여 실행하고자 하였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사업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중점적 시책</td>
<td>중점적 사업 실시를 통해 어메니티 타운계획을 도시 전역으로 보급</td>
</tr>
<tr>
<td>지구별 시책</td>
<td>도시를 몇 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어메니티 창출 플랜을 수립</td>
</tr>
<tr>
<td>거점·회랑 조성</td>
<td>쾌적환경거점이 되는 장소를 정비하여, 이를 연결하여 전역으로 쾌적환경창출</td>
</tr>
<tr>
<td>소프트·하드시책</td>
<td>소프트·하드시책을 구분하여 실현</td>
</tr>
<tr>
<td>테마지구 설정</td>
<td>테마지구 설정: 모델지구를 설정하여 계획을 도시 전역으로 보급</td>
</tr>
<tr>
<td>행정·주민주체별 시책</td>
<td>행정·주민 주체별 시책: 행정과 주민 주체의 사업으로 나누어 계획을 실현</td>
</tr>
</tbody>
</table>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활용 평가와 최근 동향

일본의 어메니티 타운계획이 3년간에 걸쳐 58개 도시에서 수립된 이래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쾌적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정책과 계획 속에 내부 목적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마체르구리(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책과 접목되어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어메니티 계획과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정 수준의 어메니티를 달성하여 어메니티가 정책 내재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메니티 타운계획은 도시의 쾌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질의 다양성과 계층성을 종합화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이를 행정과 주민이 일체가 되어 실현해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대규모 단발적한 개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고유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숙성시킴으로써 도시의 쾌적환경 창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5장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 어메니티 타운 계획(Amenity Town Plan)의 개요
  - 관할부처: 환경청
  - 수립년도: 1984년 ~ 1986년
  - 수립도시: 58개 도시
     (대도시, 수도권구, 수도권중핵도시, 지방중추도시, 지방중핵도시,
      지방중규모도시, 지방소도시, 농촌 도시 등 8개 그룹의 도시 참여)

○ 어메니티 타운 계획 테마
  - 자연계: 녹, 물, 자연, 눈, 산, 풍, 바다, 산림, 사계, 새, 태양 등
  - 역사계: 역사, 성, 사찰, 전통, 문화재
  - 문화계: 마치쓰구리, 문화, 고향, 공원, 도시미 등
  - 기 타: 음백함, 아름다움, 깨끗, 활력, 아름, 우리, 여유, 품격, 환대 등

○ 어메니티 타운 계획 실현수단
  - 중점사업
  - 지구별 사업
  - 거점·회랑 조성사업
  - 행정, 주민주체별 사업
  - 소프트, 하드시책
  - 테마지구의 설정

○ 어메니티 창출 사업
  - 도시경관 정비
  - 수변공간의 정비
  - 녹과의 접촉공간의 형성
  - 역사적 환경보전
  - 도시활동의 활성화
  - 생활행동의 확충 등

○ 계획 수립시 주민참가 형태
  - 주민 양해도, 공정성,
    계획수립체계 구성을 운영 등

제5장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65
(2) 도시 어메니티 지원 법률 및 추진조직

① 일본의 도시 어메니티 지원 법률 및 조례

일본의 어메니티 관련 법, 제도는 ‘어메니티’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 및 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어메니티 개선에 기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조례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메니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메니티 개선(녹지환경 관련조례, 풍치지구에 관한 조례, 도시경관에 관한 조례 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table>
<thead>
<tr>
<th>분야</th>
<th>관련법</th>
<th>지원 및 규제 체도</th>
</tr>
</thead>
<tbody>
<tr>
<td>도시 경관</td>
<td>도시계획법(1968), 옥외광고물법(1949), 건축기준법(1956), 공동구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td>
<td>특정지구, 미관자구, 풍치자구,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제1종・제2종 역사적 풍토보존지구 지정(도시계획법)</td>
</tr>
<tr>
<td>수변 환경</td>
<td>세토나이가이환경보전특별조치법(1973)</td>
<td>지역해변보전지구 지정</td>
</tr>
<tr>
<td>하천법</td>
<td>지역해변모델사업, 리브 리버제도 보조</td>
<td></td>
</tr>
<tr>
<td>하수도법</td>
<td>공공하수도, 유역하수도 도시하수로 설치 및 개축비용 보조, 어메니티 하수도 모델사업, 하수도 수 녹경관 모델사업 보조금 등</td>
<td></td>
</tr>
<tr>
<td>역사・문화 환경</td>
<td>문화재보호법(1950), 옛 도시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1966), 아스카마을에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전 및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td>
<td>역사적 가치를 갖는 건축물 보호, 규제</td>
</tr>
<tr>
<td>기타</td>
<td>자연공원법(1957), 자연환경보전법(1972)</td>
<td>보행자전용도로 정비사업, 신품질도 정비사업, 거주환경 정비사업, 역사적 환경정비가로사업 보조 등</td>
</tr>
</tbody>
</table>

자료: 안양시 어메니티플랜 발췌 재작성(1998)
제5장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67

② 일본의 도시 어메니티 추진조직 및 협의체

도시 어메니티 추진조직 및 협의체는 크게 중앙정부 차원과 예의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NPO 등 협의체 차원에서의 추진형태를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을 살펴보면, 환경청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 심포지움 개최하거나, 어메니티 타운 계획 책정에 관한 조성사업, 어메니티 마스터플랜 책정에 대한 조성사업, 일·불 어메니티회의 개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4) 종합 검토와 시사점

(1) 도시민(생활자)과 이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시설 정비 및 개선

도시 어메니티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미국의 뉴어버니즘, 영국의 어번 빌리지 운동 등은 산업혁명시대 도시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대 도시계획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20세기 초반의 기능중심의 도시계획은 인간중심의 사고나 접근이 미흡하여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주거생활과 도시환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운동은 기능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하여 인간 중심(human scale)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보험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용의시설물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등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리, 건물, 공공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원활화하고,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쉽도록 차로·보험로·자전거로 설계를 고려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과 편리성, 지역 활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설계 추구하고자 하였다.
(2) 도시 어메니티 창출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최근 영국은 정부주도 하에 건축 및 도시정책위원회(CABE)를 설치, 운영하는 등 도시 및 공공 공간(public space)의 디자인, 미관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도시 유형별로 어메니티 타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메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향을 천명하고, 이후에 관련 법률 및 정책과 지자체의 추진시책에 내재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자체별로는 역사도시, 관광도시 등 도시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도시가 지난 독특한 자원을 토대로 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어메니티 창출시책 및 추진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도시 특성에 맞는 시민단체나 정관, 미관단체 또는 협의회 등 운영체계 확립하고,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3) 시민, 자원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추진체계 운영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어메니티 수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각 나라마다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위원회 또는 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City planning comm., Landmark preservation comm., Civic design comm., Zoning comm., Urban design team,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로, 영국의 Amenity society(고건축보호협회, 내셔널 시빅 트러스트(CARTs38), Local amenity trust39) 형태로,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 경관도시연 결협의회, 전국 경관협정추진 자치단체협의회, 전국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협의회, 도시경관협정 추진협의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외국의

38) CARTs(conservation, amenity, and recreation trusts)는 토지나 건물의 보유: 토지나 건물의 보유 및 장기 임대를 통하여 ①자연보호와 환경을 향상시키고, ②대중에게 환경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③전통의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공공적이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혹은 자산조직을 충청하며, 조직 목적에 따라 보전(conservation), 어메니티(amenity), 전통(heritage) 등 세 가지로 조직형태 유형화됨, CARTs는 총 4백만 명에 이르는 회원, 4,500여명의 스태프, 그리고 연간 110백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내 공공재 공급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담당(차미숙, 2001)
경관 및 어메니티 관련 평가는 도시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어메니티를 창출·관리하고 있다.

〈표 5-5〉 외국의 도시 어메니티 운영체계와 주민참여 형태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운영 체계</th>
<th>주민참여형태</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 광범위한 도시정책과제에 대응하여 지자체에 의한 관리 · 도시별 특색에 맞는 운영체계 창출</td>
<td>· Community Planning Board, Design Review Board에 의한 강력한 의결체계 · 주민참여제도 제정, 공익법인, 개발공사, 민간기업 참여, 자율개발 등 주민참여</td>
</tr>
<tr>
<td>영국</td>
<td>· 1250여개의 Amenity society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경관보존 · 개정법, 소득세법, 화상법안에서 민간단체의 권한규정 강화</td>
<td>· Amenity society 가입에 의한 참여 · 역사적 건축 및 경관보존, 해안선의 취득 보호계획에 참여</td>
</tr>
<tr>
<td>일본</td>
<td>· 도시별 경관관리방식: 종합관리형, 개별관리형, 중간형 · 개발형태: 단일기능형, 복합형 · 개발수법: 가이드플랜형, 마스터 아키텍트방식, 협정방식</td>
<td>· 시민단체 조직, 신흥주거 개발, 표창제도 등 시민활동 촉구 ·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시민참가 촉진하는 개발활동</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주요역할 및 목적</th>
<th>예시 조직</th>
</tr>
</thead>
<tbody>
<tr>
<td>Primary conservation CART</td>
<td>· 자연보전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토지 보존자와 자연보존자(nature reserves)를 보호·관리</td>
<td>· Wildlife Trusts, RSPB, Elmley Conservation Trust(켄터셔의 숲지), Otter Trust, Butterfly Conservation(니시), British Herpetological Society(개구리)등</td>
</tr>
<tr>
<td>Primary Amenity and recreation CARTs</td>
<td>· 대중여가 및 편리한 공간을 제공으로 토지인수·관리</td>
<td>· Buchan Countryside Group, Bryson House Better Belfast Project, Magog Trust, Groundwork Trusts, Shetland Amenity Trust, Sheley Park Trust</td>
</tr>
<tr>
<td>Primary heritage CARTs</td>
<td>· 토지나 경관의 전통(heritage)을 위해 토지인수 및 관리</td>
<td>· National Trust, Landmark Trust, Painhill Park Trust, Welsh Water Elan Trust, Oxford Preservation Trust</td>
</tr>
<tr>
<td>Secondary CARTs</td>
<td>· 상이한 목적의 비상업적 조직이나, CARTs와 동일한 원칙으로 토지보유·관리</td>
<td>· 환경을 중시하는 Educational Trusts(Commonwork, Bridge Trust, Camphill Trusts, Findhorn)</td>
</tr>
</tbody>
</table>


제5장 ·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69

39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기업이 함께 출자하여 자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환경운동단체로서, 건축·도시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해 캠페인 및 직접 과일과 프로젝트 추진, local amenity society 창설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기술적 이더베이스 제공, 시빅 트러스트질 전통 및 건축·환경 디자인(환경적) 추진.
2. 국내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사례

여기서 제시된 국내 도시 어메니티 보전 및 창출사례는 종합적이지 않다. 다만, 이 연구의 도시 어메니티 자원유형별로 기존 도시자원을 활용하여 어메니티 자원화하였거나 창출한 시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④

1) 자연자원의 어메니티 창출 사례

(1) 양재천: 자연형 도시하천 복원을 통한 도시경관의 품질적 제고

도시내 자연자원인 하천의 자연형 복원사업을 통해 인근 및 주변도시 거주민들에게 친환경성 및 풍경적 향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양재천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사례이다. 최근 자연형 도시하천복원사업은 도시민에게 경제적 제고 뿐만 아니라 경제성 효과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5-4〉 양재천 정비이후 생태환경의 변화

(2) 강천산: 이용자 중심의 시설 조성으로 어메니티 요소 강화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 공원은 이용자 활동과 편의를 고려한 정비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순천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례이다. 강천산은 1981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전부터 양호한 자연경관으로 지역

④ 일부 사례는 도시 지역을 벗어난 사례(군 단위)도 포함되어 있다.
제5장
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산이었다. 2004년 이후 강천산 정비와 관련하여 이용자와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순창군의 강천산 현장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강천산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림 5-5> 강천산내 산책로와 편의시설

산 입구부터 강천산내 계곡까지 모래를 깔아 이용객들이 밴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정비하여 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연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역 로고가 새겨진 부대시설(휴지통, 조명 등)을 설치하여 순창군의 장류마을 이미지를 부각하여 지역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다.

2) 경관자원의 어메니티 창출 사례

(1) 평촌중앙공원: 거주민 및 이용자 위주의 도시공원 운영 활성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중앙공원은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리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재정비를 통하여 어메니티 수준을 제고하였다. 1994년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신도시내 중심상업 업무지구에 입지한 도시공원으로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목적하였으나, 실제 도시민의 교류활동 증진 및 이용공간으로서 활용이 미흡하고, 타 공원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 규모에 비하여 낮은 활용 및 이용률로 인하여 2000년 주민의 주요 이용행태와 활용을 반영한 공원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었다.41)

41) 안양시, 2000, 「평촌중앙공원 정비안」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국내외 도시 어메니티 창출 사례와 동향 71
이후 공원내 수경시설의 설치와 안양시민축제의 장으로 기획하여 오늘날의 안양시민의 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친수시설(분수대, 공원내 인공하천), 벤치 등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놀이 공간화할 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 공간화로 어메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평촌중앙공원 앞의 2차선 도로를 주말마다 「차없는 도로」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그 공간을 도로를 「버룩시장」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의 활발한 교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 금산군 다락원: 복합시설 공간 조성으로 거주민의 이용 편리성 제고
수영장, 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장애인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 및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성과 활동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례이다.
3) 역사자원의 어메니티 창출사례

(1) 전주시 전통한옥마을: 도시내 한옥의 보전·지원에 의한 어메니티 보전

전주시는 도시내 전통한옥마을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등남동, 교통, 전동 일원을 전통한옥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하거나 한옥 신· 중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2002년)」를 제정하여 전통한옥마을을 4개의 지구(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전통문화지구)로 구분하여 규제 수준과 지원 내역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977년 이후 한옥보존지구·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1999년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양옥 신축증대로 전통한옥마을의 외관이 급격히 훼손되었다. 2003년 이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어 전주시의 지역정체성 자원으로 전통한옥마을의 보전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층수 제한 및 건축물 형태·신축 규제를 하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신·중·개축시 공사비의 2/3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 가능(5년 범위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조로 지구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전통문화지구는 최고 1,000~5,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게 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해수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해수청구 구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옥은 술박물관·명품공예박물관 등을 문화·관광·전통속박시설 등으로 현재 활용 중에 있다. 조세 감면의 혜택을 두어 전통도시한옥의 보전, 정비, 육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전통한옥마을에 대해서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전통한옥마을의 한옥 보전, 정비,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문화자원의 어메니티 창출사례

(1) 파주시 헤이리마을: 정체성 확보와 자율 규제를 통한 어메니티 창출

민간 주도로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하여 헤이리마을의 정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한 사례이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헤이리마을은 민간 예술가들의 주도에 의해 문화예술마을로 조성되어 모든 건물에 문화도시 체계인 건축, 조경, 환경디자인, 사용재료 등의 설계 코드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도시공간의 지역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헤이리마을내 주민들은 협약에 의한 생활가이드에 따라 품격있고 격조있는 헤이리의 총체적인 문화경관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설계지침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의무(비즈니스지구내 모든 건축물은 연면적의 60% 이상 문화관련 시설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 가로등 처리(가로등은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건축신축시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설계), 용적률・건폐율・높이규정, 주차장(폐지로 지정된 구역내 계획, 주차장 진입바닥은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 사용), 조명(건축물에는 일체 내온사인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외부에 원색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을 제어하고 있었다. 조경지침의 경우 헤이리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관된 문화경관 조성 목적으로, 상경수(매나무, 가족기념일 및 문화경관 조성의 날에 1가구
당 1그룹 이상 식수의무), 향나무 및 늘푸른 나무 배제, 해리리 상정재, 식재방법, 잔디역제, 인접 녹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파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쳐 해리리 자제심의기구 운용(본 규정에 관해서는 경기도 및 파주시 조례보다 우선 적용), 건축환경위원회는 건축물의 형태, 서체, 색채 및 설치 위치 심의, 현수막 설치방법 규정, 점멸등 및 내온사인 설치금지, 광고물 수량제한 등을 하고 있다.

(그림 5-9) 파주 해리내 건축 및 조경 설계지침에 따라 조성된 모습

사진: http://www.cerazine.co.kr

(2) 경남 통영시: 어메니티 추진사업 및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

통영 강구안이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 동네 '동피랑'을 관광명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동피랑을 '통영의 몽마르트'로 발전시키 문화예술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제고한 사례이다. 통영의 망루 동피랑에 대하여 동피랑 특유의 골목문화를 살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하고 있다. 2007년 행정자치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선정되어 벽화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통영시와 통영RCE가, 시민사회에서는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학계에서는 RCE연구학교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민관의 연계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통영시는 도시계획부서내 도시디자인계를 신설·운영하며, 도시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관리(보도, 맨홀 등), 시범가로 디자인,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각종 도시경관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5-10) 통영시 시범가로내 설치된 타일과 동피랑내 가로조성 모습

중앙로의 보도 아트타일 동피랑 마을내 골목길 (동쪽에 있는 비탈)

5) 생활자원의 어메니티 창출사례

(1) 석수시장 프로젝트: 생활공간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이 사례는 재래시장이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하여 도시공간의 활성화를 유도한 사례이다.

안양시 석수시장은 1979년 채소도매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도매인들의 입주정책 실패로 시장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한때 소외된 지역이었다. 공간적 측면에서의 석수시장은 주거지 내 한복판에 입지한 장방형의 광장시장 형태로 도시 미학적 특성을 간직하여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2002년부터 민간주도 공공미술의 메카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생활속 예술'을 표방하고 2002년 보충대 리공간 스톤앤워터(supplement space stone & water)를 만들어, 생활 혹은 일상과 멀어진 예술을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2005년부터 석수시장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재래시장내 비어있는 점포를 임대(안양시에서 임대료 일부지원)하여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외 예술가에게 제공하여 3개월간 설치예술 활동을 수행석수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지역성, 일상성, 공공성의 결합'이라
는 아젠다를 반영해 예술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공간의 장소마케팅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42)

<그림 5-11> 석수시장 프로젝트 진행 모습

<table>
<thead>
<tr>
<th>시장내 워크숍 공간</th>
<th>시장내 워크숍 공간: 오픈스튜디오 등</th>
</tr>
</thead>
<tbody>
<tr>
<td>생활공간에 전시된 작가들의 작품</td>
<td></td>
</tr>
</tbody>
</table>

이 장에서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을 위한 전략과 기본방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의 기본원칙은 생활자의 정주성과 이용자의 활동성 극대화, 도시 정체성 및 문화·심미성 제고, 공간적 연계와 통합성 제고, 자율적·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1. 도시 어메니티 창출 전략의 기본 원칙

1) 도시민의 이용성·만족감 증진을 통한 「정주성」제고

도시 어메니티는 “정주 어메니티”로서 공간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내 거주민이나 이용자의 편리성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을 고안하거나 경관 조성과는 다른 건물과 건물 간에 주거가 반영된 공원이 아니며, 도시민들의 건강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용이한 접근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2) 도시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도시 정체성과 문화・심미성」 제고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을 활용한 어메니티 창출을 통하여 도시 공간의 정체성(identity)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각 도시가 갖는 문화적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별로 중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문화・심미성이 강화된 도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도시의 가로와 건축물 등 경관적인 측면의 심미성과 만족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6-1〉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 연계전략

3) 도시내 어메니티 자원의 「공간적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

도시의 어메니티 자원 자체에 대한 발굴 및 창출과 함께 이러한 자원들은 연계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시내 개별건축물 자체에 대한 미관 형성과 함께 건물군이 모여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경관적 제어를 하거나,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간의 연계를 통한 양호한 가로경관이나 생태회랑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어메니티 수준
제6장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전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81


〈표 6-1〉 국내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사례와 중점 활용전략

<table>
<thead>
<tr>
<th>사례</th>
<th>자원 유형</th>
<th>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전략 및 내용</th>
<th>중점 활용전략</th>
<th>어메니티 추진체계</th>
</tr>
</thead>
<tbody>
<tr>
<td>평촌중앙공원 (경기도 안양)</td>
<td>경관 자원</td>
<td>도시민/이용자의 활동성(/activity) 증진을 위한 시설의 연계 배치로 도시공원의 어메니티 제고 사례</td>
<td>도시정주성/연계성 제고</td>
<td>지자체 주도</td>
</tr>
<tr>
<td>석수시장 (경기도 안양)</td>
<td>사회 자원</td>
<td>일상공간에 문화·예술활동의 결합을 통해 재래시장 공간의 정체성 및 어메니티 창출 사례</td>
<td>도시정책성/문화·심미성 제고</td>
<td>민간예술단체 (지자체 지원)</td>
</tr>
<tr>
<td>헤이리 마을 (경기도 파주)</td>
<td>문화 자원</td>
<td>거주민의 자율협력을 통한 문화예술마을 조성 사례</td>
<td>문화·심미성 제고</td>
<td>주민협약 (자율규제)</td>
</tr>
<tr>
<td>전통한옥마을 (전북 전주)</td>
<td>역사 자원</td>
<td>전통한옥마을 보전, 규제를 통해 전통도시 정체성 확보</td>
<td>도시정책성 제고</td>
<td>지자체 주도</td>
</tr>
<tr>
<td>아트타일 가로조성시책 (경남 통영)</td>
<td>문화 자원</td>
<td>도시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 도입으로 어메니티 제고사례</td>
<td>정체성/문화·심미성 제고</td>
<td>지자체 주도 (전담조직: 도시디자인)</td>
</tr>
<tr>
<td>양재천(서울), 오산천 (경기 오산)</td>
<td>자연 자원</td>
<td>도시하천의 자연형 복원사업으로 도심천수 공간 확보 및 친환경성 강화 사례</td>
<td>도시정주성 제고</td>
<td>정부 주도</td>
</tr>
</tbody>
</table>

43) CABE(건축 및 도시관련 정책위치)는 도시계획을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예술’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갖는 공학적 기술적 차원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이해한다. 즉 과거의 도시계획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쪽에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도시내 물리적 시설들과 사람들을 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가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김정후, 2007: 107면).
4) 도시 어메니티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참여와 추진의 「자율성 · 협력성」 제고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질적 수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경관지침 등을 운용하여 도시별로 어메니티 보전 · 창출을 위한 자율 규제(self-regulation)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2. 도시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도시 정주성」 제고와 정책 과제

도시 거주민의 이용성 및 만족도 증진을 통한 정주성 제고와 이용자(방문객)의 편의성 등 제고를 통해 도시 어메니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도시민의 삶의 질과 정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내 거주민이나 이용자의 편리성과 활동성(activities)을 제고시킬 수 있는 디자인 및 도시설계를 고안하거나 경관 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도시내 주변 자연환경에 이용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건강 및 안전 · 생태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공간의 조성에 있어도 건물과 건물과 간에 방치된 공원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건강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용이한 접근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2) 「도시 정체성 및 문화 · 심미성」 제고와 정책과제

① 도시 경관 및 어메니티 가이드라인 설정

영국의 건축 및 도시정책위원회(CABE)는 ‘디자인이 잘 된 공공공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지속가능성, 특성과 차별, 명확성과 경계, 연계성과 접근성,
가독성, 융통성과 안전성, 사회적 통합성, 생태적 다양성을 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예술’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갖는 공학적, 기술적 차원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도시계획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도시내 물리적 시설과 사람들을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가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김정후, 2007: 107쪽)

도시 어메니티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미관과 경관, 조경, 공공디자인44) 등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도시 공공디자인 심사제도 도입 및 모니터링 강화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거주민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경면적 확보비율, 녹지비율, 오픈스페이스 의무확보 비율 등 토지이용규제 기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하여 도시 어메니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주택 단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적 특성과 개성을 살린 차별적인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다각적인 협의를 통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 공공디자인 심사제도, 도시 어메니티 어드바이저·심사 및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공간적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와 정책 과제

①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관련 기존 법체계 정비

현행 법률과 조례 등에서 도시 어메니티 창출과 활성화와 관련한 항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법

44)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장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장·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전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83
등에서 도시 어메니티를 제고하기 위한 항목이 내재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용되거나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도시 어메니티관련 항목을 체계화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도록 현행 지자체 조례가 실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위 법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 어메니티 플랜과 현행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과의 관계와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 어메니티의 계획적 관리 및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어메니티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현행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환경계획 등과의 위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계획내 어메니티 보전 및 창출방안이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별도로 도시 어메니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도시 어메니티 계획수립과 현행 계획체계와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어메니티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림 6-2> 기존 도시계획과 어메니티 계획체계 정비
장기적으로는 현행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도태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국토 어메니티계획, 도시 어메니티 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최근 학계에서 제안되는 환경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의 어메니티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 어메니티 기본계획과 도시 어메니티 관리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유사한 대안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3월 중합적인 국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종합개발법을 개정하여 「新국토형성계획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토계획을 전면 개혁한 「국토어메니티형성계획」을 2007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②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운영

도시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창출을 위하여 전담조직 설치 및 공공-민간의 협력적인 추진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내 건축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운용 및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전담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자체 내에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5년 문화관광부에 공간문화과가 신설되었으며,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정비하고 있다. 안양시, 통영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시디자인 및 어메니티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정비하고 있다.

③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촉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선 현재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어메니티 증진시책 예산의 연계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어메니티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의 일부 적립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금 및 현행 어메니티 증진 시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원을 [(가정)도시 어메니티 촉진기금]으로 점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5) 통영시는 도시계획과 내 도시디자인팀(계)을 설립하여 도시내 아가봤, 옥외광고물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4) 지속적 참여와 추진의 ‘자율성·협력성’ 제고와 정책 과제

① 도시 아메니티 자원 창출·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 유도
도시 아메니티 자원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 및 건축협정, 마을협약 등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유도하여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과주시 헤이리마을은 건축물, 간판, 조경 등에 대하여 주민협약(생활가이드)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밖에 좋은 아파트단지, 공공디자인 개념의 적용 등 도시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하거나 용적율, 충수량 환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② 도시 어메니티 창출의 지속성·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강화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거주민의 체감도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정단계 중 하나인 위칭조사(watching)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두어 이를 계기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시 어메니티도시별로 어메니티 자원 랜드(Amenity map)를 마련하거나, 도시 어메니티 핵심자원 8경, 아름다운 길 등 조성을 위하여 도시내 어메니티 자원 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거나 도시 어메니티 투어, 도시 어메니티 자원해설사 제도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어메니티 자원 창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한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디지털콘텐츠화 및 어메니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홍보와 확산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주민의 도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체감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46) 영국의 Spaceshaper(공간을 만드는 사람)는 시민들이 공공공간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모음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김정호, 2007: 113쪽).

사례

미국 보스턴의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Boston)

보스턴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프리덤 트레일은 관광객들이 보스턴을 탐험하면서 도시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짜놓은 코스이다. 코스코스는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에서 시작되어 벙커힐 기념탑(Bunker Hill Monument)에서 끝난다.

프리덤 트레일은 주요한 유적지를 아울러놓은 풍경의 라인과 높이 대각선인 관광 안내판 및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코스 중간 중간에 소규모 휴게공원과 공중화장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또한 코스마다 기념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시설과 음식점도 배치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수입을 가져다준다.

프리덤 트레일은 보스턴 헤럴드 트래블러의 기자인 윌리엄 스크필드(William Schofield)가 1951년 신문의 칼럼에서 시작한 것이다. Schofield의 첫 번째 목적은 보스턴의 유적지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7년 후 이것은 보스턴의 관광산업을 강화시키는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갔다. 또한 연간 4백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16개의 유적지 안내를 통하여 보스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한 것이다.

프리덤 트레일은 미국독립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16개의 유적지를 넘어서 일어나는 것에다, 프리덤 트레일의 도보관광이 교육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트레일은 보스턴의 레스토랑 지구 및 식사 공간들도 지나가는데, 패뉴일 홀(Faneuil Hall)에서 쇼핑을 하거나 노스엔드(North End)의 많은 카페들 중 한 곳에서 카푸치노를 마시기 위해 쉬었다 갈 수도 있어, 교육과 흥미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프리덤 트레일 지도
프리덤 트레일 마크
프리덤 트레일 코스를 표시한 길
전통복장을 입고 설명하는 가이드
프리덤 트레일 코스에 있는 도시내 근대건축물

내용: http://www.kdri.re.kr

도시 이에나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영국 건축 및 도시관련 정책위원회(CABE)의 공공공간(public space) 관리정책의 방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48) 또한, 어메니티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 비영리 조직 중심의 추진체계 간, 그리고 중앙-지방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관련 조직간 협력적인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49)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도시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구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어메니티 자원 조사·발굴시, 어메니티 개념 자체의 모호성 탈피를 위해 도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의 구축 및 유형별 자원을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소리, 공기, 기후 등의 무형적인 자산과 스카이라인, 가로 등 관계성 자산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 자원을 주로 도시민(생활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하여 방문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시 어메니티 자원조사·발굴에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 어메니티 창출 전략에 관련한 초기 연구로서, 정책 과제별 세부내용 검토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방향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 어메니티 자산조사·발굴에 있어서 무형적 자산 및 정책 자원을 연계한 선역·면적 자원 등 관계성 자산의 포함, 거주민·방문객의 입장의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 조사·발굴, 그리고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별 추진사항 등을 다룬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48) 공공공간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불임없는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둘째, 중성적인 공간 지양, 셋째, 도시 거주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공공공간 만들기이다.
49) 전국 시장 및 구청장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2007), 도시자원의 어메니티화 추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상업적 가치향상(44.9%), 적립지불보조금제 등 어메니티 가치증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34.7%), 협약·네트워킹 등 어메니티 자원보전을 위한 집합적 행동(10.2%), 어메니티 자원보전을 위한 규제 활용(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참고 문헌

건설교통부. 2001. 「도시쾌적성 확보를 위한 어메니티 플랜 수립방안 연구」.
권용우, 이재준, 김세용. 2001. 「도시쾌적성을 위한 어메니티 플랜 지표의 개발」.
지리학회지 한국지리교육학회 제35권 제4호.
김세용 외. 2003. 「어메니티플랜의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통권171호).
김정후. 2007. 「케이브(CABE)와 21세기 영국 공공 공간 정책의 시사점」. 「월간국토」 11월호 국토연구원.
김현수.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와 추진체계 연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과학」세미나.
나시무라 유키오, 마치나미연구회 편저 조용준등 편역. 2006. 「일본의 경관계획」. 태림문화사.
박재길.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 제이프러스 에드.
부산광역시. 1994. 「부산광역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
부천시. 1998. 「부천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연구」.
성남시. 1998. 「성남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연구」.
수원시, 1998. 「수원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연구」.
안산시, 1998. 「안산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연구」.
안양시, 1998. 「안양시 어메니티 플랜 수립연구」.
안양시, 2000. 「평촌중앙공원정비안」.
양도식, 2006. 「매튜 카노나: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이동근, 성현찬, 1999. 「광기능 6개 도시의 어메니티 평가에 관한 기초적 연구」.
양도식, 2006. 「매튜 카노나: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이동근, 성현찬, 1999. 「광기능 6개 도시의 어메니티 평가에 관한 기초적 연구」.
양도식, 2006. 「매튜 카노나: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진영환. 2006. □□ 살고싶은 국토 만들기의 개념과 의의: 도시 만들기의 중심으로”.

“살고싶은 삶터 함께 만들기”, 새국토연구협의회. 서울: R&C.

차미숙. 2001. □□ 영국의 환경보전기구: CARTs의 유형과 활동을 중심으로”.

“일간국토”, 8월호 (통권233호). 국토연구원.

최현선 외. 2006. 스마트 성장과 비전수립과정: 플로리다주 재건발시 사례. 국토연구원.

통계청. 2007. 이메일 설문조사표.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자료집.

西村幸夫(니시무라 유끼오). □□ 어메니티와 지역디자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디자인

생존과 어메니티의 공공공간”, “새로운 자치체의 설계” 3, 有斐閣.

Janet C.Dwyer, Ian D.Hodge.1996. “Countryside in Trust: Land
Management by Conservation, Recreation, and Amenity Organisations”, John
Wiley and Sons;England; pp.59.


http://www.anyang.go.kr
http://www.kdri.re.kr
http://www.laib.go.kr
http://www.openthedoor.co.kr
http://www.scag.ca.gov/livable
http://www.stonenwater.org

참고 문헌 93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안양시 도시어메니티 자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지역발전과 관련한 제반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안양시를 사례로 하여 도시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자원들은 안양시정백서(2006) 등 문헌·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추출한 자원들입니다. 해당 자원에 대하여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에 체크해주시는 바입니다.

도시어메니티 자원은 도시내 ‘공간의 질’과 거주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해당 도시의 종합적인 폐적성을 제고시키는 자원을 총칭함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안양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문의처: 김선희 연구위원, 차미숙 연구위원, 윤윤정 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우편번호 431-712)
전 화: 031-380-0263, 0190, 0280
팩 스: 031-380-0482 e-mail: yjun@krihs.re.kr

1. 아래 표에 열거한 자원 중에서, 귀하께서 "어메니티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원에만 √ 표시를 해주십시오.

2. 위의 문항에 √ 표시한 자원에 대해서 해당 자원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위의 문항에 √표시한 자원에 대해서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 다면?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 *2가지만 체크해주세요</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학의천</td>
<td></td>
<td></td>
<td></td>
</tr>
<tr>
<td>안양천</td>
<td></td>
<td></td>
<td></td>
</tr>
<tr>
<td>수리산</td>
<td></td>
<td></td>
<td></td>
</tr>
<tr>
<td>관악산</td>
<td></td>
<td></td>
<td></td>
</tr>
<tr>
<td>청계산</td>
<td></td>
<td></td>
<td></td>
</tr>
<tr>
<td>명학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앙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자유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학운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평화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희망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산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수동 철로변 녹지</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수동 하천변 녹지</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산동 도로변 녹지</td>
<td></td>
<td></td>
<td></td>
</tr>
<tr>
<td>호계동 도로변 녹지</td>
<td></td>
<td></td>
<td></td>
</tr>
<tr>
<td>관양동 도로변 녲지</td>
<td></td>
<td></td>
<td></td>
</tr>
<tr>
<td>평촌동 도로변 녲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96 도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수리산 산림욕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안양유원지</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초사지 당근자주</td>
<td></td>
<td></td>
<td></td>
</tr>
<tr>
<td>산림</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수동 마애종</td>
<td></td>
<td></td>
<td></td>
</tr>
<tr>
<td>안양사 귀부</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마애상본불</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3층석탑</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사적비</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초사지 3층석탑</td>
<td></td>
<td></td>
<td></td>
</tr>
<tr>
<td>백서신도비</td>
<td></td>
<td></td>
<td></td>
</tr>
<tr>
<td>안양사 부도</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삼귀자</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삼귀자</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삼귀자</td>
<td></td>
<td></td>
<td></td>
</tr>
<tr>
<td>생활장(송복남)</td>
<td></td>
<td></td>
<td></td>
</tr>
<tr>
<td>북매우기(임선빈)</td>
<td></td>
<td></td>
<td></td>
</tr>
<tr>
<td>평양감무(이봉례)</td>
<td></td>
<td></td>
<td></td>
</tr>
<tr>
<td>명자유기(이명균)</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산동 도요지</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수동 석실분</td>
<td></td>
<td></td>
<td></td>
</tr>
<tr>
<td>평촌 지석묘</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수동 석실분</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산동 석실분</td>
<td></td>
<td></td>
<td></td>
</tr>
<tr>
<td>최경환 성지</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남녀근석</td>
<td></td>
<td></td>
<td></td>
</tr>
<tr>
<td>삼막사 명부전</td>
<td></td>
<td></td>
<td></td>
</tr>
<tr>
<td>구 서이면사무소</td>
<td></td>
<td></td>
<td></td>
</tr>
<tr>
<td>자원명</td>
<td>1. 어메니티 자원 여부</td>
<td>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2가지만 체크해주세요</td>
<td>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휴양·생태성</td>
<td>문화·산림지</td>
<td>지역·역사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td>
<td>( )</td>
<td>( )</td>
</tr>
<tr>
<td>45 문예회관</td>
<td></td>
<td></td>
<td></td>
</tr>
<tr>
<td>46 평촌아트홀</td>
<td></td>
<td></td>
<td></td>
</tr>
<tr>
<td>47 예절교육관</td>
<td></td>
<td></td>
<td></td>
</tr>
<tr>
<td>48 동안문화관</td>
<td></td>
<td></td>
<td></td>
</tr>
<tr>
<td>49 안양서울아트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50 안양시립도서관</td>
<td></td>
<td></td>
<td></td>
</tr>
<tr>
<td>51 아울문화관</td>
<td></td>
<td></td>
<td></td>
</tr>
<tr>
<td>52 중앙의료원</td>
<td></td>
<td></td>
<td></td>
</tr>
<tr>
<td>53 안양하수처리장</td>
<td></td>
<td></td>
<td></td>
</tr>
<tr>
<td>54 안양시장</td>
<td></td>
<td></td>
<td></td>
</tr>
<tr>
<td>55 동안구청</td>
<td></td>
<td></td>
<td></td>
</tr>
<tr>
<td>56 안양구청</td>
<td></td>
<td></td>
<td></td>
</tr>
<tr>
<td>57 평촌 시립도서관</td>
<td></td>
<td></td>
<td></td>
</tr>
<tr>
<td>58 안양대학교</td>
<td></td>
<td></td>
<td></td>
</tr>
<tr>
<td>59 안양과학대학교</td>
<td></td>
<td></td>
<td></td>
</tr>
<tr>
<td>60 성결대학교</td>
<td></td>
<td></td>
<td></td>
</tr>
<tr>
<td>61 대림대학교</td>
<td></td>
<td></td>
<td></td>
</tr>
<tr>
<td>62 중림운동장</td>
<td></td>
<td></td>
<td></td>
</tr>
<tr>
<td>63 체육관</td>
<td></td>
<td></td>
<td></td>
</tr>
<tr>
<td>64 삼남 아와수영장</td>
<td></td>
<td></td>
<td></td>
</tr>
<tr>
<td>65 삼남 방향장</td>
<td></td>
<td></td>
<td></td>
</tr>
<tr>
<td>66 공도향</td>
<td></td>
<td></td>
<td></td>
</tr>
<tr>
<td>67 양궁장</td>
<td></td>
<td></td>
<td></td>
</tr>
<tr>
<td>68 안양천천물관리단장</td>
<td></td>
<td></td>
<td></td>
</tr>
<tr>
<td>69 백석산 방해함 일몰</td>
<td></td>
<td></td>
<td></td>
</tr>
<tr>
<td>70 병목안삼림욕장 석탑</td>
<td></td>
<td></td>
<td></td>
</tr>
<tr>
<td>자원명</td>
<td>1. 어메니티 지원 여부</td>
<td>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d>
<td>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환경·생명</td>
<td>문화·상품</td>
</tr>
<tr>
<td>71</td>
<td>수촌 마을제</td>
<td></td>
<td></td>
</tr>
<tr>
<td>72</td>
<td>느티나무제</td>
<td></td>
<td></td>
</tr>
<tr>
<td>73</td>
<td>방산신제</td>
<td></td>
<td></td>
</tr>
<tr>
<td>74</td>
<td>석면마을 읍무물제</td>
<td></td>
<td></td>
</tr>
<tr>
<td>75</td>
<td>석수시장</td>
<td></td>
<td></td>
</tr>
<tr>
<td>76</td>
<td>박달시장</td>
<td></td>
<td></td>
</tr>
<tr>
<td>77</td>
<td>남부시장</td>
<td></td>
<td></td>
</tr>
<tr>
<td>78</td>
<td>중앙시장</td>
<td></td>
<td></td>
</tr>
<tr>
<td>79</td>
<td>중앙시장 순대굴목</td>
<td></td>
<td></td>
</tr>
<tr>
<td>80</td>
<td>호계중합시장</td>
<td></td>
<td></td>
</tr>
<tr>
<td>81</td>
<td>비산시장</td>
<td></td>
<td></td>
</tr>
<tr>
<td>82</td>
<td>백산셔핑</td>
<td></td>
<td></td>
</tr>
<tr>
<td>83</td>
<td>역전지하상가</td>
<td></td>
<td></td>
</tr>
<tr>
<td>84</td>
<td>성북제100세아재림</td>
<td></td>
<td></td>
</tr>
<tr>
<td>85</td>
<td>리스클럽</td>
<td></td>
<td></td>
</tr>
<tr>
<td>86</td>
<td>이마트</td>
<td></td>
<td></td>
</tr>
<tr>
<td>87</td>
<td>농수산물 도매시장</td>
<td></td>
<td></td>
</tr>
<tr>
<td>88</td>
<td>안양 일반가</td>
<td></td>
<td></td>
</tr>
<tr>
<td>89</td>
<td>포 도</td>
<td></td>
<td></td>
</tr>
<tr>
<td>90</td>
<td>목비주</td>
<td></td>
<td></td>
</tr>
<tr>
<td>91</td>
<td>안양문화예술재</td>
<td></td>
<td></td>
</tr>
<tr>
<td>92</td>
<td>안양문화재</td>
<td></td>
<td></td>
</tr>
<tr>
<td>93</td>
<td>거리문화재</td>
<td></td>
<td></td>
</tr>
<tr>
<td>94</td>
<td>어린이날 근친제</td>
<td></td>
<td></td>
</tr>
<tr>
<td>95</td>
<td>단오제</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록 99
1. 어메니티 자원 여부

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 2가지만 체크해주세요.
- 환경/생물
- 문화/상정
- 역사/역사성
- 접근성/편리성

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
- 매우 높다 (⑤)
- 높다 (④)
- 보통이다 (③)
- 낮다 (②)
- 매우 낮다 (①)

*위에서 열거한 자원 이외에, 귀하께서 안양시 어메니티 자원으로 생각하시는 자원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5. 귀하의 연령은? 만 ___ 세

6. 귀하의 안양시 거주기간은? _____ 년, ______ 개월
   ■ 현재 거주지는? ______ 시 ______ 구 ______ 동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군산시 도시어메니티 자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지역발전과 관련한 제반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원에서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군산시를 사례로 하여 도시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자원들은 군산시 문헌자료, 인터넷 검색 및 군산시 실무자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1차적으로 추출한 자원들입니다. 해당 자원에 대하여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어메니티 지침은 도시내 ‘공간의 질’과 거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해당 도시의 종합적인 쾌적성을 제고시키는 자원을 총칭함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군산시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국토연구원장 최병선

문의처: 김선희 연구위원, 차미숙 연구위원, 윤윤정 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우편번호 431-712)
전화: 031-380-0263, 0190, 0280
팩스: 031-380-0482 e-mail: vijyun@krihs.re.kr
군산시 자원에 대한 어메니티인지 여부와 속성, 어메니티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열거한 81개 자원들은 군산시 문헌・자료, 인터넷 검색 및 군산시 실무자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추출하였습니다.

1. 아래 표에 열거한 자원 중에서, 귀하께서 "어메니티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원에만 √ 표시해 주십시오.

2. (문항 1에 √ 표시한 자원에 대해서) 해당 자원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케 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문항 1에 √ 표시한 자원에 대해서)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table>
<thead>
<tr>
<th>자원 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1. 내항</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2. 망주폭포</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3. 선유도 해수욕장</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4. 오성산</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5. 고군산군도</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6. 월영공원</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7. 금강시민공원</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8. 은파유원지</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9. 금강호유원지</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0. 선유낙조</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1. 월영단풍</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2. 현사리</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3. 무산십이봉</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4. 창자어화</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5. 현사복</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6. 삼도귀범</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r>
<td>17. 발산리 석등</td>
<td></td>
<td>동화・생태봉</td>
<td>높다 3 보통 2 낮다 1</td>
</tr>
</tbody>
</table>

(계속)
### 자원명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발산리 5층석탑</td>
<td></td>
<td></td>
<td></td>
</tr>
<tr>
<td>동국사 대웅전</td>
<td></td>
<td></td>
<td></td>
</tr>
<tr>
<td>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산 원피역사</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산 해양공</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원지 제방 (제1수원지제방)</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주사 대웅전</td>
<td></td>
<td></td>
<td></td>
</tr>
<tr>
<td>동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td>
<td></td>
<td></td>
<td></td>
</tr>
<tr>
<td>문거사 석가여래삼존불상</td>
<td></td>
<td></td>
<td></td>
</tr>
<tr>
<td>탑동 3층석탑</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영춘 가옥</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시미타니금고</td>
<td></td>
<td></td>
<td></td>
</tr>
<tr>
<td>불지사 대웅전</td>
<td></td>
<td></td>
<td></td>
</tr>
<tr>
<td>한소리(최한수)</td>
<td></td>
<td></td>
<td></td>
</tr>
<tr>
<td>단소의기장(고아란)</td>
<td></td>
<td></td>
<td></td>
</tr>
<tr>
<td>양수라(최갑산)</td>
<td></td>
<td></td>
<td></td>
</tr>
<tr>
<td>최호창군유지</td>
<td></td>
<td></td>
<td></td>
</tr>
<tr>
<td>(구)군산세관본관</td>
<td></td>
<td></td>
<td></td>
</tr>
<tr>
<td>체원병 가옥</td>
<td></td>
<td></td>
<td></td>
</tr>
<tr>
<td>임피향교 대성전</td>
<td></td>
<td></td>
<td></td>
</tr>
<tr>
<td>목구향교 대성전</td>
<td></td>
<td></td>
<td></td>
</tr>
<tr>
<td>자천대</td>
<td></td>
<td></td>
<td></td>
</tr>
<tr>
<td>발산리 6각부도</td>
<td></td>
<td></td>
<td></td>
</tr>
<tr>
<td>명의서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인보검</td>
<td></td>
<td></td>
<td></td>
</tr>
<tr>
<td>화봉재</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속)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혜강재씨</td>
<td>문화-상업성</td>
<td>세부 항목 (필수)</td>
<td>매우 높다</td>
</tr>
<tr>
<td>일은참공</td>
<td>문화-상업성</td>
<td></td>
<td>보통이다</td>
</tr>
<tr>
<td>목산서원</td>
<td>문화-상업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진주관서 중원제각</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해만식 문학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산업단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군산대한미술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군산시민문화회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청소년 수련원</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철새 조망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진포시비공원</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문익사</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첨방산 봉수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구)조선은행</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오성인의 묘</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구)장기십팔은행</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전남경</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완창서원</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주모재</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방산리 금고</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국립군산대학교</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월명체육관</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게이트볼장</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금강하구둑</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r>
<td>오성문화재단</td>
<td>환경-생태성</td>
<td></td>
<td>매우 낮다</td>
</tr>
</tbody>
</table>

(계속)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td>
<td>중요성 · 생태성</td>
<td>품질 · 밀집성</td>
<td>접근성 (편리성)</td>
</tr>
<tr>
<td>매우 높다</td>
<td>높다</td>
<td>보통</td>
<td>매우 낮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산물 종합센터</td>
<td></td>
<td></td>
<td></td>
</tr>
<tr>
<td>활어회</td>
<td></td>
<td></td>
<td></td>
</tr>
<tr>
<td>꽃개장 백반</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산청정쌀</td>
<td></td>
<td></td>
<td></td>
</tr>
<tr>
<td>온고집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울여장아찌</td>
<td></td>
<td></td>
<td></td>
</tr>
<tr>
<td>두산주류</td>
<td></td>
<td></td>
<td></td>
</tr>
<tr>
<td>벼룩 예술회</td>
<td></td>
<td></td>
<td></td>
</tr>
<tr>
<td>천포 예술회</td>
<td></td>
<td></td>
<td></td>
</tr>
<tr>
<td>세안금미라돈대회</td>
<td></td>
<td></td>
<td></td>
</tr>
<tr>
<td>해산물축제</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산세계철새축제</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          )</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          )</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          )</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에서 열거한 자원 이외에, 귀하께서 군산시 어메니티 자원으로 생각하는 자원이 있으면 제시해주세요.

◆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5. 귀하의 연령은? 만 세

6. 귀하의 군산시 거주기간은? 년 개월
   ■ 현재 거주지는? 시 동·읍·면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105
제 2 편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전략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 및 특징
1.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
   1)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
   2) 자원으로서 농산촌 어메니티의 특질
2. 농산촌 활성화 수단으로서 어메니티의 역할
   1) 어메니티에 기반한 농산촌 지역개발의 의의
   2) 농산촌 주민들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 증대

제3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와 유형화
1.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1)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 본 연구의 어메니티 자원 분류
2. 유형별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포 현황
   1) 유형별 어메니티 자원 개요
제4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창출 사례 ................................. 138

1. 화천군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사례 ........................................ 138
   1) 간동면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개요 .................................. 138
   2)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발굴 노력 .............................. 141

2. 진안군 백운면의 어메니티 자원 사례 ........................................ 143
   1) 진안군 백운면 어메니티 자원 개발 사례 개요 .......................... 143
   2)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아우르는 에코뮤지엄 구상 .................. 146
   3) 어메니티 발굴 주체를 양성하는 지방 거버넌스 실험 .................. 150

3. 사례의 종합검토 및 시사점 .................................................. 153
   1)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개성이 가미된 어메니티 개발 ....................... 153
   2)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154
   3)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발굴 주체의 역할 ............................ 156

제5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관련 정책지원 실태와 문제점 .......... 158

1.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지원 현황 ....................................... 158
   1) 농림부의 추진시책과 지원 현황 ........................................ 158
   2) 농촌진흥청의 추진시책과 지원 현황 ................................... 160
   3) 근간 도입될 예정인 사업 ................................................. 162

2. 현행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의 문제점 ................................ 170
   1) 관련 정책 수단의 제한 .................................................... 170
   2) 지자체의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관련 계획 미비 ................................ 173
   3)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 과정에서 주민의 역할 미흡 .................. 176

제6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 177

1.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의 전제 ................................... 177
   1)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의 목표 ........................................ 177
제7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1)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농산촌 주민들의 인식 현황 및 특성
   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사례
   3)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 문헌

부록
표 차례

<표 2-1> 농산촌의 생활과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 129
<표 2-2> 마을 발전을 위한 과제(응답자 유형간 비교) ........................................... 130
<표 2-3> 마을 가꾸기 사업 참여 의향(응답자 유형간 비교) ................................. 131

<표 3-1>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 사례 예시 .................................................. 134
<표 3-2> 유형별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목록(주민조사 결과) ......................... 137
<표 3-3> 농산촌 마을 유형별 어메니티 자원 비교 ............................................. 138
<표 3-4> 응답 빈도 높은 어메니티 자원 사례(상위 20개) ............................. 139
<표 3-5> 응답자 특성별 어메니티 자원 유형빈도 .......................................... 140
<표 3-6> 어메니티 자원이 주로 분포하는 장소 ............................................. 140

<표 4-1>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분포 ................................. 145

<표 5-1> 경관보전적임지물제 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 167
<표 5-2> 어메니티 형성을 위한 OECD의 정책 유형 예시 ............................... 171

<표 6-1> 농촌경관지구의 관리 수단 ................................................................. 18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22

<그림 3-1> 농산촌 어벤티 자원의 분류 개념도 ................................136

<그림 4-1> 파로호 느릅마을(유촌리) 메뚜기축제의 모습 .........................147
<그림 4-2> 죽배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계곡소풍 홍보포스터 .................148
<그림 4-3> 공동체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계남정미소 ................................151
<그림 4-4> 계남정미소 개관전 안내장 및 홍보 사진 ................................152
<그림 4-5> 특색있는 간판 정비를 벌인 백운면 소재지 전시 모습 .................152
<그림 4-6> 백운면 마을음 에코뮤지엄 개발 구상도 ................................154
<그림 4-7> 지역 주민이 구상한 에코뮤지엄 개념도 ................................155
<그림 4-8> 진안군 정책기획단 마을문화기념 운용 사례 .........................156
<그림 4-9> 진안군의 마을간사 역할과 사업 체계도 ................................157
<그림 4-10> 과거 다방이었던 건물에 개설한 마을조사단 사무실 .................158
<그림 4-11> 마을조사단에서 발간한 백운면 자원 조사보고서와 소식지 ..........158
<그림 4-12> 마을조사단이 주관한 백운면 옛날 사진 전시회 모습 ................159

<그림 5-1>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169
<그림 5-2> 주요 농촌정책 사업의 연대별 변화 상황 ................................173
<그림 5-3> 농촌개발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 ........................................174

<그림 6-1>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에코뮤지엄 조성 구상(진안군 백운면) .......18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창출 및 정책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장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과 방법 등 연구 진행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하였다.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최근 들어 어메니티 자원에 기반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농산촌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농산촌 지역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바탕으로 난관을 타개하고 새로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보자는 인식이 높아나면서 어메니티 논의가 관련 연구자뿐아니라 지역개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지나치게 소득개발 위주로 음기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다. 어메니티 개발이 농촌환경 개발과 흡사한 것으로 이해되기까지 할 정도이다. 이처럼 어메니티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기는 하나 정착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 채 결론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농산촌 분야의 어메니티에 대해 개념의 공유된 개념 인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로는 그 의미가 무한정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농산촌에 분포하는 거의 모
든 대상이 어메니티 자원인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작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일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처럼 어메니티에 대한 논의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농산촌의 어메니티들이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농산촌을 대상으로 매우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자금이 투자되었지만 마을의 경관이 눈에 띄게 좋아졌거나 농촌이 아름답게 변모했다는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더욱 자주 들린다. 물리적인 시설 정비와 소득개발에 치중한 탓에 농촌다운 모습이나 어메니티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소득 개발 외에만 집중하는 시각에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단지 어메니티의 여러 측면 중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지적도 나타나곤 한다.

한편 어메니티 자원은 고유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바, 자원 발굴과 그것의 활용 과정에서 제반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어메니티 관련 연구에서도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원의 발굴, 보전, 활용 등 제반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름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지만 농산촌 어메니티 개발과 관련해서 몇몇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사례들이 아주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고장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과정부터 주민들이 함께 나서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나름의 지역 발전 비전을 만들어 보는 등의 움직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의 모범 사례들은 찾아내어 그로부터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메니티 정책 추진에서 제반 주체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탐구해야 할 상황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여러 부문의 어메니티 중에서도 특히 농산촌의 어메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메니티 자원의 보편적 특성과 더불어 농산촌 어메니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입각해 볼 때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표

이 연구는 농산촌 분야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 보전, 창출하는 제반 활동들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청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어떠한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려온 어메니티 자원에 기반한 농산촌 지역개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둘째, 농산촌 주민들은 고장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 평가와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 등을 파악하며, 실제 농산촌 주민들은 어떠한 자원들을 가치 있는 어메니티 자원이라 인식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실제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 해보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넷째, 현행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협동연구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협동연구 참여 기관들은 그 전문 분야에 따라 국토 어메니티 총괄 분야 및 도시 부문, 농산촌 부문, 환경 부문, 연안·어촌 부문 등으로 공간범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는 그 중 농산어촌 부문의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 전략을 다룬 것이다.

연구 내용 측면에서는 주로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역시 전체적인 협동연구의 역할 분담 결과를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논의 대상을 농산촌 분야와 어메니티 창출 문제로 집중한 까닭에 농산촌 어메니티와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임을 밝한다. 예컨대 전체 국토정책 차원에서 본 농산촌 어메니티 문제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농산촌의 어메니티 요소 보전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어메니티 '창출' 문제가 초점이므로 가치있는 자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 주제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농산촌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읍.면 단위 이하 범위를 대상으로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 농산촌 주민들이 마을이나 읍.면과 같이 생활터전인근에 분포하는 자원들에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 판단했기 때문이다.60) 이미 대외적인 지명도를 갖춘 어메니티 요소 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연구의 주제에 더욱 부합하므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을 줄이는 것이 연구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연구 범위를 그와 같이 설정한 데는 협동연구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 내용도 부문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 어메니티 분야에 초점을 두기는 하였지만 지자체 단위의 어메니티 관련 정책은 국토연구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산촌의 어메니티 발굴과 보전.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고유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마을 단위의 사례 연구와 연관 지어서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논의 전개를 위해 주된 연구 범위를 읍.면 이하 수준으로 설정해올 것을 밝힌다.

60) 이 점은 본문 제3장에서 농산촌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점이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로 주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농산촌 지역개발 분야에서 어메니티 자원 활용이 관심사로 부각된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농산촌 주민들이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자원의 보전이나 발굴, 활용 등에 관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농산촌 주민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현지통신원은 전국 농산촌에 거주하며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로서 2007년 9월 기준으로 총 1,94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총 600명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은 조사 기간 중 회수한 371부의 설문조사표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제3장에서는 농산촌 주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하고 유행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산촌 주민들이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로 어떠한 자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역시 앞서 설명한 농촌 현지통신원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었다.

제4장은 사례 조사 내용에 바탕을 두었다.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의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두 지역(화천군 파로호권역 및 진안군 백운면)을 선정하여 어떠한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 및 지역 구성원들의 역할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에 필요한 분석 내용은 마을 대표나 관련 공무원 등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현행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 실태를 분석 시에는 사례지역 조사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 역시 준거로 삼았다.

제6장에서는 앞으로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시사점에서는 현지통신회 설문조사나 주민이나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관련 문헌이나 기존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논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 사례지역인 화천군과 진안군 외에 다른 어메니티 자원 활용 경험을 밟더라도 설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1-1>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의 진행 절차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 | 관련 문헌 검토와 주민 설문조사 |
|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와 유형 | 관찬 문헌 검토와 주민 설문조사 |
| 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 주민대표 및 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
|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과제 | 주민대표 및 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

---

12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전략 연구
2장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 및 특징

이 장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농산촌 어메니티를 “긍정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농산촌의 제반 환경요소이며, 또한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 주민들이 어메니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어메니티 자원 가꾸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향을 보인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1.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

1) 농산촌 어메니티의 개념

기존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를 공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농산촌의 제반 환경 요소이며 또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는 시각적인 요소인 경관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농산촌 어메니티를 구성한다. 맛, 소리, 향기, 촉감 등 오감에 관련되는 요소, 농산촌 고유의 정서나 인심(한가로움, 편안함, 공동체 유대감 등), 문화적 요소(전통문화, 축제, 예술 등) 등 무형의 다양 한 종류를 포괄하는 것이다.

당초 공간계획 분야의 어메니티 개념은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악화된 도시 위생 및 미관을 개선하여 중산층의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하였다. 빗막한 산업도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원의 폐적함을 도시 속에 인위적으로 복원하려 시도하였다(이상문, 2006). 따라서 어메니티의 초점은 시각적, 물리적 측면의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는 데 맞추어졌다.

이와 비교할 때 농산촌 어메니티는 그 형성 배경과 강조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도시 분야의 어메니티 논의가 물리적 공간 정비에 초점을 두어 전개되었다면, 농산촌 어메니티는 주민들이 긴 세월 거주함으로써 빚어내는 환경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촌 어메니티는 도시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유지, 보전,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송미령, 성주인, 2003).

어메니티에 기반한 농촌 지역개발을 다루고 있는 OECD(1999)의 보고서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어메니티 발굴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서 발견되는 농산촌 어메니티의 공통적인 속성으로는 무엇보다 그것이 주변 자연환경과 완연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온 까닭에 그것은 전통 문화의 요소가 두드러지며, 또한 주민들이 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특성을 갖게 된다.

51) 물론 최근 들어서는 농산촌에서도 공공에서 인위적으로 어메니티를 형성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엄밀히 보면 어떠한 어메니티 요소를 무에서 새롭게 창조한다고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가치를 인식하고 발굴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산촌의 어메니티에서는 영토적 의미(territorial connotation)가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즉 어떤 땅과 장소에 고유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 비해 차별화되는 독특함과 고유성으로 인해 농산촌 어메니티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 특유의 장소 특성(locality)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2) 자원으로서 농산촌 어메니티의 특질

최근 들어서 타 분야에 비해 농산촌 분야에서 어메니티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어메니티에서 지역개발의 바탕이 되는 자원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도시에서의 어메니티 논의는 정주공간 계획의 원리로서 강조되었지만, 농산촌에서는 고장의 활성화에 밀접히 연관되도록 그것을 '자원' 개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사실상 다수의 농산촌 어메니티 논의에서는 자원이 어메니티와 사원이라는 용어가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한다. 이상문(2006)의 논의에서는 특별히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일컬어하는 지역의 맑은 진조가 인간과의 교감 과정에서 인간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로운 가치를 발휘하는 일체의 감성자원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어메니티 개념과 자원 개념이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원으로서 어메니티의 의미가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농촌개발의 전개 과정에서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은 주로 토지, 노동 등 농업 생산과 관련되는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농촌의 자연, 문화, 공동체적 요소 역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 여겨지고 있다. 마을 주변에 속도 없는 듯 널려 있는 갈대숲이나 청명한 하늘, 파도 소리, 햇빛, 해질녘이 울든 연기 등과 같이 가치 부재의 대상으로 여겨진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그 결과 그것이 상품 형태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
고 어메니티가 높은 부가가치를 낳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이상문, 2006).
그러나 모든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이 자동적으로 시장 기제 속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경제적 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정책 개입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농산촌 어메니티와 관련한 공공의 개입을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할 논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체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강조되곤 한다(OECD, 1999).
첫째,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공공제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시장 기제에만 맡겨두어서는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농업 활동의 부산물(by-product)로 만들어지는 독특한 경관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은 외부효과로 봐질 수 있지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제 성격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기제에서는 어메니티의 공급 활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없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만큼 생산되지 않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것이며, 한번 없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갖는다는 점도 거론된다(Hodge, 1994).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잘 가꾸고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요컨대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적정 공급을 담보할 수 없으나 총체적 농촌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어메니티 창출과 유지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는 정책적인 개입을 통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상 OECD 국가들의 경우 농산촌 어메니티에 대한 이러한 정책 개입의 논리가 발전한 데는 가격 보조를 통해 농업 부문을 지원해야했던 방식을 더 이상 지탱

52) 물론, 요즘은 자연 환경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른 활동의 의미로 다른 부산물로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농산촌에서 다른 생산물들이 결합하여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없는 상황의 영향도 있다. 직점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농업 생산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농업, 농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으로서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메니티 관련 지원 정책에서는 특히 기존의 농업 중심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농촌 경제활동을 다각화하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된다.

2. 농산촌 활성화 수단으로서 어메니티의 역할

1) 어메니티에 기반한 농산촌 지역개발의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촌의 활성화라는 목적에서 어메니티 자원의 가능성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대략 2000년 전후부터라 하겠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에 대해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확산되었다. 2000년 이후 급증한 농산촌 마을개발 사례들이 이를 대표하는데, 어메니티 자원을 무엇보다 관광개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지자체 차원에서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유호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촌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정 장소만의 특질로서 농산촌 어메니티의 속성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다른 곳에는 없고 그 장소에만 있는 요소라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어메니티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에 몰두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 하겠다.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상품화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과 연계되어 개발되거나 방문객들이 찾을 만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어느 지역의 대내외적인 경제성 형성에 바탕이 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대외적으로 알리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긍심 형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은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중요시하는 문
화적 관점의 지역개발을 이끄는 바탕이 된다. Ray(2001)는 어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고장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문화경제(culture economies)"의 시각에서 농촌개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어메니티 자원은 그러한 문화경제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농촌의 문화경제라는 어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고장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란 다른 곳에서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차별화된 지역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의 원리기도 하고, 개성 있는 지역사회 개발의 이념이기도 하다.


2) 농산촌 주민들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 증대

농산촌 지역개발에서 어메니티 자원이 실제 역할을 발휘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주민들의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인식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산촌에서의 생활에 대한 인식과 농산촌 어메니티 역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 2-1>에서 보여주고 있다. 농산촌 주민들은 ‘농산촌의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정점적인

---

53) ‘문화’란 어느 지역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경제’라 이름하는 것은 자원, 생산, 소비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결국 농촌의 지역성(locality)을 바탕으로 여러 자원들의 생산, 소비 등의 과정을 재조직하는 것이 문화경제의 의미이다. 농촌에서 이러한 문화경제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 고유의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각종 자원들(농특산물, 전통, 자연, 경관 등)에 대해 문화적인 쟁점이 불어나는 것이 자발화의 요인이자 경쟁력 확보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의견에 비해 우세하다. 농산촌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되기에는 여전히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문인지 않은 자연이나 전통문화 등 농산촌 자원이 갖는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30%,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43%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메니티 자원이 농산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대해서 다수의 농산촌 주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1〉 농산촌의 생활과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매우 공감한다</th>
<th>대체로 공감한다</th>
<th>보통이다</th>
<th>별로 공감하지 않는다</th>
<th>전혀 공감하지 않는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농산촌의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보람있게 사는 길이다</td>
<td>5.1</td>
<td>22.2</td>
<td>30.1</td>
<td>29.0</td>
<td>13.6</td>
<td>100.0</td>
</tr>
<tr>
<td>농산촌 자원의 가치가 향후 더 커질 것이므로 이를 적극 보전해야 한다</td>
<td>30.1</td>
<td>42.5</td>
<td>12.7</td>
<td>10.3</td>
<td>4.3</td>
<td>100.0</td>
</tr>
</tbody>
</table>

자료: 주민조사 결과

다음으로 농산촌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 발전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소득 창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마을의 도로나 주택,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은 전통적인 농촌개발 분야 사업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요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마을의 자연 경관과 농촌다운 모습을 살리고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답한 응답자도 20% 이상으로 나타나 마을의 어메니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에 대해 농산촌 생활이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응답 내용에서 집단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농산촌의 생활에 대해서나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주민일수
록 자연 및 농촌 경관 가꾸기 같은 어메니티 자원 관련 과제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표 2-2 마을 발전을 위한 과제(응답자 유형간 비교)

<table>
<thead>
<tr>
<th>응답자 유형</th>
<th>농산촌생활에 대한 인식</th>
<th>어메니티 자원 관련 인식</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긍정적 접탄</td>
<td>부정적 접탄</td>
<td>긍정적 접탄</td>
</tr>
<tr>
<td>생활기반시설 개선</td>
<td>19.8</td>
<td>27.6</td>
<td>22.2</td>
</tr>
<tr>
<td>자연 및 농촌경관 가꾸</td>
<td>25.7</td>
<td>19.9</td>
<td>23.7</td>
</tr>
<tr>
<td>농산품 판로 및 소득 개발</td>
<td>39.6</td>
<td>41.7</td>
<td>40.6</td>
</tr>
<tr>
<td>도시민 방문시설 조성</td>
<td>5.9</td>
<td>6.4</td>
<td>7.5</td>
</tr>
<tr>
<td>주민 교육과 학습</td>
<td>8.9</td>
<td>3.8</td>
<td>5.6</td>
</tr>
<tr>
<td>기타</td>
<td>0.0</td>
<td>0.6</td>
<td>0.4</td>
</tr>
<tr>
<td>합 계</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주: 농산촌 생활 및 어메니티 자원 관련 인식에서 긍정적인 집단은 (표 2-1)의 문항 각각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나 '대체로 공감한다'라고 답한 응답자이며, 부정적인 집단은 해당 문항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나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임.

농산촌 주민들은 마을 어메니티 자원을 가꾸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을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문항), 다음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산촌 주민들은 청소나 꽃 가꾸기 등 마을 가꾸기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며 일손을 돕는 것,이나 주민 대표조직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 등에 대해 매우 높은 참여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는 응답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참여 경향은 특히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주민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을 공동행사나 대표조직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조사 대상 통신원 중 상당수가 그동안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적이 있거나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2%가 마을이장이나 새마을회장, 적극반장, 개발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0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참조 전략 연구
<table>
<thead>
<tr>
<th>마을 가꾸기 사업 내용</th>
<th>응답자 유형</th>
<th>어메니티 자원 관련 인식</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긍정적 집단</td>
<td>부정적 집단</td>
</tr>
<tr>
<td>각종 사업 과정에서 마을 자원 관련 정보 제공</td>
<td>55.5</td>
<td>38.0</td>
<td>51.8</td>
</tr>
<tr>
<td>마을 가꾸기나 공동행사에 일손을 도움</td>
<td>79.6</td>
<td>78.0</td>
<td>79.2</td>
</tr>
<tr>
<td>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참여</td>
<td>46.5</td>
<td>24.0</td>
<td>39.6</td>
</tr>
<tr>
<td>마을 방문객 대상 인박, 읍식점 등의 사업 벌임</td>
<td>18.8</td>
<td>12.0</td>
<td>17.0</td>
</tr>
<tr>
<td>마을 가꾸기 관련 주민 대표조직 운영에 참여</td>
<td>72.7</td>
<td>80.0</td>
<td>73.2</td>
</tr>
<tr>
<td>마을 공동시설 및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td>
<td>27.3</td>
<td>22.0</td>
<td>25.0</td>
</tr>
<tr>
<td>거주하는 주택 외관(지붕, 담장, 정원 등) 단장</td>
<td>56.7</td>
<td>44.0</td>
<td>54.5</td>
</tr>
</tbody>
</table>

주: 위 표의 수치는 마을 가꾸기 사업 참여 의향에 대한 복수응답 집계 결과로서, 각각의 활동 내용에 대해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 비율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만이 아니라 농산촌 주민들도 상당수가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이 지니는 지역개발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자원 발굴이나 보전을 위한 관련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고장의 어메니티 자원은 어떠한 것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음 장에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유형에 관해 다루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자원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OECD의 자원분류 기준을 대분류로 활용하고, 중분류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활용하였다. 그리고 주민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어 실제 유형별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어메니티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1)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 관련 기존 연구 검토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유형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 몇 가지 방식의 분류법이 제시된다. 우선 농산촌의 기능 공간에 따른 분류에 입각하여 어메니티 자원을 자연공간적 자원, 생활공간적 자원, 생산공간적 자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농산촌 공간이 ① 자연 ② 경제활동(농업) ③ 주민들의 일상생활 관련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분류이다.55)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각 범주별로 해당되는 대표적인 자원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었다.

55) 농촌경관 관련 연구(송미령, 2004)에서는 농산촌의 경관자원이 자연·생산·생활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분류법이 비교적 널리 동용되어 왔다.
1. 자연자원: 하천, 산, 계곡, 숲지, 특색 있는 지형적 요소(동굴, 절벽, 모래사장 등), 희귀하거나 특색 있는 동식물(천연기념물 등), 조용한 분위기, 자연의 소리, 특이한 기후(많은 눈, 온화한 기후 등), 맑은 물, 약수, 비옥한 토양
2. 생산(경제활동) 자원: 전통적인 농업 경관(다락논, 구불구불한 논둑길 등), 경관작물(매밀, 유채, 보리 밭, 연꽃, 자운영 등), 조식, 농업 생산 관련 시설(도수로, 저수지 등), 농특산품과 향토음식, 그 고장만의 고유 기술
3. 생활자원: 공동체 시설, 정자목, 고유한 문화행사(제례, 놀이 등), 문화재 및 유적지, ال거리, 방음률, 토수지리적 요소, 마을 상징물(소대, 장승 등), 돌담길, 옛집이나 개성 있는 가옥, 유명한 인물, 전설과 옛이야기, 고유의 음악이나 민요, 고유의 음식과 술, 신앙 및 종교 관련 자원(사찰, 성당 등)

최근에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형태 및 기능에 따라 ① 자연자원 ② 문화자원 ③ 사회자원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의 분류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범주 각각에 대하여 어메니티 자원이 갖는 기능에 따라 ① 기초핵심자원형 ② 관광자원형 ③ 생활자원형 등 세 가지로 세분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분류 사례는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유형 I (기초핵심자원형)</th>
<th>유형 II (생활자원형)</th>
<th>유형 III (관광자원형)</th>
</tr>
</thead>
<tbody>
<tr>
<td>지역적 자원</td>
<td>대기질</td>
<td>비옥한 토양</td>
<td>지형 동물</td>
</tr>
<tr>
<td>문화적 자원</td>
<td>산림정관</td>
<td>-</td>
<td>지정관리대대</td>
</tr>
<tr>
<td>사회적 자원</td>
<td>마을놀이</td>
<td>공동생활시설</td>
<td>도농교류활동</td>
</tr>
<tr>
<td></td>
<td>마을관리 및 홍보</td>
<td>기반시설</td>
<td>농특산품 생산</td>
</tr>
<tr>
<td></td>
<td></td>
<td>생활공동체</td>
<td>마을 문화활동</td>
</tr>
</tbody>
</table>

자료: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 재구성

그러나 각 유형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농산촌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관광상품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역 농특산품을 어메니티 요소와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농산촌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형태, 기능 등을 기준으로 한 자원 분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의 어메니티 자원 유통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 분류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활용 방식에 따른 분류법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정화. 이상문, 2006).

1. 자원 그 자체 시장 거래: 공예품, 자연물, 토속음식/특산음식
2. 생산요소 일부로 투입: 웰빙 관련 건강상품, 미용. 여가생활 관련으로 일부 가공된 상품, 자연 소재 관련 상품
3. 존재자원 이용요금: 입장료 정수, 체험 프로그램
4. 자원 파생 이미지 속성 가공: 문화. 지식산업 결합, 모바일 관련 IT산업과 결합, 경관 이미지 활용(영화, 드라마 등), 향토지적재산권
5. 어메니티 요소 차용: 지역 브랜드화, 특정 제품에 어메니티적 가치 차용
6. 어메니티 자원 소유권 판매, 임대

2) 본 연구의 어메니티 자원 분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림 3-1>과 같이 ① 자연자원 ② 문화자원 ③ 사회자원 등 세 가지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기준으로 OECD(1999)에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범주와 상응하기도 한다. 이들 세 가지 범주 중 문화자원은 다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등 두 가지로 세분하고자 하며, 사회자원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자원과 공동체자원 등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었다.57

이상과 같은 어메니티 자원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어메니티 자원이 엮임하게 어느 한 범주로 구분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7)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연생태자원과 경관자원으로 세분이 가능하지만, 엄밀히 나누기가 어렵고 구분의 의미도 크지 않아 하위 범주로 구분하지 않고자 함.
특히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경우 도시에 비할 때 주민들이 오랜 기간 정주하면서 이어져온 공동생활의 요소에 문화적 요소가 뒤섞여 있는 까닭에 문화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활동 자원 역시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메니티 자원 문제를 다루면서 주어진 개념 틀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자원을 분류하는 것은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촌 어메니티 분야에서는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농산촌 지역 뿐 아니라 도시나 환경, 연안 어촌 등 다양한 국토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들을 비교하는 준거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위의 자원 분류 틀을 따르고자 한다.

2. 유형별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포 현황

1) 유형별 어메니티 자원 개요

자원 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 자원 사례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농산촌 주민(현지통신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살펴보았다. 응답자 개인이 인식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와 유형화 137

## 1. 자연환경  ① 동식물  ③ 특성적 경관  ④ 문화재  ⑤ 농특산품  ⑥ 공동체 행사와 활동
2. 전설, 설화  ⑧ 내세울 만한 인물  ⑨ 농촌 체험프로그램
3. 기타 등의 각 분야에 대해 현재 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떠오르는 자원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각자가 응답한 자원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자원 세 가지를 다시 콜러서 응답하도록 요구한 후 이 결과를 집계하여 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하여 최종 집계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58)

### <표 3-2> 유형별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목록 (주민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유 형</th>
<th>해당 자원 목록</th>
</tr>
</thead>
<tbody>
<tr>
<td>자연 자원</td>
<td>생태자원 ①</td>
</tr>
<tr>
<td></td>
<td>일반자원 ②</td>
</tr>
<tr>
<td></td>
<td>관람자원 ③</td>
</tr>
<tr>
<td></td>
<td>휴양자원 ④</td>
</tr>
<tr>
<td></td>
<td>특이지형 ⑤</td>
</tr>
<tr>
<td></td>
<td>동·식물 ⑥</td>
</tr>
<tr>
<td></td>
<td>문화자원 ⑦</td>
</tr>
<tr>
<td></td>
<td>무형자원 ⑧</td>
</tr>
<tr>
<td></td>
<td>전통적 경관 ⑨</td>
</tr>
<tr>
<td></td>
<td>민속놀이 ⑩</td>
</tr>
<tr>
<td></td>
<td>문화예술행사 ⑪</td>
</tr>
<tr>
<td></td>
<td>사회자원 ⑫</td>
</tr>
<tr>
<td></td>
<td>공동체 활동 ⑬</td>
</tr>
</tbody>
</table>

---

58)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이처럼 개방형으로 조사한 문항에 대해 371명의 통신원 중 총 257명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어메니티 자원 현황에 대한 이하의 집계 결과는 이들 257명의 응답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제3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분류와 유형화 137
2) 농산촌 주민들의 어메니티 자원 인식 특성

농산촌 주민들이 자기 고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어메니티 자원이 주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파악해보고자 응답한 자원의 빈도수를 집계해보았다.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조사를 통해 파악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자원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자원(29%), 공동체자원(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농산촌 마을 유형별 어메니티 자원 비교 (단위: %)

<table>
<thead>
<tr>
<th>자원 유형</th>
<th>도시화된 근교마을</th>
<th>관광지 인근 마을</th>
<th>농업 중심의 일반농촌마을</th>
<th>접근성 나쁜 산간오지마을</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자연자원</td>
<td>33.3</td>
<td>36.6</td>
<td>32.6</td>
<td>44.0</td>
<td>34.4</td>
</tr>
<tr>
<td>문화자원</td>
<td>4.8</td>
<td>14.1</td>
<td>15.2</td>
<td>7.1</td>
<td>13.0</td>
</tr>
<tr>
<td>사회자원</td>
<td>6.0</td>
<td>8.5</td>
<td>5.9</td>
<td>8.3</td>
<td>6.4</td>
</tr>
<tr>
<td>합 계</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주: 현지통신원 조사 결과 파악한 개별 자원들을 마을 유형별로 집계하여 분류한 것이며, 표의 수치는 전체 자원 수 대비 각 유형별 자원 수의 백분비임.

마을 유형별로 자원 분포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오지마을일수록 자연자원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 근교 마을로 갈수록 경제활동 관련 자원을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 거주 마을의 성격에 따라 어메니티 자원 개발의 초점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4>에서는 주민들이 응답한 자원을 세분하여 답변 빈도수가 높은 상위 20개 자원을 가려내어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봐 볼 때 상위 20개 자원 중 대부분 류상 자연자원에 해당되는 것이 10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상당수가 맑은 물, 좋은 공기, 비옥한 땅 등을 답하고 있다. 주민들 다수는 해당 지

59) 본 설문 집계 시 구분한 마을 유형은 응답자의 답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즉 입지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마을 유형은 내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개별 응답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전체 응답자의 거주 마을 유형 집계 결과 ‘농업 중심의 일반농촌마을’이 6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시화된 근교마을’(13.2%), ‘접근성 나쁜 산간오지마을’(11.1%), ‘외부 방문객 많이 지나가는 관광지 인근 마을’(8.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138 농산촌 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역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자원보다는 전반적인 자연환경 일부를 막연히 어머니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60)

〈표 3-4〉 응답 빈도 높은 어머니 자원 사례 (상위 20개)

<table>
<thead>
<tr>
<th>유형</th>
<th>응답 빈도 높은 자원</th>
<th>응답자 수(명)</th>
<th>응답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경제활동</td>
<td>농축산물</td>
<td>70</td>
<td>27.6</td>
</tr>
<tr>
<td>자연</td>
<td>나무</td>
<td>36</td>
<td>14.2</td>
</tr>
<tr>
<td>자연</td>
<td>밝은 물</td>
<td>27</td>
<td>10.6</td>
</tr>
<tr>
<td>자연</td>
<td>좋은 공기</td>
<td>27</td>
<td>10.6</td>
</tr>
<tr>
<td>자연</td>
<td>산</td>
<td>22</td>
<td>8.7</td>
</tr>
<tr>
<td>역사</td>
<td>사원, 향교, 사당</td>
<td>20</td>
<td>7.9</td>
</tr>
<tr>
<td>공동체</td>
<td>축제</td>
<td>19</td>
<td>7.5</td>
</tr>
<tr>
<td>자연</td>
<td>저수지, 놀, 못</td>
<td>18</td>
<td>7.1</td>
</tr>
<tr>
<td>경제활동</td>
<td>특산물</td>
<td>18</td>
<td>7.1</td>
</tr>
<tr>
<td>공동체</td>
<td>마을 정체성</td>
<td>17</td>
<td>6.7</td>
</tr>
<tr>
<td>문화</td>
<td>평야, 농경지 경관</td>
<td>16</td>
<td>6.3</td>
</tr>
<tr>
<td>공동체</td>
<td>공동체 조직활동</td>
<td>15</td>
<td>5.9</td>
</tr>
<tr>
<td>자연</td>
<td>마을숲</td>
<td>13</td>
<td>5.1</td>
</tr>
<tr>
<td>자연</td>
<td>땅</td>
<td>13</td>
<td>5.1</td>
</tr>
<tr>
<td>자연</td>
<td>희귀동물</td>
<td>12</td>
<td>4.7</td>
</tr>
<tr>
<td>자연</td>
<td>자연 일반</td>
<td>11</td>
<td>4.3</td>
</tr>
<tr>
<td>자연</td>
<td>비옥한 땅, 흙, 지질</td>
<td>11</td>
<td>4.3</td>
</tr>
<tr>
<td>역사</td>
<td>역사적 인물</td>
<td>11</td>
<td>4.3</td>
</tr>
<tr>
<td>역사</td>
<td>세</td>
<td>11</td>
<td>4.3</td>
</tr>
<tr>
<td>경제활동</td>
<td>공예품</td>
<td>11</td>
<td>4.3</td>
</tr>
</tbody>
</table>

주: 자신의 고장에 분포하는 어머니 자원에 대해 유효 응답을 한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집계함. 응답 빈도가 높은 상위 20위의 자원을 제시한 결과임.

전반적으로는 자연자원을 응답한 경우가 많으나, 응답 빈도 면에서 1위로 집계된 것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나타났다. 전체 유효 응답자 중 28%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농산촌 어머니자원 전반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에는 고장을 대표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자원의 가치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수 erot 61)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

60) 예컨대 집계 결과 2위로 나타난 '나무'의 경우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정적인 수종을 답변하기도 했지만, 여러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자목 등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연히 '자연 일반'으로 답한 경우도 전체 유효 응답자 중 4.3%를 차지하였다.

제3장 농산촌 어머니자원 분류와 유형화 139
이 응답하였다. 반면,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닌 주민들
일수록 경제활동 및 공동체 관련자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답하고 있다.62)

### 표 3-5 응답자 특성별 어메니티 자원 유형비도 (단위: %)

<table>
<thead>
<tr>
<th>자원 유형</th>
<th>응답자 유형</th>
<th>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긍정적인 집단</td>
<td>부정적인 집단</td>
<td></td>
</tr>
<tr>
<td>자연자원</td>
<td>35.7</td>
<td>23.5</td>
<td>34.4</td>
</tr>
<tr>
<td>문화자원</td>
<td>13.9</td>
<td>7.1</td>
<td>13.0</td>
</tr>
<tr>
<td>사회자원</td>
<td>28.1</td>
<td>42.4</td>
<td>29.1</td>
</tr>
<tr>
<td>문화자원</td>
<td>13.6</td>
<td>5.9</td>
<td>6.4</td>
</tr>
<tr>
<td>사회자원</td>
<td>15.8</td>
<td>21.2</td>
<td>17.2</td>
</tr>
<tr>
<td>합 계</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자료: 설문조사 결과

농산촌 주민들이 인식하는 어메니티 자원은 주로 거주하는 마을 일대 권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가 응답한 어메니티 자원들이 주
로 분포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거주하는 마을 일
대’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9%의 응답자가 ‘인근 마을 포함한 권역’이
라고 답하고 있음을 <표 3-6>에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주하는 읍·면
이내에 속한 자원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촌 주민들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자원의 분포 범위가 거주지
인근 권역을 크게 넘지 않을음을 알 수 있다.

### 표 3-6 어메니티 자원이 주로 분포하는 장소

<table>
<thead>
<tr>
<th>어메니티 자원의 분포 위치</th>
<th>응답자 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현재 거주하는 마을 일대</td>
<td>115</td>
<td>38.1</td>
</tr>
<tr>
<td>거주 마을과 인근 마을을 포함한 권역</td>
<td>87</td>
<td>28.8</td>
</tr>
<tr>
<td>나 마을이 숲한 읍면</td>
<td>57</td>
<td>18.9</td>
</tr>
<tr>
<td>나 마을이 숲한 시·군</td>
<td>35</td>
<td>11.6</td>
</tr>
<tr>
<td>인접 시·군까지 포함한 권역</td>
<td>8</td>
<td>2.6</td>
</tr>
<tr>
<td>합 계</td>
<td>302</td>
<td>100.0</td>
</tr>
</tbody>
</table>

자료: 설문조사 결과

61) 이와 같은 응답자 유형 구분은 앞의 <표 2-1>에 나타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
진 것이다. 즉,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가 향후 커질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문항
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답이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62) 이와 관련해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는 주민의 경우에는 앞서
마을 발전 과제에 대해 불만에 대해서도 ‘농산물 판로 개척과 소득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응답했다
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었다.
3) 주민 조사 결과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어메니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가는 흐름과 맞추어 농산촌 주민들 다수도 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산어촌 주민들 사이에 향후 농촌 발전을 위해 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가꾸는 사업에도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어메니티 자원 중 전통적인 소득 개발과 관련되는 경제활동자원 뿐만이 아니라 자연 자원, 문화자원 발굴·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는 등 어메니티 시책의 확대 추진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이 같이 관심이 높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고유물의 고유하고 차별적인 자원에 대한 주민 인식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주민 조사 결과에서 집계된 어메니티 자원들 중 상당수는 어느 농산촌에 널리 분포하는 일반적인 자원(예컨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산, 일반적인 농산물 등)들로서 특정 지역만의 고유한 장소성을 갖는 자원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당 자원을 지역 외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단지 다수의 무수한 자원들 중 하나 정도로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보전 작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출발해야 함을 주민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농산촌 주민들이 인식하는 어메니티 자원은 대개 마을 인근 권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지명도가 높은 자원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다릅니다 농산촌 마을의 알려지지 않은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발굴

63) 이는 지역 고유의 어메니티 자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상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특별히 있는 자원 발굴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하는 일이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자원 발굴 과정에는 그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역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무엇이 가치 있는 어메니티 자원인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와 같이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주의로서 어메니티가 강조될 경우 어떠한 평가 기준 및 객관에 의해 어메니티 자원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농산촌의 경우 어메니티 자원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은 주민이나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역이 지닌 자원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굴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원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가치 있는 자원이 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메니티 자원 발굴 작업은 전문가와 농산촌 주민이 상호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어느 장소에 어떠한 어메니티 자원이 분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자원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독으로는 온전히 평가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평가 작업은 전문가와 농산촌 주민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메니티 자원의 부문별 유형화 및 세분화는 개념 분류를 위해 편의상 필요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명확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어느 자원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그것의 단독으로 갖는 의미보다는 다른 자원들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어느 마을의 농특산물과 지역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 간의 연계).

이상에서 제시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례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경험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권과 진안군 백운면 일대의 자원 발굴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자는 마을권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원개발 사례이며, 후자는 테마에 기반하여 면 단위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는데, 이 두 지역의 경험을 참고로 삼고자 한다.

1. 화천군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사례

1) 간동면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개요

(1) 지역 개요

먼저 소개하는 사례는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를 끼고 있는 간동면의 유촌1리, 용호리, 도송리 일대(이하 ‘파로호권역’이라 지칭)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에 관한 것이다. 파로호권역은 농림부의 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며, 용화산 줄기와 범풍산이 파로호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에 위치한 3개 마을로 대표된다. 전체 가구 수는 약 280호(군인아파트 거주 가구 제외)로 구성되어, 면 소재지이기도 한 용촌리(160가구)를 중심으로 용호리(70가구)와 도송리(50가구)가 인접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파로호권역 3개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동면장, 유촌1리, 도송리, 용호리 이장, 느릅마을(유촌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마을 대표 및 지역 지도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파로호 권역에 분
포하는 다양한 유형의 어메니티 자원 분포 현황과 그것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한편 화천군 문화관광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설화나 옛 이야기 등을 담고 있는 군지이나 민속지를 비롯한 화천군 어메니티 자원 현황을 조사한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내부자료(64) 중 간동면 파로호권역 해당 자원 집계 결과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문헌 등의 2차 자료를 통해 파악한 자원과 주민 조사를 통해 찾아낸 자원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대조하는 작업도 해보았다.

(2)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분포 현황

간동면 파로호권역 3개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현황은 <표 4-1>과 같다. 농산촌 주민 대부분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들은 상당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문헌 등 2차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몇몇 중요한 자원은 후자의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직접적인 주민 조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누락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떠한 것이 있든지 알아보고자 표에서는 편의상 2차 자료가 아닌 주민 조사를 통해 서만 찾아낼 수 있었던 자원들에 대해 밑줄로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주민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어메니티 자원을 2차 자료에 바탕을 두어 파악한 자원과 대조해보면, 농산촌 주민들은 공동의 마을 가꾸기 활동과 관련되는 자원, 마을 인적 자원 등을 중요한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주민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어메니티 자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각종 농촌 체험활동(농사, 낚시, 목공예, 낙농 등) 관련 자원이나 협동한 마을숲, 마을 공동 펜션과 황토방 등의 공동체 자원, 인적 자원(젊은 인력이나 귀농 가구,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주민) 등은 물론이다. 이는 파로호 권역의 주민들이 계곡소풍 행사나 메뚜기 축제 등과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 관련 자원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6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7. 「농촌지역 향토자원 조사자료: 화천군」(미발간자료)

144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전략 연구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자원의 발굴과 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인적 자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1〉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 분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자원명</th>
</tr>
</thead>
</table>
| 자연자원      | 파로호, 용화산, 수불(풀), 무산, 봉으산, 용화산 바위굴, 용화산 동산로, 수불로 호랑이굴, 제당계곡, 봉계계곡, 용화산 목지바위, 용화산심바위, 느릅나무 숲(복원), 빙갈이(노랑매기), 살쾡이, 상사화, 용화산 산물 | 145
| 역사자원      | 송란충효문, 용화산성, 성불사지, 비기별장군 공덕비                                                                                                                                                  |
| 문화자원      | 마을 전통가옥, 화포상, 작은 음악회(메뚜기축제), 용호리 목지바위전설                                                                                                                                 |
| 사회자원      | 애호박, 단호박, 블루베리, 산채, 청사랑, 토마토, 용호리 산야초, 고추, 잡곡, 계임, 콩, 냉채, 마을 야생화, 경주, 느릅나무 식후, 단호박면발, 누룽지 아름다운 벽, 용호리 도트로트전, 복디순환, 용호리 가시오가피 및 가시오가피 잎차, 초록마을유정란, 계곡소품(농촌체험), 낙농체험시설, 농산물판매센터, 블루베리 육묘장 |
| 공동체자원   | 느릅마을영농조합법인, 메뚜기축제, 대보름맞이행사, 한옥학교, 용호리 마을 황토방, 아토피예방건물, 제당계곡 야생화체험학습단지, 마을의 젊은 인력, 술 잘 담그는 할머니, 마을 꽃심기, 파로호 느릅마을, 용호리 산천체 |

주: 밑줄로 표시한 자원은 기존 문헌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2차 자료에 의하지 않고 주민 면담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던 자원을 나타낸.

농산촌 주민들은 개별 어메니티 자원들을 연계할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컨대 용호리 주민들은 마을의 다양한 어메니티 요소들을 연결하는 탐방 프로그램으로서 ① 전통주택(한옥학교에서 조성) → ② 제당계곡 야생화단지 → ③ 유촌 마곡수 식사 → ④ 마을 황토방 체험 → ⑤ 파로호 경관 감상 및 낚시 → ⑥ 블루베리 육묘장(공원화 구상 중) → ⑦ 봉계계곡(자연휴식재실 실시 중) 탐방 → ⑧ 왕갈이(노랑매기) 잡기 체험 등의 자원 개발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개별 자원이 그 자체로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자원을 여타 자원들과 어떻게 묶어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제4장 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145
2) 파로호권역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개발 노력

(1) 메뚜기축제 개최를 통한 마을 일대 다양한 자원의 발굴

파로호권역 일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들은 동원해서 이를 농촌개발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유촌리의 메뚜기축제 개최 시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유촌리(일명 느릅마을)에서는 8년 전부터 무농약 쌀을 생산해왔는데, 그 이후 사라졌던 메뚜기 등 청정지역에 사는 곤충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 메뚜기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현재는 마을의 모든 농가가 작목반 회원으로 참가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메뚜기축제는 이처럼 메뚜기쌀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쌀 수확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마을 축제이다. 2007년으로 7회째를 맞이하며, 벼 수확기인 매년 10월초에 행사가 열린다. 축제 때는 한국생협연대 회원 등 도시민들이 많게는 500명 가량 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친환경 쌀의 아이디어를 살려 벼 베기, 메뚜기 잡기 등의 체험 행사와 지기 치기나 탈곡 체험 등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 쌀 수확 관련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장승 만들기나 콩죽 만들기 등의 목공예 체험, 지역 특산물인 애호박으로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 등 마을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들을 축제의 소재로 끌어들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축제 전야에 맞춰 ‘작은 음악회’ 개최 등 문화적인 체험 소재도 강화하고 있다. 유촌리 느릅마을의 메뚜기축제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마을 어메니티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자원분류에 입각할 경우 자연(메뚜기), 경제활동(쌀, 호박, 농산물), 공동체(주민행사, 축제, 작목반) 문화(음악회, 전통 문화와 풍물)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어메니티 자원들이 개개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는 장을 계기로 하나의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었다.
제4장 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147

(2) 화천군 차원의 대형 이벤트와 마을 단위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화천군에서는 대외적인 지명도가 높으며 다수의 방문객이 찾는 주요 지역 축제인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의 지역 파급효과를 제고하고자 축제 개최와 때를 맞추어 각각 사랑방마실 및 계곡소풍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천 군 5개 읍·면별로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축제 방문객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및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어메니티 자원 여건이나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간동면의 유촌리는 이 중 여름철 쪽배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계곡소풍 행사의 대상 마을로서 파로호 느릅마을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계곡 피크닉(물고기 잡기), 농산물 수확 체험(애호박, 고추, 옥수수 따기) 등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5) 화천군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 진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축제조직위원회inkle 결과에 의하면, 기름질 산천어축제(총 23일간 개최)에는 총 12만여 명(2007년 축제 기준), 여름철 쪽배축제(총 18일간 개최)에는 총 21만여 명(2006년 축제 기준)의 방문객이 화천군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파로호 느릅마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paroho.com/main.html)

제4장 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147
2006년도의 경우 계곡소풍 기간(7월27일~8월16일) 동안 총 1,200여 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다니며 수ientos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계곡소풍, 사랑방마실 개최 등과 같은 화천군의 시도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화천군 지역 단위의 어메니티 자원과 마을 차원의 어메니티 자원 개발의 연계를 통해 농산촌 마을의 활성화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지자체 차원의 축제나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 외부 방문객을 가능한 한 많이 불러모으고자 하는 움직임은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화천군의 경우처럼 대외적인 지명도를 갖춘 행사와 알려지지 않은 마을 단위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개발하려는 시도는 드문 실정이다.
제4장

제안군 백운면 어메니티 자원 사례

1) 제안군 백운면 어메니티 자원 개발 사례 개요

(1) 지역 개요
전북 동부산악권의 전통 문화가 잘 간직되어 있는 제안군 백운면 일대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백운면 사례에서는 일견 소박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지역 구성원들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장소가꾸기의 소재로 잘 활용하여 색다른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대단치 않은 자원들이라 할지라도 일관된 테마를 바탕으로 연계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과정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군청 마을만들기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병행해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자원 발굴 과정에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해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농촌개발의 자산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 백운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자원 발굴의 노력은 면 전역을 ‘지붕 없는 농촌 전원박물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에코뮤지엄 구상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2) 백운면 일대의 주요 자원 발굴 사례
백운면 일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어메니티 자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지역체의 마을 만들기 담당 공무원 및 주민 면담을 통해 파악한 것들로서, 에코뮤지엄 구상의 핵심 자원이기도 하다.

①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섬진강 최상류의 발원지이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원신암 마을숲에 쌓이 있고 나무 매크로 있다는 마을 주민 얘기로 듣고 이 지역에서 복장없을 운영
하나의 귀농인이 1991년 데미샘을 신진강 발원지임을 알리주는 나무 말뚝을 찾아 내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데미샘은 신진강 발원지이자 전북 동부 산악권에서 농촌문화가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고원지역인 백운면 이미지를 대표하는 자원으로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연계하는 에코뮤지엄(Eco-Museum) 개발에서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②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옛 정미소 건물이나 오래된 이발소 등 지난간 소재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오던 어느 사진작가가 낮은 정미소 건물을 사들여 이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이 지역의 대표 자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옛 정미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쌀 도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공동체 박물관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지난간 사진들을 모아서 옛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촌에서 소박하면서도 풍격 있는 문화적 명소로 거듭났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백운면 방문객이 반드시 들러는 답사코스로 자리잡았다.

③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손내옹기

한때 융성했던 손내 마을의 전통 옹기가마를 계승하여 옹기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다. 손내옹기 운영자는 귀농자이면서 마을문화조사단장을 겸해서 일하고 있는 등 백운면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위한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④ 간판정비작업으로 개성 있게 변모한 면 소재지

거리 간판 가꾸기 등 마을 가로 정비의 결과 농촌다운 소박함을 간직하면서도 문화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면 소재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백운

66) 데미샘을 찾아낸 귀농인은 덕유목장 및 숲골우유 대표 서유천씨이며, 그는 성환강이 바다에 만나는 광양 제철소 사장 케리사건의도로 이동하면서 백운면 대리라는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67) 엄밀히 말해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는 행정구역상 백운면이 아니라 그와 바로 인접한 계남면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백운면 일원 동산과 서로 연계가 가능하며, 백운면 내에도 이처럼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옛 정미소들이 다수 자리잡고 있어 이들과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계남정미소는 백운면 어메니티 자원 중 하나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면에서는 2007년 문화관광부의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컨설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면 소재지 간판·안내판 정비와 가로 경관 디자인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관광 목적을 노리고 진행된 일이 아니었으나 독특하면서 흥미 있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소재지 모습이 화제가 되어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간판 개선 작업은 지역주민 및 단체의 참여와 백운면 마을문화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대 누리사업단(도시환경미술연구소)의 작업이 더해져 만들어진 성과이다.

〈그림 4-3〉 공동체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계남정미소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racka/60025377628

68) 마을문화조사단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백운면에 상주하면서 마을 자원을 조사·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4〉 계남정미소 개관전 안내장 및 홍보 사진

〈그림 4-5〉 특색있는 간판 정비를 벌인 백운면 소재지 거리 모습
2)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아우르는 에코뮤지엄 구상

백운면에서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한 종합적 지역발전 구상이 진행 중이다. 주요 어메니티 자원 특성에 따라 지역을 크게 세 개의 권역(자연, 역사, 문화)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백운면 전역 을 지켜보는 농촌 전원박물관(에코뮤지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역 내 관련 자원을 적절, 선정, 면적으로 연계 개발하는 구상이 이와 관련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에코뮤지엄 구상에 따라 지역 내 분포하는 정미소들을 각기 특색있게 리모델링(1) 적정 개발하여 이를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연계(2) 선적 개발)하려는 데미서소 탑방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동체박물관으로 활용 중인 데미서소의 동네에 해당 대미샘 에코뮤지엄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는 3 면적 개발 구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친숙한 농협 건물에 흰구름 전망대를 설치하고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그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9) 각 영역별 주요 자원 목록은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연 영역: 데미샘, 해발 1천 미터 이상 산들(성수산, 둥태산, 선각산, 용공산, 내동산), 백운동 계곡, 산리산, 봉황문, 청호문, 둥태문, 성수문, 흩날문(조사결과)
- 역사 영역: 만육 최양 선생 유허비, 오정마을(동학 전봉준 장군 활동지), 동창리 동성 나들목마을, 봉황문, 청호문, 둥태문, 성수문, 흩날문(조사결과)
- 문화 영역: 대미서소(동네문화재), 장명성, 원래문, 둥태문, 마을문, 왕성문, 고택, 데미서소, 데미서소
70) 무엇보다 이러한 데미샘 에코뮤지엄 개발 구상은 선도적인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손내옹기 제작자이기도 한 해당 주민은 마을문화조사단 단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
71) 현재 남계정미소(동학박물관), 동창정미소(벚꽃길과 연계한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시설), 덕현정미소(휴게소, 개방, 허브평판배), 평창정미소(향토박물관) 등의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다. 그 밖에 3개 정미소 외판정비 및 접근로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72) 그 밖에 문광부의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인 “Art in City 2007 프로젝트 기획안 공모”에도 참가 신청하였다.
<그림 4-6> 백운면 데미샘 에코뮤지엄 개발 구상도
3) 어메니티 발굴 주체를 양성하는 지방 거버넌스 실험

진안군 백운면 사례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독특함 자체도 참고할 만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원 발굴 과정 자체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방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지역 내에 의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활동을 벌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자원 발굴 과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주체로는 문화보다 공무원 조직인 진안군 정책기획단의 마을만들기팀을 들 수 있다. 마을만들기팀은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73)과 여러 정부 부처의 농촌개발사업

73) 으뜸마을 가꾸기는 진안군 정책기획단 주관 하에 2003년부터 운영, 면별로 1개 마을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농촌 마을개발사업이다. 2007년 현재 진안군 내 11개 마을에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제 4 장·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155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등을 오랜 기간 전담해서 추진해왔다.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위한 문제의식과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통합적인 농촌개발 기획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 진안군 정책기획단 마을만들기팀 운용 사례

 Crimson

자료: 구자인(2007)

마을만들기팀은 진안군 내 다양한 주민 단체들과 협력하여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이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활성화팀, 오름마을 대표들의 모임, 귀농인으로 마을간사(주로 오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마을) 및 마을사무장(농림부 지원 농산어촌 체험마을)으로 이루어진 마을간사협의회 등의 다양한 주민 모임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팀에서는 이들 단체를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마을간사협의회 활동을 조직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도시에서 귀농한 사람들을 마을간사나 마을사무장으로 임명하여 각종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이들을 협의회 형식의 네트워크로 조직하여 보다 폭넓은 지역 차원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2명의 마을간사 및 3명의 마을사무장으로 구성된 진안군 마을간사협의회에서는 특이한 활동의 사례를 〈그림 4-9〉에서 보여주고 있다. 마을사업의 제
반 업무뿐 아니라 마을 사원 조사, 지역 내-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9〉 진안군의 마을간사 역할과 사업 체계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군청이나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역할을 맡아온 이색적인 단체로 마을문화조사단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외부 단체인 (사) 생명의 숲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이며, 기획팀(3명)과 조사팀(5명)으로 이루어진 총 8명의 마을조사단원이 백운면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마을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옛날 사진들을 모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담아 마을 소식지를 매기적으로 배포하기도 한다. 또한 자원 발굴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도 있다. 진안군 마을 만들기팀에서는 이들 마을문화조사단의 활동이 자연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발전 비전을 모색하는 작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74)

74) 마을문화조사단 활동에서는 (사) 생명의 숲과 연결된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도 관계하고 있다.

자료: 구자인(2007)
<그림 4-10> 과거 다방이었던 건물에 개설한 마을조사단 사무실

<그림 4-11> 마을조사단에서 발간한 백운면 자원 조사보고서(좌)와 소식지(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통합된 활동이 백운면 어메니티 자원발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무엇보다 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주체로 주민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옛날 사진전이라든가, 주민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간판정비작업은 모두 자원 발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요체임을 실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4-12〉마을조사단이 주관한 백운면 옛날 사진 전시회 모습
3. 사례의 종합검토 및 시사점

1)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개성이 가미된 어메니티 개발

어메니티 자원 발굴 작업은 궁극적으로 볼 때 지역의 개성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개성을 살리는 것은 결국 문화적인 색채를 가미하는 작업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반드시 고급이거나 세련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메니티 자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홍미를 끌도록 자원과 연계되는 이야기(story)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의 과정에는 역시 농산촌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진안군 백운면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예컨대 방치되어 있는 옛 정미소는 다른 농촌에도 흔히 있는 별 것 아닌 자원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문화적인 색채가 가미될 경우 지역의 대표적인 매력요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특색 없는 면소재가로 경관 역시도 관심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들이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거리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지역의 개성과 문화적인 색채를 살리는 작업도 결국은 주민들의 의미 부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농산촌이라고 해서 어메니티 자원 개발이 반드시 전통문화에만 바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장르를 통해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진안군의 공동체박물관의 사진 전시회나 화천군 간동면 메뚜기축제의 ‘적은 음악회’, 토고미 마을의 논두렁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처럼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농산촌 마을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소득개발 일변도로 호르는 경향을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원 발굴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당연한 관심사임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문제는 그러한 작업이 근시안적인 시각에만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농특산물 등의 소득개발사업의 성패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과 얼마나 차별성 있도록
연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메니티 자원 발굴 과정은 반드시 관광자원 개발과 동일한 작업이 아닐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백운면의 면소재지 정비 작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이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우선 목표일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자연히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는 범이다.

2)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화천군과 진안군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사례에서 얻게 되는 다른 중요한 시사점으로는 바로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농산촌 어메니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아무리 가치 있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요소 자체로서보다는 그것은 타 자원과 연계됨으로써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법이다. 예를 들어 진안군 백운면의 데미샘이 섬진강 발원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화천군 간동면 메뚜기쌀의 경우도 그것이 마을축제 등과 연계되었을 때 더욱 명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메니티 자원 발굴 작업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무수한 자원들 중에서 산업화 가치가 특별히 높은 자원을 선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내어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이루도록 그 매개고리가 되는 중심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운면 에코뮤지엄 만들기 구상과 같이 나름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어메니티 자원들 간에 네트워킹을 이루도록 개발하는 노력이 그 예라 하겠다. 탐방코스 개발(예: 정미소 네트워크)이나 축제 개최(예: 메뚜기축제) 등의 시도를 통해서도 그처럼 어메니티 자원들 간 연계 프로그램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3)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발굴 주체의 역할

화천군과 진안군 사례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자원 발굴의 과정에서 주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어메니티 자원 발굴 과정은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여러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경우 전국 농산촌에 걸쳐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판단할 만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나 지역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라는 자원 발굴 과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자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농산촌 주민들과 지역 구성원인 것이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어메니티 자원을 찾아내고 가꾸는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사례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진안군의 정미소를 겸한 공동체박물관에서 “계남마을 사람들”을 주제로 한 개관전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오래된 사진들이 문화작품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바 있는 것이다. 면 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터전이 이색적인 명소로 변모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원 발굴 과정에서 주민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원래부터 농촌 마을에 살던 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외부의 전문가, 도시에서 이주한 귀농인 등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라 하겠다. 요컨대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의의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나 공통점을 등을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전문가 등의 공동 작업 과정을 통해 상호 학습과정을 거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자원 발굴 및 보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 자체는 지역에 기반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안군의 경우 신활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주체들의 모임을 개설하여(오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마을별 대표 모임, 마을 간사 모임 등),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킨 마을문화조사단 등의 활동도 이와 관련하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발굴에 관한 일련의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비정부, 비영리 기구 성격의 조직 이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사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바탕해서 민간기업이나 다양한 단체 등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행정조직의 파트너로 활동하느냐가 어메니티 관련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5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관련 정책지원 실태와 문제점

이 장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창출과 관련한 국내 정책지원 현황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은 주로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추진·지원되고 있는데, 정책 수단 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촌 주민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1.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지원 현황

이하에서는 현재 정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촌의 어메니티 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넓게 보자면 농산촌의 마을 단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줄이면서 사업의 용어나 내용 등의 측면에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보다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크게 보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다음 4가지 사업을 어메니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농림부의 추진사례과 지원 현황

(1)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5)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 농산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넓게 보면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발굴 정책 방면에 들어갈 수 있다.
농림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경관보전 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마을의 계획을 심사·평가한 후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 기간은 3년(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1년 단위 협약)이며 직불금은 연도별로 경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단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관보전 직불제의 대상 지역은 전국의 면 단위의 마을(법정리)로 농가비율이 50% 이상인 농촌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라고 정의된다. 특히 경관작물을 식재한 면적이 1ha 이상으로 집단화되며 동시에 마을 단위로 3ha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170만 원을 소득소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경관보전직불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는 대상 작목 범위를 넓히고 사업 대상 면적을 확대하였는데, 2005년과 2006년에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아황동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올해부터는 연과 자운영을 추가하였고, 사업 대상 면적을 지난해 470ha에서 올해 800ha로 확대한바 있다.

농림부에서 경관보전직불제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꽃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이 늘어나는 등 도시민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경관

76) 고창 공음면의 메밀축제(05), 부안면 국화축제(05), 정읍 해바라기축제(06), 남원 혼분화축제와 유채축제 연계 등이 개최된 바 있으며, 마을 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화 시기에 맞추어 전국의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전직불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어메니티 정책 차원에서 지니는 문제점은 무엇보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창출하는 사업이 되기보다는 다수의 마을에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활동 보조금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까닭에 상당수 사업지구에서는 지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한두 해 경관직불금을 지원을 받은 후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표 5-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량 (ha)</td>
<td>7,000</td>
<td>470</td>
<td>470</td>
<td>800</td>
<td>7,000</td>
</tr>
<tr>
<td>사업비 (억원)</td>
<td>계</td>
<td>481</td>
<td>8</td>
<td>8</td>
<td>14</td>
</tr>
<tr>
<td>국고지방비</td>
<td>337</td>
<td>144</td>
<td></td>
<td></td>
<td></td>
</tr>
<tr>
<td>2006년에 16억5천만 원을 한국농촌공사가 집행하여,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건립·전시를 통한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홍보 및 보급 추진하는 데 투자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은퇴 도시민, 농산어촌 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 국내외 건축가들의 지명초청전 및 작품설명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 대상 농산어촌 경관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농산어촌 경관주택관리 심포지움 등이 실시되고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 농촌진흥청의 추진사례과 지원 현황

(1)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
농촌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촌지역종합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한편 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자원화·소득화하는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적으로는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의 계획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농촌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은 9유형 중 3유형에 대해 제시되었으며, 77)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반형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개발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개발,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시각화 기법 개발 등의 사업 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한 기관의 계획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사업 성격이 강하며, 농촌 허양에서 농촌 주민의 인식을 바꾸거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 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

(2) 농촌진흥청의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사업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연구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 기간은 2006~2009년까지 4년 간이며,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의 연계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농림부)과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농진청)이다. 개념상으로는 향토자원 DB 구축을 통해 농림부의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과 연계시켜 지자체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농진청 자체 사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그림 5-1>은 이러한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체계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77)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생태형: 자연생태와 수려한 경관 특성화(화천군 동촌권역)
    - 역사문화형: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마케팅사업 전개(강화 읍내권역)
    - 농업문화형: 농업문화 가치(삶의 터전, 교육, 경제 등) 실현(강화 외포권역)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발굴・DB화하는 작업을 농촌진흥청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 자원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식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큰 가이드라인 제공의 관점에서 표준화된 조사 방법이나 틀을 제시해주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자원 조사와 발굴, DB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작업 중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메니티에 대한 합의된 정체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농촌 마을의 거의 모든 것을 어메니티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메니티가 무엇인지 오히려 애매해지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3) 근간 도입될 예정인 사업

농림부는 2006년도에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2006년 12월)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농촌경관지표, 경관계획, 경관개선사업을 비롯해 어메니티적물체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서 마련되어
1.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전략 연구

이처럼 경관대책의 일부로서 어메니티가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어메니티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이다. 군이 어메니티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을 꼭이라면 많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메니티와 관련된 정책이 뚜렷치 않은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보다 종합적 차원의 어메니티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위상 확보, 관련되는 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2. 현행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관련 정책 수단의 제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 창출, 활용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 수단이 적절히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OECD(1999) 보고서에서는 대체로 공공재적 속성을 지니는 농촌 어메니티의 관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정책 유형을 ① 어메니티 시장 촉진 ② 집단 행동 촉진 ③ 규제 정책 ④ 인센티브 정책 ⑤ 기타 정책 등 78)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정책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농산촌 어메니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한 유형의 정책 수단에 기대기보다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 정책 처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OECD에서 제시한 정책 유형에 착안하여 국내의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 수단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

- 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 촉진: 농특산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지원 정책, 농산촌 체험관광 개발 정책 등
-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가치 창출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경관작물에 대한 보급, 보전직불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지불제 등이 해당

78) 해당 유형별 세부 정책 사례에 대해서는 부록표를 참고하라.
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관련 정책지원 실태와 문제점

제5장

- 어메니티 자원 보전을 위한 법률적 규제, 경관법 및 각종 개발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 기타: 각종 대국민 홍보, 이벤트 등

〈표 5-2〉 어메니티 형성을 위한 OECD의 정책 유형 예시

<table>
<thead>
<tr>
<th>정책 유형</th>
<th>의의</th>
<th>정책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strong>어메니티 시장 촉진</strong></td>
<td>어메니티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장 기대가 어메니티 공급자와 수혜자 간에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방법</td>
<td>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정지를 통한 어메니티 이용 권 시장 형성, 특정 어메니티와 관련된 라벨 부착 상품(labeled products) 시장을 촉진시키는 등의 인증제도(예: 자 리적 표시제), 어메니티를 산업적으로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농촌 기업들에 대한 지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상품화 지원</td>
</tr>
<tr>
<td><strong>집단 행동 촉진</strong></td>
<td>어메니티의 공급 및 수요와 관련되는 행위자의 집단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td>
<td>집단 행동이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돌 경계, 집단 행동 촉진을 위해 경연(contest) 방식 등을 통 한 인센티브 정책,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농민단체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한 직접 지원</td>
</tr>
<tr>
<td><strong>규제 정책</strong></td>
<td>기존 소유권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하거나 재한</td>
<td>보호지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용도 재한, 토지 유보 등</td>
</tr>
<tr>
<td><strong>인센티브 정책</strong></td>
<td>어메니티 공급에 대한 보상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세</td>
<td>어메니티를 공급하기 위한 직접지불, 어메니티생산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생산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어메니티를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토록 요구하는 교차준수(cross-compliance)</td>
</tr>
<tr>
<td><strong>기타 정책</strong></td>
<td>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어메니티들 간에 연계를 이루고 행위자들 간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 역할,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생산활동의 부가가치 증대와 동시에 어메니티 가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 전파와 기술 연구</td>
<td></td>
</tr>
</tbody>
</table>


이상의 분류에 비추어 국내 어메니티 관련 정책 특성을 점차보면, 다양한 유형의 어메니티 자원 관리 수단이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수단에 한정되어 어메니티 자원 유지 보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개별 주체들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 상품화 방식이 관련 정책 수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상품화 방식만이 어메니티 관련 수단의 전부일 수는 없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어메니티 보전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단도 활용할 수 있으.
며, 토지이용규제 등 법률적인 규제수단도 어메니티 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런데 국내의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수단은 주로 농촌관광이나 농특산물 개발 등과 같이 관련 자원을 상품화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데 치우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어메니티 상품화 시도 자체도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여러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농촌관광이나 농특산물 개발 관련 사업들이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사업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등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었으나 큰 성과를 낼 사례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부 정책 수단은 인센티브 관련 정책은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 수단들에 의한 규제 방식의 정책 수단 역시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토지이용규제가 있으나,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미비하다고 말할 수 있다.<그림 5-2>에서는 이처럼 어메니티 관련 정책 수단 제한이라는 문제를 연대별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내용 변천사와 더불어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기회 증진을 위한 소득사업이나 생활환경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경관 관련 사업 등 어메니티 관련 사업은 그리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어메니티 자원이 지역차원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전한 것은 보전하고, 그 가치를 제고할 것은 제고하며, 상품화할 것은 상품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진청의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사업이나 농진청의 향토자원 조사, 발굴 및 DB 구축사업 등을 비롯한 현행 어메니티 관련 정책은 자원 조사, 발굴 작업에 그치고 있으며 후속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이다.
제5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관련 정책지원 실태와 문제점

<그림 5-2> 주요 농촌정책 사업의 연대별 변화 상황

2) 지자체의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관련 계획 미비

어미한 특징적인 어메니티 자원을 매개로 하여 농산촌의 제반 자원들을 연계 개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례 조사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보전.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지자체 차원의 계획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진안군 백운면의 에코뮤지엄 개발 구상 같은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 활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계획제도가 미비한 것이다. 예컨대 농촌 지역개발 관련 제반 사업들을 연계하여 담도록 되어 있는 삶의질특별법에 의한 삶의질향상계획은 농산촌을 무대로 추진되는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한 데 모아놓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보니 관련 사업이 짤임새 있게 연계되지 못하고 난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림 5-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정부부처 단위에서 분산적으로 시행된 농촌개발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효과적인 통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통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관련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에 관한 구상이 나름의 실천수단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일부 지자체에서 수립한 어메니티 관련 계획의 경우도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림 5-3> 농촌개발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
3)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 과정에서 주민의 역할 미흡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이 바탕을 이루어치는 것이 자원에 대한 가치 부여 과정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이나 DB 구축 등과 관련된 최근의 사업들의 경우 전문가들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주민참여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어메니티 자원들 중 **쌀, **마을, **전설, **축제, **나무 등과 같은 유무형의 소재들이 대개 전문가들에 의해 추출되고 어떤 것이 중요할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전문가 역시 그 지식 수준이 다양하고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도 상이하며 농산촌 주민 에 비해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없어 이런 방식의 자원 발굴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개별 요소로 분해된 자원 발굴 작업을 통해 가려낸 자원은 지역의 대표자원으로서 가치를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몇몇 자원을 선별해 내는 데 주력하는 전문가 주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메니티 자원들 간의 연계를 이루도록 도모하는 일이 효과적인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사례연구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물론 이처럼 자원들의 연계를 이루는 작업은 다양한 주민과 지역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의 목표와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원칙을 제시한 후,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농산촌의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정책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어메니티 자꾸기에 참여할 주체를 양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1.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의 전제

1)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의 목표

(1)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의 의의
어메니티 자원은 농산촌 지역이 국토 공간상에서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의 밑바탕을 이루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 활용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은 농산촌의 공익적인 역할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소득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점점씩히 농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발견해가는 일련의 활동 속에 농산촌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원의 발굴과 보전을 위한 공동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새로이 발견하고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농산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다. 기존의 농산촌 지역개발
정책은 주로 하드웨어 기반 정비, 소득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탓으로 어메니티 자원이 훼손되거나, 미발굴되거나 혹은 농산촌과 어울
리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거나 그 가치가 평가 철저히 활용되지 못하는 등
의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점에서도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의 목표

농산촌의 어메니티의 발굴과 창출을 위한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에 어메니티 관련 정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일상생활 터전의 개선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농산촌 어메니티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타 부문
에 비해 소득개발에만 최우선으로 배정하면서 농산촌 생활터전을 펴자하게 가꾸
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기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생활공간을 펴자하게 가꾸어가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터전을 가꾸는 작업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어
메니티 자원이 지니는 가치를 농산촌 주민들 스스로가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하
는 일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장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도록 하는 데 어메니티 자원이 매개 역할을 하게끔
이끄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의 두 번째 목표로서, 자원의 발굴과
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드고자
한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부여와 활용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할 발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주민의 지속적 활동이 없이는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
제6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지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여러 구성원들이 동참하여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공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정책적인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다.

셋째로,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의 추진을 통해 농산촌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원 간 연계 개발의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어메니티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어느 한두 가지 어메니티 요소에 대해 관리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 및 관련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아무리 가치 있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요소 자체로서보다는 그것이 다 자원과 연계됨으로써 더욱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를 이루도록 그 매개고리가 되는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테마 하에서 농산촌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들을 연계·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굴된 다양한 자원들은 당장은 활용되지 않더라도 지역개발 자산 목록 (development repertoire)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는 이후에 다양한 경로의 농촌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지역 차별화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메니티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농산촌 지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농특산품이나 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차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제품 자체에 지역 어메니티 자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부여할 것이 요구된다.
2)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원칙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이 원칙이다.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실제 정책 사업화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의 상품화 과정까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의 특질이 반영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공공 부문에서 담당할 과제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역점을 둘 일은 계획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 보전과 활용에 초점을 둔 농촌개발의 추진을 유도하는 일이다. 즉 중앙정부 주도로 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을 위해 엄격한 지침에 의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 단위에서 조그맣게 하는 일들은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단위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과 농촌 어메니티의 가치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관련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만드는 일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세력의 역할도 필요하다. 농산촌의 다양한 자원들은 찾아내고 가꾸는 사업을 지자체의 행정공무원이 일선에 나서서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자원 역할을 할 만한 민간 조직을 양성하고 주민들과 연계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자원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창출을 위한 전략

1) 농산촌 어메니티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현재 지자체의 농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계획이나 사업이 난립하고 있으나 막상 어메니티 요소가 그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농촌발전 비전에 입각하여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보전,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농림부의 경우 부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사업 등을 해당 계획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식으로 유도 수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전안군 백운면에서는 지역 어메니티 자원이 기반이 되는 에코뮤지엄 구상을 실현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을 중장기간에 걸쳐 지원 받아 시행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그림 6-1 참조).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된 이러한 어메니티 자원 개발 구상이 나름의 비전을 지니고 있으며 공익 측면에서 보탬이 된다는 관점이 서게 될 경우 정부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79)

---

79) 농림부에서는 농촌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장기 경관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지원 시도를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전반으로 보다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안군의 경우에도 보았듯이 이러한 지방 차원의 계획 수립 과정에는 당연히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와 발굴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지역 자원 발굴 작업에 그치지 않고 후속의 지역개발사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역할 부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원 발굴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지원학 등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사례>

오가와무라의 지원학 실천 과정

1) 사전준비 및 지원학 설명회: 지역주민 등 참가자들은 조사범위, 방법 등을 서로 상의하며 전문가로부터 지원학 설명

2) 조사 실시: 그룹(7-8명 정도)별 조사 실시

3) 조사결과 정리: 지역자원 카드, 지역자원 그림지도 등 작성

4) 발표 및 토론: 조사결과를 가지고 발표회, 토론회

2) 다양한 방식의 정책 수단 확대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국내의 정책 유행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바가 있다. 향후에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 등을 위해 시장 촉진, 인센티브 제공, 규제 적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폭넓게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가능한 몇 가지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 사업에 어메니티 보전·창출 고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종합개발사업부터 소규모 데마파크조성사업에 이르는 단위 사업까지 농산촌 어메니티의 보전·창출을 고려해야 할 사업은 매우 많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적 편의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농촌지역개발정책 사업에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가치 창출이라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등에 반영하는 작업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림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사업의 경우 기능적인 효율성만을 중시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조성되는 사례들이 빈번했는데, 지침을 통해 이러한 사업도 어메니티를 감안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기술적 장치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의 사업 도입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보전·활용 작업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토록 유도하는 데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방식의 사업으로는 경관보전작물제가 유일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 유형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 경관보전작물제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주민들이 더욱 다양
한 경관관리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관작물 식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해당 작물이 개화하는 특정 시기에만 농촌 경관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경관보전직불제를 현행과 같이 시행하면서 농촌의 주택, 돌담, 마을 공동공간 등과 같이 작물 이외의 물리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의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관보전직불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타 활동 간의 적극적 연계를 유도하는 일도 필요하다. 경관관리 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① 경관 개선의 일환으로 별도 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과 ② 비교적 적은 액수의 지원금만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분가능한 것인데, 경관보전직불제와 병행하여 후자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전자와 같이 여러 가지 농촌 경관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원의 파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사업지구 단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제반어메니티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산촌 경관협약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관협약이 도입될 경우 경관작물 식재 지원책도 이러한 지구에 연계되는 경관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추진될 것이며, 경관보전직불제의 한계에 따른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 조성 등을 위해 별도의 경관개선사업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유연한 공모사업 등의 방식으로 어메니티 자원 발굴·보전·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정해진 사업지침에 의해서는 아니라 어메니티 관련 활동의 내용과 주민들의 참여폭 등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인 수도 있다. 진안군 백운면 간판 정비와 가로경

---

80)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어메니티직불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메니티, 경관 등의 용어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데도 여러문의 있는 상황이다.
관 디자인 사례도 2007년 문화관광부의 공모 방식 사업인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 컨설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토지이용 관리

토지이용관리에서 규제와 인센티브 방식이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지이용 법규는 대개의 규제가 주로 고유 목적을 지니고 있는 개별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특별히 초점을 둔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지구의 경우 규제로만 인식되어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 거의 지정되고 있지 않으며, 조례에 입각한 토지이용 관리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와 합리화 보전해야 할 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건 없는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 지원의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이 시행된 지구와 연접해서 이루어지는 계획 없는 개발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시 농촌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에 입각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경관사업이나 각종 지원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관리와 관리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농촌경관지구 지정은 지자체의 전체 어메니티 자원 활용 계획과 연계 하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의 공무원 조사 결과 <표 6-1>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농촌 경관지구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서 각종 경관사업이라든가 조례 등의 수단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 바 있다(성주인, 2005). 특히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들을 다양하게 연계하는 것이 경관지구의 지정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6장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187

<표 6-1> 농촌경관지구의 관리 수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담당업무 구분</th>
<th>전 체</th>
</tr>
</thead>
<tbody>
<tr>
<td></td>
<td>도시. 지역계획</td>
<td>농정</td>
</tr>
<tr>
<td>제2종지구단위계획</td>
<td>25.0</td>
<td>19.7</td>
</tr>
<tr>
<td>경관 관련 조례</td>
<td>37.5</td>
<td>19.7</td>
</tr>
<tr>
<td>주민들이 체결한 경관협정</td>
<td>5.4</td>
<td>22.7</td>
</tr>
<tr>
<td>농촌개발 관련 경관사업</td>
<td>32.1</td>
<td>37.9</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농촌개발(농정) 및 경관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성주인(2005)

(4)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대를 위한 홍보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발굴·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과 지원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결국 농산촌 어메니티 분야 자원에 대해 국민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이벤트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언론 및 대중매체나 각종 출판물 등을 활용한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 보전 활동의 공익적으 로 많은 보탬이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법규적인 인식에 관해서도 정례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도시민의 농산촌 체험관광 수요나 농촌 정주 수요 등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어메니티 자원 상품화를 위한 기반 마련

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 자체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주로 담당하는 작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자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공공 부문에서는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주체들의 공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농특산물의 품질이 어떠한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법을 보면, 형식적인 지정에 그치는 사례가 많으며 제품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다 엄밀한 품질관리와 생산지 관리 등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교육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어메니티 연계 제품에서 생산자 공동의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3)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양성

공공부문 일변도의 어메니티 자원 보전 활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수요, 새로운 주제의 출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공공부문 단독으로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책에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획·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이외에 다양한 사업 주체가 연계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산촌 자원 발굴, 보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현장의 파트너를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진안군의 마을간사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살펴본 바 있듯이, 시·군 단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집행 조력자 그룹을 현장 파트너로서 양성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업 주체가 단일 프로젝트 기반으로 생성·소멸되기 보다는 지역 내의 활동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81)

참고로 S군에서는 지역의 통합적 사업 기획과 조정,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 회사를 지역에 유치한 바 있다. 이들은 당초 목적과 같은 활동은 물론 협력 과제에 주민 및 공공기관 교육,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간 통합 방안 제안, 공동체 카페 개설, 귀농·귀촌자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81) 참고로 S군에서는 지역의 통합적 사업 기획과 조정,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 회사를 지역에 유치한 바 있다. 이들은 당초 목적과 같은 활동은 물론 협력 과제에 주민 및 공공기관 교육,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간 통합 방안 제안, 공동체 카페 개설, 귀농·귀촌자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88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나아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 등으로 발전하여 지속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안성시의 의료생협 등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보건의료 관련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공공 부문과의 밀접히 연계되기보다는 외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경우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이러한 지역 내 어메니티 관련 조직이나 대안적 기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농산촌 어메니티의 특징과 자원 발굴 사례, 정책 실태 및 과제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이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1.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농산촌 분야에서는 농업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어메니티 자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공간개발 분야에 어메니티 개념이 도입된 것은 근대화 이후 산업도시가 갖는 폐단을 치유하려는 목적이 컸던바, 공간계획에 활용할 하나의 원리로서 어메니티 개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농산촌 분야에서는 공간계획 원리로서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어메니티의 가능성으로 더욱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농산촌 어메니티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규정이나 통일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관심이 앞서서 증폭된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인 논의의 뒷받침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농촌개발 실무 차원의 어메니티 논의만 확산된 결과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을 위한 시도가 곧 농촌관광 개발 연장선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주민 조사 및 사례 연구 등에 바탕을 두어 농
산촌 어메니티의 개념을 다시금 짚어보고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접근법이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농산촌 분야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 보전, 창출하는 제반 활동들이 활성화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농산촌 어메니티가 갖는 특성과 자원 현황에 대해 기존 연구와 농산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파악해보았다. 둘째로, 사례지역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했다. 셋째로, 현재 농산촌 어메니티 개발과 관련되는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농산촌 주민들의 인식 현황 및 특성

우선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농산촌 주민들은 고장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농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가며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 농산어촌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메니티 자원이 농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가꾸는 사업에도 주민들은 높은 참여의향을 나타내었다.

농산촌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다양한 자원들을 편의상 ① 자연자원, ② 문화자원(역사 및 문화 자원), ③ 사회자원(경제활동 및 공동체 자원)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집계한 결과 자연자원, 경제활동자원, 공동체자원 등의 순으로 응답 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민들 상당수는 자연자원 중에서도 맑은 물, 좋은 공기, 비옥한 땅 등을 고장의 어메니티 자원이라 답하고 있어, 많은 응답자가 자기 지역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자원보다는 전반적인 자연환경이란 막연히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는 19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경향이 보이기도 했다.

농산촌 주민들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여기는 것들은 주로 거주하는 마을 일대 권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향후 어메니티 관련 정책 추진 시 주민들의 생활터전 주변의 자원 발굴. 보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알라주는 조사 결과였다.

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사례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을 유형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개념 분류를 위해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는 법이다. 실제 어떠한 자원은 단독으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자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의 실제 모습을 고찰하고자 했다.

사례 연구는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권 마을 및 진안군 백운면 일대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경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마을 권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자원 개발 사례이며, 후자는 나름의 테마에 기반하여 면 단위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려는 시도이다. 어메니티 자원이 농산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치를 발현하도록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를 사례에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마을 대표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다.

화천군과 진안군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어내었다. 첫째로, 어메니티 자원 발굴 과정은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여러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었다. 농산촌에서 어떠한 자원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평가할 기준은 없으며, 주민들이나 지역 구성원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깨달아가
계 되며, 이는 다른 활동을 벌여내기 위한 발단이 되기도 한다. 진안군의 사례처럼 엣지 장비소를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면소재지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는 활동들이 그러한 주민 참여의 바탕 위에 진행되었다.

둘째로,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농산촌 어메니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은 아무리 가치 있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개별로 개별유소 개별자로서 보다는 그것이 합쳐져서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법이다. 화천군 간동면 메뚜기쌀의 경우처럼 그것이 마을 축제 등과 연계되었을 때 더욱 명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진안군 백운면의 예로 류지 않으 면소재지 구상에서도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어메니티 자원들 간에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세번째로,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은 지역의 개성을 살리도록 자원에 문화적인 색채를 가미하는 작업이다. 별 것 아닌 자원이라 하더라도 문화적인 색채가 담겨지도록 만다면 지역의 대표적인 매력요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를 진안군 백운면의 면소재지 가로 경관 가꾸기 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의 개성을 복돋우는 작업에는 외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역시 주민의 참여와 노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3)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우선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농산촌 어메니티 분야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 수단이 동원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경우 관련 정책 수단 자체가 주로 농촌관광이나 농특산물 개발과 같이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통합적인 태마를 가지고 관련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관련 계획 제도가 미비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로,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이나 DB 구축 등과 관련된 최근의 사업들이 대개 전문가들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주민참여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전문가 주도의 자원 발굴 작업에서는 어메니티 자원들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가치가 있을 만한 몇몇 자원을 선별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에서 역점을 두 목표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소득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터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농산촌 어메니티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로, 자원의 발굴과 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의 기반에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농산촌 어메니티 정책의 추진을 통해 농산촌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원 간 연계 개발의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넷째로, 어메니티 자원을 지역 차별화의 소재로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 활용 등 일련의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주도의 어메니티 보전 활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벌여야 하였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도 역점을 두는 계획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 보전과 활용에 초점을 두는 농촌개발에 주점을 두는 작업이다. 지자체 차원의 농촌발전 비전에 입각하여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보전,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지침에 의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 단위에서 조그만게 하는 일들은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도록 공모사업 방식 등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 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토록 유도하는 데는 인센티브 방식의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예전대 현행 경관보전마법제 확대하여 농촌의 주택, 돌담, 마을 공동공간 등과 같이 작물 외의 물리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의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을 위해 시장 촉진, 인센티브 제
공, 규제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수단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토지이용관리에서도 규제 방식과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필요시 농촌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지자체의 전체 어메니티 자원 활용 계획과 연계 하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지역 단위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과 농촌 어메니티의 가치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관련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농산촌의 어메니티 자원 보전 활동이 공익적으로 많은 보탬이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관리에 주도적인 주체가 농산촌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전적으로 농산촌 주민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때로는 그것을 동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원 세력이 필요한데, 이처럼 지원 역할을 할 만한 민간 조직을 농촌정책의 현장 파트너로서 양성하고 이를 주민들과 연계시키는 등의 활동은 지자체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 간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주제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메니티의 재범 측면들 중 일부에 주된 논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이다. 어메니티 개념은 일상생활 공간의 계획원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농촌 부문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이라는 의미가 특히 강조되었다는 점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연구 역시 자원으로서 어메니티를 발굴하고 보전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어메니티의 다양한 측면들을 폭넓게 포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제약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농산촌의 어메니티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어메니티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얻는 난개발 문제로부터 농촌의 쾌적함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때로는 대규모 도시개발의 경우처럼 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어메니티 보전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농산촌 어메니티 보전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농촌개발 분야에만 한정해서 다를 수 없는 주제까지 포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몇 개 연구 기관들이 분야별로 분담해서 진행한 협동연구의 일부로서 진행되었기에 농산촌 어메니티 부문을 넘어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농산촌의 쾌적함을 지켜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행 농촌 토지이용제도와 공간계획제도의 제한 점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마련이다. 최근의 어메니티 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점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이 연구 역시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공간 단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어메니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를 하면서 마을이나 면 등 농산촌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상생활 터전 중심의 어메니티 자원 개발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농산촌 어메니티를 가꾸고 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어메니티 정책과 사례에 대해서는 값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사례 연구의 단위가 시·군 지자체로 맞춰질 경우, 알려지지 않은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지명도를 갖춘 어메니티 요소를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를 비롯해서 한층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셋째,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평가 문제이다. 농산촌 개발의 관점에서 어메니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일관되게 견지한 주장이었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촌 어메니티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 시도들은 농촌 어メ니티를 소비재(Consumption Goods)로 이해하고, 소비자(혹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어메니티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 농산촌 어메니티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법까지 포괄해서 문제를 다룬다면 한결 풍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농산촌 현지 주민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어메니티 요소와 방문객이나 도시민들이 높게 평가하는 농산촌 어메니티 요소 사이에 어떤 점이 합치되고 어떤 점이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는 것이다. 농산촌의 어메니티 정책은 어느 한편이 아니라 농산촌 주민들과 도시민(또는 일반 국민) 양자를 아우르는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생명의숲 마을조사단 진안팀. 2007. 『생명의 숲 진안군 백운면 마을조사단 보고서』.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송미령. 성주인. 박경철. 2006.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 문헌 199
파로호권 농촌어업종합개발 추진위원회. 2006. 「과로호 권역 농촌어업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2006. 「2006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결과보고」.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2007.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결과보고」.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by OECD.
김정섭·오현식(역).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http://www.goparoho.com/main.html
부록

부록 201

1. 농산촌 자원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표

1. 선생님의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 통신원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령 및 성별: (        )세 남/여
   • 주 소: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농업 규모: 소유 농지 (        )평, 임차 농지 (        )평
   • 마을 거주 기간: _________년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살고 계신 마을은 다음 중 어떠한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까? (       )
   ①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마을
   ② 관광지와 가까워 외부 방문객이 많이 지나가는 마을
   ③ 농사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④ 교통이 불편하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오지 마을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선생님께서는 농산촌의 생활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1. 농산촌의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보람 있게 사는 길이다. (       )
       ① 매우 공감한다  ② 대체로 공감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부록 201
3.2. 때묻지 않은 자연이나 전통문화 등과 같은 농산촌 자원이 갖는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     )
   ① 매우 공감한다  ② 대체로 공감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 선생님께서는 현재 사시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마을의 도로나 주택, 상하수도 등 낡고 안 좋은 시설을 개선한다
   ② 마을의 자연 풍경과 농촌다운 모습을 잘 살려서 이름답게 가꾼다
   ③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을 개발한다
   ④ 도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체험장, 음식점 등을 조성한다
   ⑤ 마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갖도록 교육, 학습 기회를 준다
   ⑥ 기타

5.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고장에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좋은 자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각각의 자원별로 선생님 고장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들을 생각나시는대로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자원이라도 좋으니 가능하면 각 문항별 자원을 3개 이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1. 좋은 자연환경 자원 (예를 들어 산, 냇물, 저수지, 습지, 좋은 공기, 맑은 물, 야수, 비옥한 땅 등 자랑할 만한 자연자원)

5.2.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유의 동식물 (예를 들어 산짐승, 물고기, 새, 희귀한 곤충, 오래된 나무, 꽃, 풀 등)

5.3. 우리 고장만의 특색 있는 경치 (예를 들어 다락논, 전통주택, 홀담 및 돌담, 특색 있는 가로수길 및 꽃길 등)

5.4. 오래된 문화재 (예를 들어 절, 누각, 정자, 서원, 항교, 성곽, 성황당, 기념비 등)

202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5.5. 우리 고장 고유의 음식과 특산품 (예를 들어 마을의 향토음식이나 전통주, 도자기·옹기·목기·종이·천연옷감 등 공예품)

5.6. 주민들을 결속하는 지역 공동 행사나 공동체 활동 (예를 들어 고장의 고유 축제와 주민 행사, 풍물놀이, 계·품앗이 등 마을조직의 공동 활동 등)

5.7. 대대로 전해온 전설과 설화 (예를 들어 제미있는 전설·설화나 우리 고장 만의 이야기거리, 신화 등)

5.8. 고장에서 나고 자라거나 활동한 내세울 만한 인물 (예를 들어 위인이나 지명한 학자, 문인, 화가, 음악가 등)

5.9. 특색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 도시민들이 과일 수확·채소 재배·농사 및 농촌 생활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5.10. 마을 및 지역의 주민 공동체시설 (예를 들어 마을회관, 복지회관, 문화회관, 마을 식터, 공원, 도농교류시설 등)

5.11. 그 밖에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랑할 만한 특색 있는 자원

6. 다음은 선생님께서 답하신 농산촌 자원들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6.1. 앞에서 답하신 자원들 중 선생님의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세 개까지만 써주십시오.

( ), ( ), ( )
62. 앞에서 답하신 자원들은 다음 보기 중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까? (  )
① 현재 내가 사는 마을 일대
② 내가 사는 마을과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는 권역
③ 내 마을이 속한 읍이나 면
④ 내 마을이 속한 시나 군
⑤ 현재 사는 시·군을 넘어서 인접 시·군까지 포함한 지역

7. 선생님의 마을에서 농촌의 자원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십니까? 보기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골라 아래에 써주십시오.

(   )
① 마을에 얽힌 역사나 자연 등 내가 아는 정보를 각종 사업 과정에서 제공한다
② 마을 가꾸기(청소, 꽃 가꾸기 등)나 행사 등 공동의 일에 일손을 준다
③ 도시민들을 위한 농사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④ 민박 등 숙박시설 운영 및 음식 판매 등 마을 방문객 대상 사업을 벌인다
⑤ 마을 거주자를 위한 주민 대표조직의 운영에 참가한다
⑥ 마을의 공동시설 관리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돕는다
⑦ 내가 사는 주택 외관이나 지붕이나 담장을 단장하고 개량한다
⑧ 기타

8.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마을 조직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은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   )
① 마을 이장 ② 새마을회장 ③ 작목반장 ④ 부녀회장
⑤ 청년회장 ⑥ 친목계 등의 회장 ⑦ 기타
⑧ 별다른 직책을 맡은 적 없다

♠ 이성입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 3편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전략
차 례

제1장 연안 어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 ........................................... 213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개념 ......................................................... 213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공간적 범위 ........................................ 213
   2)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개념적 경계 .......................................... 214
2.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특징 ........................................................ 214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특성 ...................................................... 214
   2) 연안·어촌이 갖는 고유성(固有性)으로서의 특질 .......................... 215
   3) 비가역성(非可逆性)으로서의 특질 ............................................ 215
   4) 불확실성(不確定性)으로서의 특질 ............................................ 215
   5) 비경합성(非競合性)으로서의 특질 ............................................ 215
   6) 비배제성(非排擠性)으로서의 특질 ............................................ 216
   7) 한계성(限界性)으로서의 특질 ............................................... 216

제2장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방법과 사례 분석 ..................... 217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분류 ................................................. 217
   1)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 217
   2)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 분류 ............................................ 218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사례조사 .................................... 219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분류에 따른 사례 유형 ...................... 219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개요 .......................................... 219
   3)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 220
제3장 국내외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와 시사점 .......................... 225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 ................................................................. 225
   1) 서천군의 씨푸드 클러스터 구축 사례: 서천 김 공동브랜드 .................. 225
   2) 일본 아이즈의 해양심층수 활용 사례 ......................................................... 227
   3) 순천시의 순천만 보전·활용 사례 ............................................................... 229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 시사점 ......................................................... 231

제4장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지원 실태와 문제점 ................................................. 233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지원 실태 ................................................................. 233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지원 실태 ............................................................. 233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지원의 문제점 ........................................................... 237
   1) 지역적 창의성과 특성반영 미흡 .................................................................. 237
   2) 집행주체의 다양화·분산개발에 따른 비효율성 ............................................ 237
   3) 연안·어촌 어메니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 ..................... 237

제5장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전략과 정책 과제 ............................................. 239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 ................................................................. 239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의 기본방향 ..................................................... 239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241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 241
   2) 수산보전체 .................................................................................................... 243
   3) 시장형성 및 교류활성화 유도 정책 ............................................................... 245
   4) 규제 정책 ....................................................................................................... 247

참 고 문 헌 .......................................................................................................... 249
부 록 ......................................................................................................................... 251
표 차 례

<표 2-1>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 217
<표 2-2>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분류 .................................................. 218
<표 2-3>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국내사례 .............................. 219
<표 2-4>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성문조사 결과) …… 221
<표 2-5> 순천만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주민설문 조사결과) .............. 222

<표 3-1> 순천만 갈대축제 프로그램 ......................................................... 230
<표 3-2> ‘2006 순천만 갈대 축제 1인당 축제 지출비용 ............................. 231

<표 4-1> 농림어업인살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세부추진과제 …… 235
<표 4-2> 농림어업인살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추진과제 현황 …… 236

<표 5-1> 공익적 기능 수산보전재 ............................................................... 245
<그림 1-1> 연안어촌의 공간적 개념 .................................................. 213
<그림 1-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특징 .............................................. 216

<그림 3-1> 서천 미작(브랜드 네이밍)과 포장 사례 ........................................ 226
<그림 3-2> 해양심층수 활용 사례 .......................................................... 228
<그림 3-3> 아쿠아 이이즈 전경 및 내부시설 ............................................. 228
<그림 3-4>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상품 ..................................................... 229

<그림 4-1>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례 ........................................ 234

<그림 5-1>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의 기본방향 ................................. 240
<그림 5-2> 연안어촌 어메니티 계획화(0.5차 더하기) .................................. 241
<그림 5-3>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도 ....................................................... 243
<그림 5-4> 어촌의 다면적 기능 .............................................................. 244
<그림 5-5> 시장형성 및 도시어촌 교류활성화 기본방향 ............................. 245
이 장에서는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전략 수립을 위해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은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차이를 나타낸다.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개념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공간적 범위

연안·어촌의 공간적 개념은 <그림 1-1>과 같이 연안의 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어촌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지역 등 해역별로 지형적·임직적 특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연안·어촌의 공간적 개념

82) 바다: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의 사이
83) 바닷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84) 어촌: 정주체계상 최소단위로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공간으로서의 생산현장인 동시에 그 곳 주민의 생활중심지로서 어항을 핵으로 포함하는 통합된 영역적 개체

제1장·연안·어촌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징 213
연안어촌의 공간적 범위는 76개 시·군·구, 468개 읍·면·동, 1,952개 어촌계, 3,871개 어촌마을, 해안선 11,914.05km에 해당된다.

2) 연안어촌어메니티의 개념정의

연안어촌지역은 농산촌과 마찬가지로 자연 및 반자연공간이 양립하고 있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정주쾌적성과 지역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안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은 연안어촌에만 고유하게 분포하는 자연, 전통, 문화, 산업 등의 자원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편안함, 즐거움, 쾌적성을 제공하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내재된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은 연안어촌공간에서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가운데 경제적 자원과 상품자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연안어촌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2. 연안어촌어메니티 자원의 특징

1) 연안어촌어메니티 자원의 특성

연안어촌어메니티는 대부분 자연환경에 근원성을 두고 있으나 자원 그 자체만으로는 어메니티의 활용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연안어촌어메니티의 자원은 독특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양상으로 인간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유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치나 유익성을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와 더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속성이 있다. 결국 어메니티 자원은 소비자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가치나 유익성에 의해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2) 연안어촌이 갖는 고유성(固有性)으로서의 특질

연안어촌의 어메니티는 ‘바다’라는 입지적·환경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다른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 곳에서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지역 정체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되고 적소시장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3) 비가역성(非可逆性)으로서의 특질

연안어촌의 어메니티는 개발·이용으로 훼손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외부 간섭에 대해 민감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연안어촌어메니티의 창출은 무제한적인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이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4)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서의 특질

연안어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의 희소성과 자원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메니티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출전략을 시행할 경우 자연환경의 여건변화와 미래예측이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다. 연안어촌에 대한 선호가 변동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들에 대한 수요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비경합성(非競合性)으로서의 특질

연안어촌의 어메니티는 분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공재 자원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따라 비경합성과 경합성이 양립할 수도 있다. 연안어촌어메니티는 공공재(환경재)로서 그 자체가 소비자(도시민)에게 주는 효과도 있으며 동시에 생산자 또는 보유자(어업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제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어메니티 자원은 어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6) 비배제성(非排擠性)으로서의 특질

연안어촌의 어메니티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나 방문객이 어메니티를 즐기고 느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연안어촌 어메니티는 바다와 유지가 접속하는 국토의 입지적 여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7) 한계성(限界性)으로서의 특질

연안어촌에 분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자원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안어촌의 어메니티 자원도 도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토대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림 1-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특징
이 장에서는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정립 및 자원조사 절차에 따라 순천만 지역을 사례로 하여 자원을 발굴·제시하였다. 순천만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어메니티 인지도, 가치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분류

1)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어메니티의 자원분류는 자원을 어떤 시각에서 평가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류기준과 범주가 성립될 수 있다.

<표 2-1>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 분류기준 | 범주 | 주
| --- | --- | ---
| 가치 | 이용가치: 어메니티가 위치한 장소를 방문 또는 거주하여 향유 | 비이용가치: 직접적인 절·사용하지 않아도 효용 제공
| | 비이용가치: 자원의 존재에 기반하여 활용 가능 | 선택가치: 조화된 이용과 배제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비용이 최소
| | - 존재가치: 존재의 인식에 의한 가치 | 존재가치: 존재의 인식에 의한 가치
| | 유산가치: 미래세대에 보전하여 줄 필요성에 의해 발생 | 존재가치: 미래세대에 보전하여 줄 필요성에 의해 발생
| 시장에서의 유통가능성 | 공공재(환경재) | 자연적 어메니티,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자원
| | 사유재 | 미인공적 어메니티, 인간활동에 의해 변형된 자원
| 불리적 분포형태 | 절원 어메니티: 냉난방 등이 필요한 지역 내 산재 | 불리적 분포형태: 냉난방 등이 필요한 지역 내 산재
| 생성의 역사적 과정 | 자연적 어메니티: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자원 | 인공 어메니티, 역사적·문화적 수용, 존중을 통해 변화적·문화적 가치 인정
| | 비자연적 어메니티: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자원 | 비자연적 어메니티: 역사의 산물, 문화유산
| 이용수준 | 미이용 어메니티: 이용되지 않은 자원 | 미이용 어메니티: 이용되지 않은 자원
| | 저이용 어메니티: 이용되지 않은 자원 | 저이용 어메니티: 이용되지 않은 자원
| | 적정이용 어메니티: 적절하게 이용되는 어메니티 | 적정이용 어메니티: 적절하게 이용되는 어메니티
| | 과다이용 어메니티: 적정이용을 초과한 어메니티 | 과다이용 어메니티: 적정이용을 초과한 어메니티

어메니티의 자원은 시장 또는 매커니즘 속에서의 효용가치, 유통가능성, 물리적 분포형태, 생성 과정, 이용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분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1>과 같다.

2)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 분류

연안·어촌의 어메니티 자원분류는 타 부분의 자원분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원을 크게 자연자원(자연, 경관), 문화자원(역사, 문화), 사회자원(경제, 공동체)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상품자원과 정체성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table>
<thead>
<tr>
<th>자원분류</th>
<th>자원</th>
</tr>
</thead>
<tbody>
<tr>
<td>자연자원</td>
<td>해변 / 백사장(해수욕장)</td>
</tr>
<tr>
<td></td>
<td>수산물(식시·구매)</td>
</tr>
<tr>
<td></td>
<td>갯벌</td>
</tr>
<tr>
<td></td>
<td>점령해역(해양심층수)</td>
</tr>
<tr>
<td></td>
<td>자연현상(바다 갈라짐, 일출·일몰, 바람, 조위 등)</td>
</tr>
<tr>
<td></td>
<td>연안환경(해안절벽, 석호)</td>
</tr>
<tr>
<td></td>
<td>연안환경(해안사구, 열생습지, 무인도서)</td>
</tr>
<tr>
<td></td>
<td>어부림 / 방풍림 / 보호수</td>
</tr>
<tr>
<td></td>
<td>동·식물</td>
</tr>
<tr>
<td></td>
<td>파도소리</td>
</tr>
<tr>
<td>경관자원</td>
<td>해중경관</td>
</tr>
<tr>
<td></td>
<td>해안경관</td>
</tr>
<tr>
<td></td>
<td>마을(어촌)경관</td>
</tr>
<tr>
<td>역사자원</td>
<td>박물관(선박박물관 등)</td>
</tr>
<tr>
<td></td>
<td>유·무형 문화재</td>
</tr>
<tr>
<td></td>
<td>전통·원시야생(독살, 적방림, 청경바리 등)</td>
</tr>
<tr>
<td>문화자원</td>
<td>축제 / 퍼(동아제, 당산제 등)</td>
</tr>
<tr>
<td></td>
<td>전시관(어촌민속전시관 등)</td>
</tr>
<tr>
<td></td>
<td>종속 / 종습 / 전양</td>
</tr>
<tr>
<td></td>
<td>해식(해식)</td>
</tr>
<tr>
<td></td>
<td>수산업기반(어선, 어항, 항만, 유통·가공시설)</td>
</tr>
<tr>
<td></td>
<td>사람(人) / 지식 / 기술 / 조직(어촌계)</td>
</tr>
<tr>
<td>사회자원</td>
<td>어장(경제체제어장, 바다목장, 양식장)</td>
</tr>
<tr>
<td></td>
<td>수산제품(지역특산품)</td>
</tr>
<tr>
<td></td>
<td>어장(양식장)</td>
</tr>
<tr>
<td>공동체</td>
<td>공동체활동(친목계, 경로잔치 등)</td>
</tr>
<tr>
<td></td>
<td>어업공동체활동(판매, 유통조직,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td>
</tr>
</tbody>
</table>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사례조사

1)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분류에 따른 사례 유형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지원하거나 지자체에서 연안·어촌의 고유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지역활성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표 2-3〉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국내사례

<table>
<thead>
<tr>
<th>활용자원</th>
<th>세부자원</th>
<th>사례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자연 자원</td>
<td>자연</td>
<td>해양심층수</td>
</tr>
<tr>
<td>바람</td>
<td>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풍력발전단지)</td>
<td></td>
</tr>
<tr>
<td>경관</td>
<td>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면</td>
<td></td>
</tr>
<tr>
<td>문화 자원</td>
<td>역사</td>
<td>전설·설화</td>
</tr>
<tr>
<td></td>
<td></td>
<td>경상남도 사천시 비토도(별주부전 테마파크)</td>
</tr>
<tr>
<td></td>
<td>문화</td>
<td>전통·원시어업</td>
</tr>
<tr>
<td></td>
<td></td>
<td>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죽방렴)</td>
</tr>
<tr>
<td></td>
<td>경제</td>
<td>체험시설 및 프로그램</td>
</tr>
<tr>
<td></td>
<td></td>
<td>전라남도 무안군 해계면(송계어촌체험마을)</td>
</tr>
<tr>
<td>사회 자원</td>
<td>경제</td>
<td>지역특산품</td>
</tr>
<tr>
<td></td>
<td></td>
<td>서천 김(어메니티 자원을 지역브랜드 상품화)</td>
</tr>
</tbody>
</table>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통해 분류된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도, 대표적인 속성, 가치평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수단과 과제 도출을 위한 방향 설정에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방법

순천시 평생교육대학 수강생중 140명에게 어메니티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설
명하고 바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샘플 84개(회수율 60%)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3)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도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과정에서 시민대상의 설문조사 응답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핵심자원, 주요자원, 일상자원, 잠재자원으로 유형화하였다. 핵심자원은 응답자의 75%이상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자원을, 주요자원은 응답자의 50%이상~75%미만이 인지하는 자원을, 일상자원은 25%이상~50%미만이 인지하는 자원을, 잠재자원은 25%미만의 응답자만이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지하는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총 43개 가운데 4개 자원 즉, 원형갈대군락, 갯벌, 겨울철새, 갈대축제가 핵심자원으로 나타났다. 주요자원으로는 흑두루미, 뱃돌이, 동천, 갈대소리, S자 갯골 등 모두 18개 자원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55.8%가 핵심 및 주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1.9%의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폐염전만이 유일하게 잠재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일상자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도시, 농산촌 분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안·어촌의 특성상 핵심자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 유형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자연자원 24개(55.8%), 문화자원 13개(30.2%), 사회자원 6개(14.0%)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분류 체계를 통해 분류된 어메니티 자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 18개(41.9%), 문화 11개(25.6%), 경관 8개(18.6%), 경제 5개(11.6%), 역사 2개(4.6%) 순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원형갈대군락, 갯벌, 겨울철새, 흑두루미, 뱃돌이, 동천, 철만초군락 등 대부분 자연·경관자원 어메니티의 우위가 나타났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방법과 사례 분석 221

표 2-4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별 현황(설문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자원분류</th>
<th>핵심자원 (75%이상)</th>
<th>주요자원 (50%~75%미만)</th>
<th>일상자원 (25%~50%미만)</th>
<th>잠재자원 (25%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자연자원</td>
<td>갯벌, 가을철대, 흉두무기, 명동어, 동천, 자연생태공원, 갈대소리, 해소리, 망사소리, 5석골</td>
<td>하온해빈, 친절, 해수욕, 물놀이, 다양한 명소, 농생산직, 숲길, 절경</td>
<td>-</td>
<td>-</td>
</tr>
<tr>
<td>생활자원</td>
<td>갈대군락, 군락, 동물, 야생식물, 4개월 변화, 대대포구 안개</td>
<td>죽림, 푸른, 청록, 학년식물, 4개월 변화, 대대포구 안개</td>
<td>-</td>
<td>-</td>
</tr>
<tr>
<td>문화자원</td>
<td>역사자원(3)</td>
<td>벨레, 명동어, 종짜기</td>
<td>-</td>
<td>-</td>
</tr>
<tr>
<td></td>
<td>문화자원(11)</td>
<td>강산지방, 벨레, 생태수제공, 자연생태공원, 갈대소리, 해소리, 명소, 생태수제공,</td>
<td>-</td>
<td>-</td>
</tr>
<tr>
<td></td>
<td>시계자원(5)</td>
<td>용산전망대, 싱싱한, 생태수제공, 자연생태공원, 갈대소리, 해소리, 명소, 생태수제공,</td>
<td>-</td>
<td>-</td>
</tr>
<tr>
<td></td>
<td>동돈지(1)</td>
<td>대대포구, 대대포구, 대대포구, 대대포구, 대대포구, 대대 포구</td>
<td>-</td>
<td>-</td>
</tr>
<tr>
<td>총</td>
<td>43개</td>
<td>18개</td>
<td>20개</td>
<td>1개</td>
</tr>
</tbody>
</table>

주: 순천만 어메니티 자원조사분석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대표 속성 및 기능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이 지닌 대표적인 속성을 살펴본 결과, 환경·생태성이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자연·경관자원은 환경·생태성이 절대적 우위를 나타낸 반면에, 문화·역사자원은 문화·심미성이, 경제자원은 경제성의 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수준 평가

순천만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수준을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자연·경관자원의 가치가 다른 자원에 비해 가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순천만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S자형 갯골의 가치가 4.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갯벌, 흉두무기, 동천 등이 4.4로 나타났다. 반면 역사자원의 벨레, 경제자원의 페어런, 대양광발전단지 등은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thead>
<tr>
<th>자원 분류</th>
<th>자원</th>
<th>자원인지 여부</th>
<th>대표적인 속성</th>
<th>가치평가</th>
</tr>
</thead>
<tbody>
<tr>
<td>자연</td>
<td>갭벌</td>
<td>73(80)</td>
<td>60(76)</td>
<td>4(5)</td>
</tr>
<tr>
<td></td>
<td>거울 천새</td>
<td>71(78)</td>
<td>65(82)</td>
<td>3(4)</td>
</tr>
<tr>
<td></td>
<td>룱두루미</td>
<td>60(71)</td>
<td>58(73)</td>
<td>2(3)</td>
</tr>
<tr>
<td></td>
<td>꼬리등어</td>
<td>61(67)</td>
<td>39(49)</td>
<td>2(3)</td>
</tr>
<tr>
<td></td>
<td>동전</td>
<td>59(65)</td>
<td>29(37)</td>
<td>14(18)</td>
</tr>
<tr>
<td></td>
<td>자연생태공원</td>
<td>59(65)</td>
<td>23(29)</td>
<td>17(22)</td>
</tr>
<tr>
<td></td>
<td>갈대다리</td>
<td>57(63)</td>
<td>36(46)</td>
<td>15(19)</td>
</tr>
<tr>
<td></td>
<td>새소리</td>
<td>50(55)</td>
<td>40(51)</td>
<td>7(9)</td>
</tr>
<tr>
<td></td>
<td>림사창지</td>
<td>49(54)</td>
<td>41(52)</td>
<td>6(8)</td>
</tr>
<tr>
<td></td>
<td>서귀포용산대교</td>
<td>49(54)</td>
<td>38(48)</td>
<td>7(9)</td>
</tr>
<tr>
<td></td>
<td>바와해변</td>
<td>37(41)</td>
<td>18(23)</td>
<td>4(5)</td>
</tr>
<tr>
<td></td>
<td>해롭천</td>
<td>35(38)</td>
<td>24(30)</td>
<td>1(1)</td>
</tr>
<tr>
<td></td>
<td>동천</td>
<td>35(38)</td>
<td>11(14)</td>
<td>18(23)</td>
</tr>
<tr>
<td></td>
<td>자연생태공원</td>
<td>33(36)</td>
<td>26(33)</td>
<td>4(5)</td>
</tr>
<tr>
<td></td>
<td>림사창지</td>
<td>28(31)</td>
<td>17(22)</td>
<td>4(5)</td>
</tr>
<tr>
<td></td>
<td>경관</td>
<td>현변</td>
<td>25(27)</td>
<td>14(18)</td>
</tr>
<tr>
<td></td>
<td>원형갈대군반</td>
<td>25(27)</td>
<td>17(22)</td>
<td>10(13)</td>
</tr>
<tr>
<td></td>
<td>잡초</td>
<td>21(23)</td>
<td>10(13)</td>
<td>18(23)</td>
</tr>
<tr>
<td></td>
<td>청춘소공원</td>
<td>18(23)</td>
<td>4(5)</td>
<td>8(10)</td>
</tr>
<tr>
<td></td>
<td>설경</td>
<td>18(23)</td>
<td>4(5)</td>
<td>8(10)</td>
</tr>
<tr>
<td></td>
<td>4계절의 변화</td>
<td>18(23)</td>
<td>4(5)</td>
<td>8(10)</td>
</tr>
<tr>
<td></td>
<td>대대포구안개</td>
<td>13(16)</td>
<td>2(3)</td>
<td>2(3)</td>
</tr>
<tr>
<td></td>
<td>문화</td>
<td>명예</td>
<td>46(51)</td>
<td>17(22)</td>
</tr>
<tr>
<td></td>
<td>장롱여울레기</td>
<td>45(49)</td>
<td>16(20)</td>
<td>6(8)</td>
</tr>
<tr>
<td></td>
<td>경제</td>
<td>대대축제</td>
<td>71(78)</td>
<td>16(20)</td>
</tr>
<tr>
<td></td>
<td>문화</td>
<td>갈대축제</td>
<td>60(66)</td>
<td>10(13)</td>
</tr>
<tr>
<td></td>
<td>경제</td>
<td>천사연합대</td>
<td>55(60)</td>
<td>13(16)</td>
</tr>
<tr>
<td></td>
<td>융동생태판</td>
<td>55(60)</td>
<td>20(25)</td>
<td>18(23)</td>
</tr>
<tr>
<td></td>
<td>자연생태개발</td>
<td>43(47)</td>
<td>17(22)</td>
<td>3(4)</td>
</tr>
<tr>
<td></td>
<td>시진영도체험</td>
<td>39(43)</td>
<td>14(18)</td>
<td>8(10)</td>
</tr>
<tr>
<td></td>
<td>천연생태공원</td>
<td>37(41)</td>
<td>7(9)</td>
<td>12(15)</td>
</tr>
<tr>
<td></td>
<td>짱구도</td>
<td>34(37)</td>
<td>3(4)</td>
<td>18(23)</td>
</tr>
<tr>
<td></td>
<td>임축제</td>
<td>32(35)</td>
<td>11(14)</td>
<td>5(6)</td>
</tr>
<tr>
<td></td>
<td>문화</td>
<td>김승옥&quot;무진기행&quot;</td>
<td>30(33)</td>
<td>0(0)</td>
</tr>
<tr>
<td></td>
<td>사 회</td>
<td>무진교</td>
<td>27(30)</td>
<td>2(3)</td>
</tr>
<tr>
<td></td>
<td>공동체</td>
<td>외포마을</td>
<td>30(33)</td>
<td>0(0)</td>
</tr>
</tbody>
</table>
(4)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시사점

연안 · 어촌 어메니티의 대표적인 속성으로는 환경 · 생태성의 우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위해서는 연안 · 어촌의 환경과 생태적 자원을 지역발전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반대로 연안 · 어촌 어메니티의 자원은 그만들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번 훼손된 경우 자원회복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연안 ·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경관자원의 절대적 우위를 자원화, 상품화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 경관자원의 상품화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장소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안 · 어촌 어메니티는 지역주민에게는 거주환경의 풍성성을 제공하지만, 방문객에게는 특이한 경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연안 · 어촌의 어메니티 경험은 특산품 판매와 관광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table>
<thead>
<tr>
<th>분류 기호</th>
<th>순천시-01</th>
<th>자원 이름</th>
<th>원형갈대군반</th>
<th>자원 분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원형군반</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자원의 특성 및 개요</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일대</td>
</tr>
<tr>
<td>문의처 : 전남 순천시청 관광진흥과 순천만보전계 061) 749-4008</td>
</tr>
</tbody>
</table>

### 어메니티 속성

- **분류** : 자연자원-경관자원

<table>
<thead>
<tr>
<th>자원의 특성 및 개요</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일대</td>
</tr>
<tr>
<td>문의처 : 전남 순천시청 관광진흥과 순천만보전계 061) 749-4008</td>
</tr>
</tbody>
</table>

### 어메니티 가치 평가

<table>
<thead>
<tr>
<th>자원의 특성</th>
<th>이용 현황</th>
</tr>
</thead>
<tbody>
<tr>
<td>면적 : 약 500 ha</td>
<td></td>
</tr>
<tr>
<td>시설현황 : 원형갈대군반을 보기위한 전망시설과, 갈대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데크시설</td>
<td></td>
</tr>
<tr>
<td>갈대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td>
<td></td>
</tr>
</tbody>
</table>

### 이용 현황

1. 자원의 특성
   - 면적 : 약 500 ha
   - 시설현황 : 원형갈대군반을 보기위한 전망시설과, 갈대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데크시설
   - 갈대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

2. 이용 현황
   - 도시와 가까워 도시민의 공원 역할을 하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생태적 교육장소 역할을 하고, 경관 감상의 장소로 이용
   - 가족단위로 생태적 교육을 목적으로 찾는 이용객과, 경관의 감상으로 하는 이용객이 많음

### 문제점 및 잠재력

- 원형군반의 팽창에 따라 군반끼리 협착되어 본래의 경관적 심미적 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문제에应付
- 갈대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

### 향후 정책지원 및 활성화 방안

- 함사습지, 습지보호지역에 따른 보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경관감상형 생태관광지로 시계적인 명소화, 브랜드화 추진 추진
-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심과 지원
- 순천만의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마련

---

224 연안, 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이 장에서는 국내외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서천군의 김 공동브랜드 활용 국내사례와 일본 아이즈의 해양심층수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

1) 서천군의 식품 클러스터 구축 사례: 서천 김 공동브랜드

(1) 개요
 서천군은 서해바다와 금강하구, 갯벌자원을 기반으로 전국 생산량의 9%를 차지하는 김을 비롯하여 넙치, 주꾸미 등 경쟁력 있는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천군은 특히 서천 김(마른 김)의 공동 브랜드를 선정하고 김 생산지로서 서천을 알리고 서천 김의 최대 강점인 맛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서천 김의 브랜드화는 우수한 물김을 생산하고 이를 서천 지역 가공공장의 높은 가공기술로 부가가치를 높여 김 유통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서천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85)

85) 서천군의 김 생산량이 전국의 6.4%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서천 김의 발전전략은 품질을 차별화하여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공동 브랜드화
서천군의 김 공동 브랜드는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공기반이 취약해 타 지역 김으로 유통하기 힘들다는 현실에서 서천군이 김 생산지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우수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다. 공동 브랜드 이름은 「서천 味作」으로 “서천이 만든 맛의 걸작”이라는 의미로 서천에서 생산된 마른 김 중 일정 수준이상의 제품에만 붙일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 지리적표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편 프리미엄 브랜드인 「서천 味高」는 “최고의 맛”이라는 뜻으로 서천산 마른 김 중 최상급으로 분류된 제품에만 사용함으로써 명품화 전략을 도입하였다. 브랜드 디자인은 「서천 味作」에서 서해안의 깨끗하고 푸른 바다와 전통 김 생산 방식인 지주식을 형상화하였고, 「서천 味高」에는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서천 김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
서천군은 「서천 김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김 산업 관련자 및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천 김 발전협의회를 통해 김 산업의 전략 수립 및 사업의 기획・심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4) 신화력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서천 씨푸드 클러스터 구축”
서천군은 제2기 신화력사업에 어메니티 서천 씨푸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선
정되어 2010년까지 60억 원 규모 수산 식품관련 사업(김가공단지)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천 김 공동브랜드로 시작된 어메니티 서천 씨푸드 클러스터는 수산물 품질 관리 및 유통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음식점 인증제 도입, 퓨전 수산물 음식 개발, 어촌마을관광마을 육성 등으로 씨푸드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씨푸드 축제, 씨푸드 테마 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2) 일본 아이즈의 해양심층수 활용 사례

(1) 목적
준하만은 수심 2,500m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만으로 수심 200m를 넘는 심해부에는 고영양성, 청정성, 저온성 등의 특성을 가진 '준하만심층수'가 부존되어 있으며 수산, 의학, 농업, 에너지, 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용 및 활용이 전망되고 있다. 준하만내 아이즈 지션에서 2종류의 심층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공급 및 수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 다방면의 공동연구를 포함하는 심층수 이용연구, 민간지원 등 해양심층수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 해양심층수의 활용 촉진
지금까지 심층수사업의 추진방법 및 브랜드마크의 사용허락기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결과 향후 수산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루가만 심층수의 브랜드화, 판매촉진 개척, 심층수 관련 고품질연구의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이용을 촉진하고 많은 시민에게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매월 1일 토요일은 '스루가만 심층수의 날'로 하고 원수를 20리터까지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해저 깊은 곳에서 끌어 올린 적수로 수산업 양식, 환수수축 등에 효과가 좋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상업화하여 판매하여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제3장 ∙ 국내외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와 시사점 227
특히, 2006년 7월부터 아즈아이즈가 설치한 해양요법(타라소테라피)시설 「아쿠아아즈아이즈」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요법 시설로 관광시설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3-2〉해양심층수 활용 사례

〈그림 3-3〉아쿠아아이즈 전경 및 내부시설
3) 순천시의 순천만 보전·활용 사례

흑두루미, 갈대, 갯벌 등 순천만의 지역 생태자원 특성을 테마로 경관감상형 축제를 통해 9일 동안 13만 여명이 방문하여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07년 갈대축제는 무려 50만 여명이 방문하여 전라남도 대표축제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앞으로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여 그 위상과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 <표 3-1> 순천만 갈대축제 프로그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순천만 갈대축제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공식행사</td>
<td>• 식전행사&lt;br&gt;  - 깔끔한 농악, 건기대회, 자연따라기&lt;br&gt;  - 동물캐릭터&lt;br&gt;  - 개막행사&lt;br&gt;  - 개막신인&lt;br&gt;  - 무용 “순천만”공연&lt;br&gt;  - 영상제작&lt;br&gt;  - KBS 창작가는 음악회(순천만 갈대음악회)&lt;br&gt;  - 개막행사&lt;br&gt;  - 축제장면 영상</td>
</tr>
<tr>
<td>공연행사</td>
<td>• 주요공연&lt;br&gt;  - 갈대축제 이정표&lt;br&gt;  - 지역도시 예술단공연(양천구, 진주)&lt;br&gt;  - 순천만 어린이 뮤지컬&lt;br&gt;  - 마당국 “놀부가 기가막혀”&lt;br&gt;  - 무용 “순천만”공연&lt;br&gt;  - 노래공연(장애인 종합복지관)</td>
</tr>
<tr>
<td>경연행사</td>
<td>• 전국대회&lt;br&gt;  - 무진기행 대학생 백일장&lt;br&gt;  - 순천만 갈대축제 디카 촬영대회&lt;br&gt;  - K.B.S 도전 골든벨(강남여고)</td>
</tr>
<tr>
<td>체험행사</td>
<td>• 갈대전시 및 만들기&lt;br&gt;  - 깔대배, 갈대바구니, 갈대고무, 갈대 samt, 갈대죽, 갈대سوف, 갈대백구니, 갈대환경, 갈대문학&lt;br&gt;  - 갈대 채집(사토장)&lt;br&gt;  - 갈대음식, 갈대타초, 갈대미로 찾기, 갈대사진 촬기&lt;br&gt;  - 갈대가 들어가는 순천만이야기(해설) : 4개소&lt;br&gt;  - 생태관(예시), 갈대길, 전망대길, 천체탐조길&lt;br&gt;  - 자연생태관 체험학습: 순천4개, 갯벌의 생태&lt;br&gt;  - 생태체험: 자연의 소리, 연생식물체험, 순천만생태&lt;br&gt;  - 환경체험: 영동체험, 물방울소, 바람개비, 자연과학실험&lt;br&gt;  - 포토존 설치(자기사진 창아가기): 선착장, 갈대길, 전망대, 사토장&lt;br&gt;  - 흑두루미 우체국(일시)</td>
</tr>
<tr>
<td>전시행사</td>
<td>• 찬인기념품 전시 및 세소리 체험(생태관-유료)&lt;br&gt;  - 사진전시: 순천만, 갈대, 갯벌, 천체사진, 환경사진</td>
</tr>
<tr>
<td>기획행사</td>
<td>• 갈대 소원탑 설치&lt;br&gt;  - 무진기행 영화 “안개”상영&lt;br&gt;  - 자전거 경품 지급</td>
</tr>
<tr>
<td>판매행사</td>
<td>• 관광 기념품전: 전시, 판매전, 만들기 체험&lt;br&gt;  - 순천농산물전: 전시, 판매전, 백미기체험&lt;br&gt;  - 순천 농산물전 누에제작전, 녹차 시음판매&lt;br&gt;  - 순천만 음식판매 (대대, 인안, 동네 부녀회, 기존식당&lt;br&gt;  - 장애인 단체 경상품 및 맛거리 판매</td>
</tr>
<tr>
<td>부대행사</td>
<td>• 자전거 대여소 운영(유료)&lt;br&gt;  - 산상투어(유료)&lt;br&gt;  - 무진기행 열차운영(유료)&lt;br&gt;  - 갈대홈타임(의료원, 역 광장)</td>
</tr>
</tbody>
</table>

230 연안·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제3장 ∙ 국외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와 시사점

2.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사례 시사점

연안 ∙ 어촌의 어메니티 창출사례는 순천시의 순천만처럼 그 자원을 보전적 틀을 유지하면서 자원화하는 사례와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연안 ∙ 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를 해당지역의 역량과 특성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순천시 순천만은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시의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원의 특성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감상형 모델로서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서천의 김 클러스터와 일본의 해양심층수 사례는 연안 ∙ 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화 사례이다. 서천의 낮은 김 인지도를 생산, 가공, 판매, 체험관광까지 묶어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신호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연안 ∙ 어촌의 무한한 해양심층수 자원을 식품, 의료, 미용,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켜 이를 상품화하고 고부가 가치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특성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순천 지역</th>
<th>타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td>
<td>지역주민</td>
<td>1인당</td>
</tr>
<tr>
<td>교통비</td>
<td>255,481,600</td>
<td>6,080</td>
</tr>
<tr>
<td>숙박비</td>
<td>0</td>
<td>0</td>
</tr>
<tr>
<td>식음료비</td>
<td>394,567,800</td>
<td>9,390</td>
</tr>
<tr>
<td>유흥비</td>
<td>11,765,600</td>
<td>280</td>
</tr>
<tr>
<td>소핑비</td>
<td>110,512,600</td>
<td>2,630</td>
</tr>
<tr>
<td>기 타</td>
<td>15,967,600</td>
<td>380</td>
</tr>
<tr>
<td>합 계</td>
<td>788,295,200</td>
<td>18,760</td>
</tr>
</tbody>
</table>

표 3-2 `2006 순천만 갈대 축제 1인당 축제 지출비용
이 장에서는 연안·어촌 어베티 자원의 창출을 위해 현재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정책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안·어촌 어베티 창출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적 창의성과 특성반영 미흡, 집행주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어베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1. 연안·어촌 어베티 정책지원 실태

1) 연안·어촌 어베티 정책지원 실태

연안·어촌 어베티는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 부산시 등 일부 연안 지자체에서 어베티를 지역발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어베티 자원 발굴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안·어촌지역의 어베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아 자원적 가치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연안·어촌지역의 다양한 어베티 자원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에서 6개 연안시·군(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의 해안경관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시범모델로 조성하여 어촌의 정체성 확립(재해된 관광자원의 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를 통해 연안·어촌 어베티 정책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안어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모형제시와 해안경관을 기반으로 어메니티 플랜에 가깝게 접근한 사례이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추진력이 떨어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실태는 농산어촌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각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가운데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안어촌어메니티 관련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표 4-1>와 같이 도출되었다. 각 부처별로 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 106개 가운데 연안어촌어메니티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그 중 해양수산부 4개, 농림부 4개, 문화관광부 8개, 행정자치부 6개 등으로 나타났다. 연안어촌어메니티와 관련 있는 해양수산부의 4개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들은 어촌과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이다.
### <표 4-1> 농림어업인심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세부추진과제

<table>
<thead>
<tr>
<th>사 업 명</th>
<th>주관부처</th>
<th>수혜범위</th>
<th>어메니티 관련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논론 여론</td>
</tr>
<tr>
<td></td>
<td></td>
<td></td>
<td>논란여론</td>
</tr>
<tr>
<td>지역개발 정책분야 육성 및 저변 확대</td>
<td>농림부</td>
<td>○</td>
<td>○</td>
</tr>
<tr>
<td>농촌미확인종합개발사업</td>
<td>농림부</td>
<td>○</td>
<td>×</td>
</tr>
<tr>
<td>어촌중심개발사업</td>
<td>해양수산부</td>
<td>×</td>
<td>○</td>
</tr>
<tr>
<td>산촌중심개발사업</td>
<td>산림청</td>
<td>○</td>
<td>×</td>
</tr>
<tr>
<td>소도움 육성사업</td>
<td>행정자치부</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 | 행정자치부 | ○ | ○ |
| 농어촌 주택개량(농특세 10%) | ○ | ○ | ○ |
| 농어촌 마을정비(마을하수도 정비) | ○ | ○ | ○ |
| 농어촌 빈집정비 | ○ | ○ | ○ |

|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개발 | 농촌진흥청 |○ |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 환경부 | ○ | ○ |
|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 농림부 | ○ | ○ |
| 면단위 하수도 사업 | 환경부 | ○ | ○ |
| 소하천 정비 | 소방방재청 | ○ | ○ |
| 폐기물 처리시설지원 | 환경부 | ○ | ○ |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 농림부 | ○ | ○ |
| 농어촌도로정비 | 행정자치부 | ○ | ○ |

| 교통서비스 강화 | 전설교통부 | ○ | ○ |
| 농산어촌 버스 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 ○ | ○ | ○ |
| 농산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폐차비 지원 | ○ | ○ | ○ |

<p>| 국고여객선 건조 | 해양수산부 | × | ○ |
| 농촌주거기반복충사업 | 농림부 | ○ | × |
| 오지개발복충사업 | 행정자치부 | ○ | ○ |
| 오지개발복충사업 | 행정자치부 | ○ | ○ |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문화관광부 | ○ | ○ |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 문화관광부 | ○ | ○ |
| 생활체육과 문화공간 조성 | 문화관광부 | ○ | ○ |
|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문화관광부 | ○ | ○ |
|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산 건설 | 과학기술부 | ○ | ○ |
| 산림막봉분 건립 | 산림청 | ○ | × |
| 정보화마을 조성 | 행정자치부 | ○ | ○ |
|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정보통신부 | ○ | ○ |
| 정보화 인프라 구축 | 농림부 | ○ | × |
| 디지털어촌 구축사업(어촌정보화사업) | 해양수산부 | × | ○ |
| 농업 정보화 교육 | 농림부 | ○ | × |
| 농업 - 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 농림부 | ○ | × |
|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농림부 | ○ | ○ |</p>
<table>
<thead>
<tr>
<th>업무 명</th>
<th>주관부처</th>
<th>수혜범위</th>
<th>관련성</th>
</tr>
</thead>
<tbody>
<tr>
<td>소 계</td>
<td>25개</td>
<td></td>
<td>8개</td>
</tr>
<tr>
<td>허용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td>
<td></td>
<td>농림장</td>
<td>○  ○</td>
</tr>
<tr>
<td>지역수산 지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농어업인 고용촉진 전환</td>
<td></td>
<td>노동부</td>
<td>○  ○</td>
</tr>
<tr>
<td>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td>
<td></td>
<td>농촌진흥청</td>
<td>○  ×</td>
</tr>
<tr>
<td>문화역사마을 조성</td>
<td></td>
<td>문화관광부</td>
<td>○  ○</td>
</tr>
<tr>
<td>어촌체험마을 조성</td>
<td></td>
<td>해양수산부</td>
<td>×  ○  ○</td>
</tr>
<tr>
<td>어촌관광활성화 사업</td>
<td></td>
<td>해양수산부</td>
<td>×  ○  ○</td>
</tr>
<tr>
<td>산림수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td>
<td></td>
<td>산림청</td>
<td>○  ×</td>
</tr>
<tr>
<td>- 산림수양공간 조성</td>
<td></td>
<td></td>
<td>○  ×</td>
</tr>
<tr>
<td>- 수목원 조성</td>
<td></td>
<td></td>
<td>○  ×</td>
</tr>
<tr>
<td>문화 및 생태, 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td>
<td></td>
<td>문화관광부</td>
<td>○  ○</td>
</tr>
<tr>
<td>-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td>
<td></td>
<td></td>
<td>○  ○</td>
</tr>
<tr>
<td>- 문화관광자원개발</td>
<td></td>
<td></td>
<td>○  ○</td>
</tr>
<tr>
<td>논산어야 체험학습회 개최</td>
<td></td>
<td>농림부</td>
<td>○  ○  ○</td>
</tr>
<tr>
<td>논산어야 체험관 등의 운영</td>
<td></td>
<td>농림부</td>
<td>○  ○  ○</td>
</tr>
<tr>
<td>중앙, 지방, 민간, 대형, 중소 및 사우들게 구축, 관리체계 구축</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항로문화 관광축제 활성화</td>
<td></td>
<td>문화관광부</td>
<td>○  ○  ○</td>
</tr>
<tr>
<td>관광포차 직물제</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논산야마터미 계획사업 개발 및 보급</td>
<td></td>
<td>농촌진흥청</td>
<td>○  ×</td>
</tr>
<tr>
<td>논산야마터미 경관주택 발굴, 보급</td>
<td></td>
<td>농림부</td>
<td>○  ○  ○</td>
</tr>
<tr>
<td>-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td>
<td></td>
<td></td>
<td>○  ×</td>
</tr>
<tr>
<td>- 자생식물 식재</td>
<td></td>
<td>산림청</td>
<td>○  ×</td>
</tr>
<tr>
<td>- 생태숲 조성</td>
<td></td>
<td></td>
<td>○  ×</td>
</tr>
<tr>
<td>조간물리적폐 직점지불제도</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도시인 논산야 마력 단기 활성화</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도농교류 협력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td>
<td></td>
<td>농림부</td>
<td>○  ×</td>
</tr>
<tr>
<td>도농교류센터 운영</td>
<td></td>
<td>보건복지부</td>
<td>○  ×</td>
</tr>
</tbody>
</table>

주: ( )는 연안, 어촌 어메니티 관련 사업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해양수산부</th>
<th>농림부</th>
<th>교육부</th>
<th>문광부</th>
<th>복지부</th>
<th>농진부</th>
<th>허정부</th>
<th>기타</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과제</td>
<td>74(4)</td>
<td>31(4)</td>
<td>17(0)</td>
<td>8(8)</td>
<td>6(0)</td>
<td>14(1)</td>
<td>8(6)</td>
<td>17(5)</td>
<td>106(28)</td>
</tr>
<tr>
<td>예산</td>
<td>1,009</td>
<td>41,737</td>
<td>17(5)</td>
<td>106(28)</td>
<td>42,74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lt;억원&gt;</td>
<td>&lt;2.4%&gt;</td>
<td>&lt;97.6%&gt;</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 )는 연안, 어촌 어메니티 관련 사업임
2.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정책지원의 문제점

1) 지역적 창의성과 특성반영 미흡

어메니티 정책은 어촌과 같은 낙후지역의 개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각 부처별 정책지원은 정해진 사업 지침에 의해 투자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는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향식 방식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연안 · 어촌 지역 어메니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획일적 사업개발이 될 개연성이 높아 연안 · 어촌의 특성, 창의, 개발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2) 집행주체의 다원화 · 분산개발에 따른 비효율성

연안 · 어촌지역의 어메니티 관련 사업들은 해양수산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사업 대부분은 어메니티와 관련된 사업들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메니티 창출과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어촌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3) 연안 · 어촌 어메니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

현재의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정책은 기초환경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밖에 역사 · 문화, 경관,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전략과 정책 과제

이 장에서는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창출을 위해 첫째, 보전적 틀을 활용하여 어메니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화, 둘째, 0.5차 더하기를 통한 어메니티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계획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의 기본방향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은 환경·생태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창출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자원화와 계획화에 대한 개념적 분리가 필요하다. 연안·어촌지역의 자원들은 훼손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회복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상태로 완전히 복구될 수 없는 비가역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메니티 활용을 위한 창출전략에 있어서 자원화(보존, 복원)를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유지할 것인지 계획화(상품화, 축제 및 이벤트화, 창조적 어촌개발)를 통해 낙후된 연안·어촌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지역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자원화 : 보전적 틀을 활용한 연안 어촌 어메니티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안 어촌 어메니티는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외부환경에 따라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자원의 최적성이나 유한한 자원의 경우에는 보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계획화 : 0.5차 더하기를 통한 연안 어촌 어메니티의 고부가가치화

연안 어촌 어메니티 자원은 자원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연안 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은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함께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분야·지역간 경쟁력이 약화된 수산업·어촌분야는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기반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 감성·문화·교육·관광·IT 등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고부가가치(0.5차 혁신)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제5장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2.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연안어촌 어메니티를 생산·공급하는 지역주민(어업인)과 반대로 소비하는 도시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은 그 특성상 비경합성, 불확실성, 비배제성, 비가역성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보조금사업, 도시어촌 교류활성화, 규제, 인센티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1)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발굴

(1) 기본 방향
연안어촌은 지역적 정체성과 생태·환경적 특성이 도시, 농촌지역에 비해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안어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가치와 활용을 위한 정책 발굴이 미흡했기 때문에 연안어촌을 공간적 대상으로했던 어촌체험관광마을 등 각종 추진사업은 사업별로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제5장 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241
있다. 따라서 연안 · 어촌의 지역별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 ·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연안 · 어촌은 상대적으로 자원의 발굴과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미활용되고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최근 어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안 · 어촌을 찾는 도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자원 발굴과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등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제공과 어업인의 어업외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어메니티의 자원 발굴과 활용에 대해서는 정책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 · 어촌 어메니티의 자원 발굴과 이를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 및 발굴은 76개 연안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자연, 경관, 역사, 문화, 경제, 공동체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지도(Amenity Map)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안 · 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발굴과 창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만 정책적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자원을 발굴하는 시점에서부터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자원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수산보전제

(1) 기본 방향

최근 수산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WTO/DDA, FTA 협상에 따른 국내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보전제가 있다. 수산보전제는 농업·농촌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산분야에서는 이를 수산보전제로 사용하고 있다.

수산보전제란 정부가 시행하는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의 일종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수산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시장 왜곡적인 측면을 줄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지불에 의하여 어가소득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연안·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243
수산업을 생산·가공·유통시키는 연안·어촌은 어업을 기간산업으로 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 타산업의 입지가 적은 국토의 외곽에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즉, 수산업과 어촌 본래의 어업생산기능 외에도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은 ‘수산업·어촌이 가진 수산물의 공급’이라고 하는 본래 기능 외에 물질순환의 보완, 생태계의 보전, 생명·재산의 보전, 교류의 장제공,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 기능은 보유·수행하고 있는 수산업의 생산 활동을 기존의 시장기능만으로는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지불제도 같은 허용가능 보조금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익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연안·어촌 어메니티와 관련된 직접지불제도 역시 도입이 가능하다.

<그림 5-4> 어촌의 다면적 기능

(2) 정책 과제
수산보전체는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체가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어촌의 다면적 기능(물질순환·생태계 보전, 교류의 장 형성, 지역사회 형성)을 고려해 볼 때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발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촌관광, 전통어업보전, 도시어촌교류촉진 등 연안·어촌과 관련된 공익적 기능 수산보전체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 장

연안 어촌 어메니티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목 적</th>
<th>이해(지급)요건</th>
<th>정책목표</th>
</tr>
</thead>
<tbody>
<tr>
<td>어촌경제</td>
<td>경관보존 및 활용</td>
<td>경관보호 (어부림, 갯벌 등)</td>
<td>연안·어촌의 지역정체성 유지, 어촌다움 유지</td>
</tr>
<tr>
<td>도시어촌 교류촉진</td>
<td>도시어촌교류 활성화</td>
<td>도시와 어촌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td>
<td>어촌 활력 유도(도시민, 어업인), 어업외소득 증대</td>
</tr>
<tr>
<td>전통어업 보전</td>
<td>사라져 가는 전통어업방식 보전</td>
<td>전통어업 보유자</td>
<td>어촌 고유의 문화, 전통 유지계승</td>
</tr>
</tbody>
</table>

<표 5-1> 공익적 기능 수산보전제

3) 시장형성 및 교류활성화 유도 정책

(1) 기본 방향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시장형성과 교류활성화 유도도이다. 먹거리를 포함해 연안·어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어촌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1사 1촌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안·어촌의 매력요인과 도시의 매력요인을 서로 교환시킴으로써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산수산물 시식·구매 활동, 생태환경, 전통문화 등에 대해 도시민들은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장형성과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그림 5-5> 시장형성 및 도시어촌 교류활성화 기본방향

제5장·연안·어촌 이메니티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245
연안 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시장형성과 교류활성화 유도를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상품화(고부가가치화), 상품에 대한 인증제, 어메니티 참여 지원(인센티브), 교육, 인적자원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연안 어촌 어메니티 상품에 대한 인증제
연안 어촌 어메니티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어메니티 상품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민(소비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증제도는 지리적표시제(수산물이력제87)와 우수해수욕장 인증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우수해수욕장 인증제도는 경관, 수질 안전, 운영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해 평가를 통해 매년 공표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상품적 가치를 국가가 인증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인증된 곳은 이용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안 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고 이에 대한 어메니티 인증제(Amenity Labelling)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시장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토록 해야 한다.

① 연안 어촌 어메니티 상품에 대한 인증제
연안 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어촌계, 기업체에 대한 폭 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어촌내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의 경우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연안 어촌 어메니티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연안 어촌 어메니티 참여 지원
연안 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어촌계, 기업체에 대한 폭 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어촌내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의 경우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연안 어촌 어메니티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안 어촌 어메니티 교육, 인적자원 지원
어메니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방안을 위해 연안 어촌 어업인(공급자)

87)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제5 장

∙ 연안어촌어메니티 창출전략과 정책과제

늘들을 대상으로 교육자원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한다. 연안 어촌어메니티 역시 자원의 발굴과 활용 보다는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위해 1어촌 1램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메니티 자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부가가치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지역의 대학, 연구원, 기타 전문가들이 연안어촌을 전담하여 초기부터 완성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4) 규제 정책

연안어촌어메니티 자원은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한 자원들이다. 자원에 따라서는 자원적 회소가치가 있고 외부의 인위적 이용에 따라 자원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안어촌과 관련한 보전방안은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이 있다. 이러한 보전방안과 규제정책은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메니티 자원 전체를 포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산대학교 SG 연구사업단. 2007. 『호남지역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어메니티에 관한 연구』.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5. 『부산연안 및 소하천 어메니티 개발을 위한 연구』.
서천군. 2005. 『어메니티서천 만들기 종합계획』.
해양수산부. 2006.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수립".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연안·어촌(순천만) 어메니티 자원 조사표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지역발전과 관련한 제반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원에서는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순천시 순천만을 사례로 하여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자원들은 문헌·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추출한 자원들입니다. 해당 자원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하시는 의견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은 연안·어촌공간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가운데 정체성 자원과 상품자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재발견과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원을 총칭함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연안·어촌(순천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국토연구원장 최병선

문의처 : 박상우 책임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화 : 02-2105-2871
팩스 : 02-2105-2859
이메일 : swpark@kmi.re.kr
순천만 자연에 대한 어메니티 인지 여부와 속성, 어메니티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열거한 44개 자원들은 순천만 내에 분포 및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로서,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2006), 순천만 생태계조사(1999), 순천시 관광안 내학자·지도 및 인터넷 자료검색 등 문헌 조사를 통해 추출하였습니다.

1. 아래 표에 열거한 자원 중에서, 귀하께서 “어메니티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원에만 √ 표시해 주십시오.

2. (위의 문항에 √ 표시한 자원에 대해서) 해당 자원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위의 문항에 √ 표시한 자원에 대해서)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table>
<thead>
<tr>
<th>자원 명</th>
<th>1. 어메니티 자원 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환경·생태성</td>
<td>환경·생태성·지역·사회</td>
<td>기능( )</td>
<td>매우 높다</td>
</tr>
<tr>
<td>1 환경갈대군락</td>
<td></td>
<td></td>
<td></td>
</tr>
<tr>
<td>2 칠면초군락</td>
<td></td>
<td></td>
<td></td>
</tr>
<tr>
<td>3 채두루미</td>
<td></td>
<td></td>
<td></td>
</tr>
<tr>
<td>4 갈гал</td>
<td></td>
<td></td>
<td></td>
</tr>
<tr>
<td>5 겨울철새</td>
<td></td>
<td></td>
<td></td>
</tr>
<tr>
<td>6 자연생태관</td>
<td></td>
<td></td>
<td></td>
</tr>
<tr>
<td>7 자연생태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8 갈대축제</td>
<td></td>
<td></td>
<td></td>
</tr>
<tr>
<td>9 금속제</td>
<td></td>
<td></td>
<td></td>
</tr>
<tr>
<td>10 생동여</td>
<td></td>
<td></td>
<td></td>
</tr>
<tr>
<td>11 계절</td>
<td></td>
<td></td>
<td></td>
</tr>
<tr>
<td>12 갈대소리</td>
<td></td>
<td></td>
<td></td>
</tr>
<tr>
<td>13 새소리</td>
<td></td>
<td></td>
<td></td>
</tr>
<tr>
<td>14 갈황계</td>
<td></td>
<td></td>
<td></td>
</tr>
<tr>
<td>15 노루</td>
<td></td>
<td></td>
<td></td>
</tr>
<tr>
<td>16 갈매</td>
<td></td>
<td></td>
<td></td>
</tr>
<tr>
<td>17 갈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18 생동임시지 }
부록 253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1. 어메니티 자원여부</th>
<th>2. 해당 자원의 대표적인 속성(기능) ※ 선택한 것만 체크해주세요</th>
<th>3. 해당 자원의 어메니티 가치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19. 고막양식</td>
<td></td>
<td></td>
<td></td>
</tr>
<tr>
<td>20. 용산전망대</td>
<td></td>
<td></td>
<td></td>
</tr>
<tr>
<td>21. 흉랑길</td>
<td></td>
<td></td>
<td></td>
</tr>
<tr>
<td>22. 생태데크길</td>
<td></td>
<td></td>
<td></td>
</tr>
<tr>
<td>23. 정강</td>
<td></td>
<td></td>
<td></td>
</tr>
<tr>
<td>24. 아온마을</td>
<td></td>
<td></td>
<td></td>
</tr>
<tr>
<td>25. 정산천벽계단</td>
<td></td>
<td></td>
<td></td>
</tr>
<tr>
<td>26. 대태포구</td>
<td></td>
<td></td>
<td></td>
</tr>
<tr>
<td>27. 동천</td>
<td></td>
<td></td>
<td></td>
</tr>
<tr>
<td>28. 이사천</td>
<td></td>
<td></td>
<td></td>
</tr>
<tr>
<td>29. 해룡천</td>
<td></td>
<td></td>
<td></td>
</tr>
<tr>
<td>30. 하수종합처리장</td>
<td></td>
<td></td>
<td></td>
</tr>
<tr>
<td>31. 4계절의 변화</td>
<td></td>
<td></td>
<td></td>
</tr>
<tr>
<td>32. 해영전</td>
<td></td>
<td></td>
<td></td>
</tr>
<tr>
<td>33. 동통아(참초)</td>
<td></td>
<td></td>
<td></td>
</tr>
<tr>
<td>34. 술섬</td>
<td></td>
<td></td>
<td></td>
</tr>
<tr>
<td>35. 방사습지</td>
<td></td>
<td></td>
<td></td>
</tr>
<tr>
<td>36. 생생습지</td>
<td></td>
<td></td>
<td></td>
</tr>
<tr>
<td>37. 자연환경해설사</td>
<td></td>
<td></td>
<td></td>
</tr>
<tr>
<td>38. 와온소공원</td>
<td></td>
<td></td>
<td></td>
</tr>
<tr>
<td>39. 태양광발전소</td>
<td></td>
<td></td>
<td></td>
</tr>
<tr>
<td>40. 무진교</td>
<td></td>
<td></td>
<td></td>
</tr>
<tr>
<td>41. 와온해변</td>
<td></td>
<td></td>
<td></td>
</tr>
<tr>
<td>42. 김승욱&quot;무진기행&quot;</td>
<td></td>
<td></td>
<td></td>
</tr>
<tr>
<td>43. 대태포구안개</td>
<td></td>
<td></td>
<td></td>
</tr>
<tr>
<td>44. 곽재구&quot;포구기행&quot;</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록 253
◆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5. 귀하의 연령은? 만   세

6. 귀하의 순천시 거주기간은?   년   개월

■ 현재 거주지는? ___시 ___구 ___동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 4 편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전략
제1장 머리 말 .......................................................................................................................... 265

제2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개념과 특징 .................................................................................. 269
   1. 도입 원리와 개념 .......................................................................................................... 269
      1) 도입 원리 .................................................................................................................. 269
      2) 개념 ......................................................................................................................... 271
   2.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특징 .............................................................................................. 271
      1) 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 271
      2) 장소성과 위계 .......................................................................................................... 272
      3) 사전 예방성 .............................................................................................................. 272
      4) 지속성 ....................................................................................................................... 273

제3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분류와 유형화 ......................................................................... 275
   1.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분류 ....................................................................................... 275
      1) 기존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분류 ......................................................................... 275
      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분류 .................................................................................. 278
   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조사 ....................................................................................... 278

제4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 사례 ..................................................................... 281
   1. 조사 개요 ...................................................................................................................... 281
제5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관리를 위한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301

1. 보호지역의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 301
   1) 기본방향 ................................................................. 301
   2) 사례 연구 ................................................................. 303
   3) 시사점 ................................................................. 304
2. 국립공원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 305
3. 원시림과 지역자연공원의 어메니티 관리 사례 ................................ 309
4. 에코뮤지엄에 기초한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 310
5. 종합 검토 및 시사점 .............................................................. 312

제6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313

1. 환경지역 어메니티 관리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313
1) 현황 ................................................................. 313
2) 문제점 ............................................................. 315
2. 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316
   1) 정책 방향 ...................................................... 316
   2) 정책 과제 ...................................................... 318

참고문헌 ................................................................. 321
부 록 ................................................................. 325
<table>
<thead>
<tr>
<th>표</th>
<th>제목</th>
<th>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표 1-1</td>
<td>보전지역 패러다임의 변화</td>
<td>266</td>
</tr>
<tr>
<td>표 2-1</td>
<td>보호지역의 변화</td>
<td>270</td>
</tr>
<tr>
<td>표 2-2</td>
<td>환경어메니티의 구성요소 비교</td>
<td>274</td>
</tr>
<tr>
<td>표 3-1</td>
<td>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구분 및 분류</td>
<td>277</td>
</tr>
<tr>
<td>표 3-2</td>
<td>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d>279</td>
</tr>
<tr>
<td>표 4-1</td>
<td>동강 생태·경관보호구역의 지정과정</td>
<td>282</td>
</tr>
<tr>
<td>표 4-2</td>
<td>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 현황</td>
<td>284</td>
</tr>
<tr>
<td>표 4-3</td>
<td>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이용현황</td>
<td>284</td>
</tr>
<tr>
<td>표 4-4</td>
<td>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내 동강 수질변화추이</td>
<td>285</td>
</tr>
<tr>
<td>표 4-5</td>
<td>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휴식지의 토지이용규제</td>
<td>286</td>
</tr>
<tr>
<td>표 4-6</td>
<td>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국개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td>
<td>287</td>
</tr>
<tr>
<td>표 4-7</td>
<td>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사유지 매입추이</td>
<td>288</td>
</tr>
<tr>
<td>표 4-8</td>
<td>주민인식에 기초한 어메니티 자원 구분</td>
<td>290</td>
</tr>
<tr>
<td>표 4-9</td>
<td>신뢰도 분석 결과</td>
<td>294</td>
</tr>
<tr>
<td>표 4-10</td>
<td>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td>
<td>295</td>
</tr>
<tr>
<td>표 4-11</td>
<td>세부항목별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 분석결과</td>
<td>296</td>
</tr>
<tr>
<td>표 4-12</td>
<td>주민인식에 기초한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개선사항</td>
<td>298</td>
</tr>
<tr>
<td>표 4-13</td>
<td>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필요항목</td>
<td>299</td>
</tr>
<tr>
<td>표 5-1</td>
<td>IUCN의 보호지역의 관리목적</td>
<td>302</td>
</tr>
</tbody>
</table>
표 5-2 우린라 보호지역의 IUCN의 카테고리에 따른 이용유형 303
표 5-3 환경지역 어메니티자원의 관리 및 창출전략 307

표 6-1 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317
표 6-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유형 319
<table>
<thead>
<tr>
<th>그림</th>
<th>설명</th>
<th>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1-1</td>
<td>전체 연구과정</td>
<td>267</td>
</tr>
<tr>
<td>4-1</td>
<td>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이용규제</td>
<td>283</td>
</tr>
<tr>
<td>4-2</td>
<td>주민인식에 기초한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기능) 분석</td>
<td>292</td>
</tr>
<tr>
<td>4-3</td>
<td>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td>
<td>293</td>
</tr>
<tr>
<td>4-4</td>
<td>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 실행격자 분석</td>
<td>297</td>
</tr>
<tr>
<td>5-1</td>
<td>아소구주국립공원의 에코뮤지엄</td>
<td>311</td>
</tr>
</tbody>
</table>
머리말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과 다른 차원에서 국토 어메니티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지역(protected area)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창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 어메니티 자원은 "국토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 등)에 존재하는 자연그대로 혹은 인위적인 자원을 포함한 유·무형적 자산"을 의미한다. 국토공간은 도시지역, 농산촌지역, 연안·어촌지역, 환경지역(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등으로 구분한 경우 각 국토공간단위의 어메니티는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 어메니티는 각 공간단위별 어메니티의 단순한 총합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 연구는 환경지역에 초점을 두어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전략을 논의 하고자 한다. 환경지역은 좁은 의미에서 고유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지키기 위하여 법제도로 지정한 보호지역(protected area)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고유한 생태·환경적 특성을 보이는 자연환경지역을 총칭한다.
여기서는=wimmi의 환경지역 어메니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는 보호지역의 어메니티 보전과 복원 등을 위한 정책개발의 시급성과 주민참여와 경제사회적 활성화 등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1-1] 보전지역 패러다임의 변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존의 보전지역</th>
<th>변화되고 있는 보전지역</th>
</tr>
</thead>
</table>
| 목적         | ・보전을 위한 지역설정  
              ・특정 야생동식물과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해 주로 관리  
              ・야생성 차원에서 가치 보전  
              ・보전을 중요시         |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 지역설정  
              ・과학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가 강하게 반영된 지역설정  
              ・지역민의 생활을 존중한 관리  
              ・야생성의 문화적 중요성이 가치 부여  
              ・복원과 복구의 고려 |
| 거버넌스     |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  | ・많은 파트너에 의해 운영 |
| 지역주민     | ・지역민과 상반된 계획과 관리  
              ・지역의 생활이 고려되지 않은 관리 | ・지역민의 요청을 존중시키는 관리  
              ・지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리 |
| 주변상황의 고려 | ・벌도로 개발  
              ・하나의 섬으로서 관리 | ・국가, 지역, 국제적 시스템의 역할로 계획  
              ・네트워크로서 개발됨(기관별보전지는 지역, 환경지역 및 코리도에 의한 연계를 강조) |
| 인식         | ・국가자산으로 주로 고려  
              ・국가적 관심으로서 관리  |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도 고려  
              ・국제적인 관심으로도 고려 |
| 관리기술     |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관리  
              ・기술관련적 방법에 의한 관리 |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리에서 관리  
              ・정치적 고려에 의한 관리 |
| 재정         | ・납세자에 의한 지불  | ・다양한 자금원에 의한 지불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개인들에게 의한 지불 |
| 관리기술     | ・과학자와 자연자원 전문가에 의한 관리  
              ・전문가 중심 |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개인들에게 의한 관리  
              ・지역적 지식에 근거 |

자료: Phillips(2003), Brown et al. (2005)

도 중산간 등), 사막지역(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미국 아리조나사막 등)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우선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개념과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환경지역(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구)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관리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와 국내 관련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환경지역의 어메니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환경지역에 초점을 두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한 연구로서 그 가치를 자랑한다.

궁극적으로 환경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 전략을 통해 환경지역의 보호, 지역주민의 참여, 민권 저감 등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이용요구 강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사례연구는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1-1] 전체 연구과정

<table>
<thead>
<tr>
<th>환경지역 어메니티의 개념과 유형분류</th>
<th>문헌연구</th>
</tr>
</thead>
<tbody>
<tr>
<td>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 사례연구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td>
<td>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td>
</tr>
<tr>
<td>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td>
<td>문헌연구</td>
</tr>
<tr>
<td>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td>
<td>전문가 자문</td>
</tr>
<tr>
<td>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정책과제 도출</td>
<td>전문가 자문</td>
</tr>
</tbody>
</table>

제1장 머리말 267
이 장에서는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등 국토를 구성하는 공간단위와는 달리 환경지역어메니티의 개념과 도입배경, 특성들을 다루고 있다.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다양성, 장소성과 위계, 사전 예방성, 지속성을 주요 특질로 한다.

1. 도입 원리와 개념

1) 도입 원리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도입 원리를 검토하기 전에 도시 및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이 두 지역의 어메니티 도입 배경과의 차이를 검토하였 다.

도시 어메니티는 1909년 영국의 도시계획법에 그 근원을 두면서 적절한 위생 상태, 편리성 등 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의 총체(總體)나 그 질에 관심을 보였 다. 그래서, 역사·문화적 유산이나 공동체 관계를 포함하여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획원리이자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농촌어메니티는 일본, 유럽연합 등 OECD를 중심으로 농산촌의 활성화 및 지 원방안의 마련에 초점을 두고 도입되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가 중요한 관심사이자 정책개념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우루_OVER圆(UR: Uruguay Round) 협상에 따른 시장개입정책의 감착스러운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며, 인구 및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내생적 개발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김정섭, 2002; 최수명, 2002). 그래서 농촌어메니티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화가 가능한 대상의 발굴과 이들 자원의 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도시·농촌지역의 어메니티와 달리 환경지역의 어메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개념화를 시도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논문에서 환경어메니티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들은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가치추정이나 이주의사 등의 환경어메니티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도입이 필요한 배경에는 보호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① 지역적 가치로서의 지역민의 생각과 요구,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산(기반) 가치를 고려하고 ② 생태적 가치 외에도 생태적 자원의 사회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며 ③ 보전에서 보전과 복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도시 어메니티가 지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원리와 농촌 어메니티가 지닌 경제적 활성화(지역발전) 원리와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즉, 환경지역 어메니티 도입은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을 전제로 생태·생물, 문화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태서비스(ecological service)를 유지·제고하는 관리원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가치와 사회·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한다. 보호지역(protected area)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한 관리대상도 생물다양성이나 자연·문화자원에서 벗어나 자연과 문화적 가치와 과정, 생태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존(1994년)</th>
<th>현재(IUCN 스페인 총회, 2007)</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생물다양성, 자연·문화자원</td>
<td>nature, cultural value and process, ecosystem service</td>
</tr>
<tr>
<td>목적</td>
<td>보호와 유지</td>
<td>보호와 유지</td>
</tr>
<tr>
<td>수단</td>
<td>법 또는 기타 효과적 수단</td>
<td>법 또는 기타 효과적 수단</td>
</tr>
</tbody>
</table>

270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2) 개념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일정한 환경지역 고유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교감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유·무형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① 오랫동안 자연형성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며 ② 독특하고 희귀하거나 고유한 특성을 지녀 다른 곳과 차별되고 교육 및 과학적 중요성을 지니며 ③ 동식물의 서식과 생존이 인간의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도 조정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등의 특성들이 모여 환경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환경지역 내 공간 환경의 질과 거주민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공간 환경의 질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생물종다양성, 경관, 식생 등이 해당하고, 생활의 질에는 공공편익시설, 주거시설, 경제활동 등이 포함한다.

2.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특징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국가나 지역적 측면에서 그 독특성이 인정되고 미래 후손을 위해 관리해야 할 환경·생태적 유산(legacy)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주요 특징은 OECD의 어메니티 특성90)을 토대로 다양성, 장소성과 위계, 사전예방성, 지속성을 지닌다.

1) 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식생, 생물종, 경관, 지형·지질, 하천 등이 어우러진 생물 다양성(diversity)을 보이고,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연계되는 전통지식과 연어, 생활

90) 어메니티의 주요 특징은 OECD(1999)는 어메니티 특성을 공공성, 비배재성과 비경합성, 공공성, 비가역성 등으로 제시한다.
양식 등 문화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채합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UNESCO 세비야 전략의 목표1(Goal-1)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고유한 생물종이나 지형·지질 등이 존재하고 이를 설명하는 제주방언이 있어 생물 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연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2) 장소성과 위계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일정한 공간적 입지와 영향권역을 지녀 관리도 공간적 차별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성은 크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의한 ‘영향의 공간성’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분포의 공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성으로 인해 어메니티는 특정 장소에만 존재하는 지리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관리목표나 관리수준 등에 따라 ‘핵심지역 (core area), 완충지역 (buffer area), 전이지역 (transition area)’과 같은 공간적 위계를 지니게 되는데91),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이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적은 이용(예: 교육) 등이 가능하다.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나 이에 인접해 있으며, 핵심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교육, 생태관광, 기초연구, 융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과 지역주민의 자원이 용를 고려한다. 전이지역은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인간점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전 예방성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특성상 한번 훼손하면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가역적 특성을 지니며 사전예방 노력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사전예방은 보전(conservation), 발전(development), 지원(logistics)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보전은 보호가 필요한 유전자원, 생물종(species), 생태계,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고, 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인간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원은 시범사업과 환경교육과 훈련,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전과 발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4) 지속성

환경지역 어메니티에 대한 이해(理解)와 가치평가는 고정적이지 않고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주민 등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어메니티에 임주되거나 창조되는 등 변화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원 활용과 가치창출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새로운 자원의 발굴과 가치창출 등의 역동성으로 인해 환경지역 어메니티는 지속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환경지역 자원이용이 환경용량이나 임계점을 넘어서 이용하게 되면 흡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경지역은 그 지정 및 관리의 근거가 되는 어메니티의 지속성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특히,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도이용이나 행위제한, 행적적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는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합의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역량 강화와 함께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환경지역 관리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참여 없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92)
표 2-2 환경어메니티의 구성요소 비교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연구주제</th>
<th>환경어메니티 주요내용</th>
<th>비고</th>
<th>주요관점</th>
</tr>
</thead>
<tbody>
<tr>
<td>Amedee Mollard, et. al.</td>
<td>· 레크레이션주택(커티지) 임대영향요인 분석</td>
<td>· 고도(meter) · 산림지(%) TSA · 농경지(%) TSA · 초지(%) TSA · 관목지(%) TSA</td>
<td>· 영역요인 (지역별 커티지분포 비율 등과 공공시설,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포함)</td>
<td>토지·임대가치(객관적 지표)</td>
</tr>
<tr>
<td>Chris T. Bastian, et. al.</td>
<td>· Womying주에서 생태적으로 양호한 농지의 영향요인 분석</td>
<td>· 헬크서식지면적 · 하천길이 · 남산수확량 · 여유밀도 · 자연경관</td>
<td></td>
<td></td>
</tr>
<tr>
<td>Nestor M. Arguea and Cheng Hsiao</td>
<td>·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어메니티의 가치 산정</td>
<td>· 소음 · 범죄 · 쓰레기 · porch</td>
<td></td>
<td></td>
</tr>
<tr>
<td>Hui, E.C.M., et. al.</td>
<td>·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어메니티의 가치 산정</td>
<td>· 바다경관 · 소음 · 공기질 · 그린벨트</td>
<td></td>
<td></td>
</tr>
<tr>
<td>Thilak Mallawaarachchi, et. al.</td>
<td>· 호주 도시확장지역에서의 업장산과 보전 가치를 분석</td>
<td>· 화귀·특이식생 · 화귀·특이식생의 보전의식(리커트척도)</td>
<td></td>
<td>지불·이주동기(주관적 지표)</td>
</tr>
<tr>
<td>Liaw K-L, et. al.</td>
<td>· 노년층(흑인과 백인)의 이주동기 분석</td>
<td>· 기후 · 어울 놀이 공원 · 호림 날 · 경관과 레크레이션 - Gold Coast</td>
<td></td>
<td>도시성장모델</td>
</tr>
<tr>
<td>JunJie Wu</td>
<td>· 도시경제모델에 환경적어메니티 요소를 도입 도시성장과 커뮤니티 특성을 설명</td>
<td></td>
<td></td>
<td>도시성장모델</td>
</tr>
</tbody>
</table>

---

92) Grazia Borrini-Feyerabend et. al.(2004),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 IUCN Series No.11

274 환경지역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이 장에서는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 및 발굴을 위해, OECD, UNESCO 등 해외의 자원분류체계 등을 검토하여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유형화하였다. 도시, 농산촌, 연안 어촌과의 비교 검토 등을 위해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사회자원 등의 분류는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

1.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분류

1) 기존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분류

OECD(1999)에서는 어메니티 유형을 인위적 기여정도에 따라 ①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②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③ 인위적 어메니티로 구분한다.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는 원시림, 사막의 야생지, 고산지대, 독특한 군도와 섬이 연해있는 해안, 국립공원 등이 해당되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는 목장, 다락논, 고유 건축물, 지방전통과 특산물, 지역자연공원 등이고, 인위적 어메니티는 역사유적지, 아스카마을 문화경관, 마을축제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을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하는 분류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자연자원은 대기질, 소음, 미기후, 수자원, 지형, 지질 등이고, 문화자원은 산림자원 등 경관과 지정전문건조물, 전통주택 등이다. 사회적 자원에는 마을놀이, 마을관리와 홍
보,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도농교류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환경지역 어메니티 유형은 생태계 유형분류나 자연자원 분류, 어메니티 가치평가 관련연구, 자원조사 등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다. UNESCO는 생태계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습지, 섬과 해안지역, 건조지역, 자연림, 사막 등의 단일 생태계와 자연공원, 도시지역 등 복합생태계로 구분한다. EU(2003)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원 유형을 천연자원, 환경매체, 유통자원, 토지, 생물자원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들 유형은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천연자원은 모래, 자갈, 광석, 고령토, 화석연료 등 광물자원 (mineral)과 농업생산, 벌채 등 생산자원(biomass)이 해당된다. 환경매체는 동식물 등의 생존기반이 되는 공기, 물, 토양 등이며, 유통자원(flow resource)은 바람, 지열, 태양에너지, 생물 등이며, 유동자원의 경우 그 에너지는 전환될 뿐 상실되지 않는 자원을 말한다. 토지는 도시 등 경주지, 기반시설, 산업과 농업 등과 같은 인간의 이용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하천 등을 위한 공간(space)을 말한다.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은 동물, 식물과 생물다양성, 역동적인 생태계 순환, 유전 정보 등이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어메니티 가치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표 2-2 참조)에서 환경지역 어메니티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 어메니티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크게 기후, 온도, 고도 등 기상·지형적 조건과 희귀동식물 서식지, 경관, 노거수 등 자연적 측면, 대기, 소음, 범죄 등 생활환경 경적 측면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porch, 사찰(문화유적 등) 등의 건축문화적 요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에서 환경과 관련된 어메니티 자원을 크게 자연생태자원과 생활환경자원, 건축문화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조사의 내용도 어메니티 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조사는 전국자연환경조사와 기타 관련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국자연환경조사에는 지형, 생물, 영양요소, 양식물·동물, 기후적 조건, 하천, 하천수질 등 총 9개 자원으로 구성되며, 기타 관련조사에는 화구·하구역, 해안사구, 하천, 하천수질, 하천수질 조류·빠른 조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무인도서, 자연동굴, 야생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table>
<thead>
<tr>
<th>대분류</th>
<th>중분류</th>
<th>어메니티 자원 분류</th>
</tr>
</thead>
<tbody>
<tr>
<td>자연환경</td>
<td>특이지형·지질(절벽, 동굴, 해안사구 등)</td>
<td>자연천천(폭포, 계곡, 호수 등 포함)</td>
</tr>
<tr>
<td></td>
<td>보호·취약시설물</td>
<td></td>
</tr>
<tr>
<td></td>
<td>야생동·식물생태지(절대경기, 숲지 등)</td>
<td>유전자정보(유전자보호림 등)</td>
</tr>
<tr>
<td>환경기능(환경서비스)</td>
<td>맑은 공기</td>
<td></td>
</tr>
<tr>
<td></td>
<td>깨끗한 물</td>
<td></td>
</tr>
<tr>
<td></td>
<td>자연 소리(절, 물 등)</td>
<td></td>
</tr>
<tr>
<td></td>
<td>미기후</td>
<td>부드러운 바람</td>
</tr>
<tr>
<td></td>
<td>-</td>
<td>풍부한 일조</td>
</tr>
<tr>
<td></td>
<td>-</td>
<td>풍부한 적설량</td>
</tr>
<tr>
<td>자연경관</td>
<td>산림경관(산림, 동선스카이라인 등)</td>
<td></td>
</tr>
<tr>
<td></td>
<td>파노라마경관(산 정상, 사막 등)</td>
<td></td>
</tr>
<tr>
<td></td>
<td>하천경관</td>
<td></td>
</tr>
<tr>
<td>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td>
<td>역사</td>
<td>전통적자원(상, 상하, 정자, 사무, 불상 등)</td>
</tr>
<tr>
<td></td>
<td>문화</td>
<td>유명인물유적(서화 등)</td>
</tr>
<tr>
<td></td>
<td></td>
<td>종교물(성당 등)</td>
</tr>
<tr>
<td></td>
<td></td>
<td>지명유래 및 전설(산정바위 등)</td>
</tr>
<tr>
<td></td>
<td>경제</td>
<td>공공시설(마을회관, 노인정, 공원 등)</td>
</tr>
<tr>
<td></td>
<td></td>
<td>생산기공시설(농산물가공, 농임업생산시설 등)</td>
</tr>
<tr>
<td></td>
<td></td>
<td>공동체활동(축제, 대동제, 교류, 휴식활동 등)</td>
</tr>
<tr>
<td></td>
<td></td>
<td>생태문화품질</td>
</tr>
</tbody>
</table>
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분류

이 연구에서는 EU(2003) 등 선행연구를 고려하되, OECD(1999)의 어메니티 유형의 분류를 토대로 ①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 ②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 ③ 인위적 어메니티 자원으로 구분한다.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은 원시림, 지형, 생물자원, 유동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 환경기능, 자연경관의 3가지 세부 분야로 구분한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은 역사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구분되며, 인위적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자원, 사회(공동체)자원으로 구성된다. 경제자원에는 광물, 재생에너지, 농업자원, 수자원, 생태문화관광, 생태기술 등을 포함하고 사회자원에는 공공시설 생산자원, 공동체활동, 생태문화자원활동, 마을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 어메니티 자원유형별로포함되는 자원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조사

김승환 외(1997)는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문헌조사를 통한 자원목록 작성 → 방문 조사 및 어메니티 워칭(amenity watching) 조사를 통한 자원 발굴 및 목록갱신 → 어메니티 자원의 평가(기존자원, 잠재자원, 발굴자원) → 어메니티자원의 확정 및 지도화”의 4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김승환 외(1997)의 어메니티 자원조사기법을 토대로 자원 조사 및 발굴, 필터링, 인벤토리 작성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검색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자원 목록화(1차 목록) → 어메니티 워칭(amenity watching) 조사 및 지역대표자 인터뷰를 통한 자원 발굴 및 목록화(2차 목록) → 관련전문가 검토를 통한 자원 필터링(1차 필터링) → 설문조사를 통한 자원필터링(2차 필터링) →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inventory) 작성 및 지도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조사는 실제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과정</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 (자원 발굴)</td>
<td>자원목록화(1차 목록)</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r>
<td></td>
<td>아메니티 위치와 지역대표자 인터뷰(2차 목록)</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r>
<td></td>
<td>관련전문가 검토(1차 필터링)</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r>
<td></td>
<td>주민설문조사에 의한 자원필터링(2차 필터링)</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r>
<td>2단계 (자원필터링)</td>
<td>관련전문가 검토(1차 필터링)</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r>
<td></td>
<td>주민설문조사에 의한 자원필터링(2차 필터링)</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r>
<td>3단계 (인벤토리 작성)</td>
<td>자원 인벤토리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td>
<td>![표 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과정</td>
</tr>
</tbody>
</table>

제 3 장・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분류와 유형화 279
이 장에서는 환경지역에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창출 사례를 다루고 있다.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위해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사 하였다. 동 사례지역은 면적이 가장 크고 다양한 자연생태, 사회·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지정후 약 5년이 경과하여 변화 양상과 지원 효과를 종합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① 다양한 자연생태 및 문화 등의 자원분포 특성을 ②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와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사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 지형 또는 지질의 특이성, 자연환경의 유지, 학술적 연구 등을 위해 지정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국가 및 시·도정부가 각각 지정할 수 있다. 2005년 말 현재 국가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동강유역 등 총 14개 지역(255,604㎢)이고, 시·도가 지정한 지역은 광양 백운산 등 13개 지역(37,941㎢)이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사례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지정

---

94) 우리나라의 환경지역은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물보호법), 특정도시,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이 대표적
면적이 64.97㎢으로 가장 크면서 다양한 자연생태, 사회·문화자원이 분포하고, 둘째, 2002년에 지정된 후 약 5년이 경과하고 있어 그 지정 및 관리 효과에 대한 평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가수 8경 등 지역주민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 노력과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례지역의 일반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사항</th>
<th>핵심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990년</td>
<td>대홍수(9.10-12일, 393㎜의 집중호우)</td>
<td>• 31명의 인명 및 1,485억 원의 재산 피해로 댐 건설 논의 착수</td>
</tr>
<tr>
<td>1997년</td>
<td>영월댐 건설예정지역 고시</td>
<td>• 1990년 12월-92년 8월까지 댐 건설 타당성 조사(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를 토대로 지정</td>
</tr>
<tr>
<td>2000년</td>
<td>영월댐 백지화 발표(6월)</td>
<td>• 1999년 9월에 '댐 건설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00년 5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댐 건설보다는 보전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림</td>
</tr>
<tr>
<td>종합대책 발표(10월)</td>
<td>•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포함 -자연휴식지와 생태계보전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정 -농가부채 부담완화와 정주기반시설(도로, 교량 등) 확충</td>
<td></td>
</tr>
<tr>
<td>2001년</td>
<td>자연휴식지 지정(12월)</td>
<td>•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지정행동의 집중 방문과 하천변의 취사 및 야영행위, 도로 등으로 하천 생태계가 급속히 해손</td>
</tr>
<tr>
<td>2002년</td>
<td>생태경관보호구역 지정(8월)</td>
<td>• 2002년 10월부터 동강유역 생태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지자체단,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td>
</tr>
</tbody>
</table>

자료: 환경부(2006), 환경편람

표 4-1 동강 생태·경관보호구역의 지정과정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정선군 정선읍 광하대교에서 영월군 영월읍 설세까지 46km 동강구간 중 수면을 포함하면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관리가 시급한 국·공유지 64.97㎢가 대상\(^{95}\)이고,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 31㎢ 중 국가에서 매입한 토지를 포함한 전체면적은 95.97㎢에 이른다.

특히, 전이구역 3.37㎢는 동강유역에 포함되지 않고 자연휴식지에 포함되어, 자연휴식지 면적이 동강생태보전지역 면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text{그림 4-1}>\)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걸치는 행정구역은 4개 읍·면, 13개 행정리이지만, 보전대상인 하천을 포함하는 17개 행정리를 동강유역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구 및 세대수는 2001년의 1,746명, 637세대에서 2006년 2,249명, 961세대로 연평균 5.8%(인구), 10.2%(세대)가 증가\(^{96}\)하였지만, 세대만 가구원수

\(^{95}\) 강원 영월군 영월읍(거운리, 석목리, 문산1·2리 일원), 정선군 정선읍(광하리, 고암리, 가수리 일원) 및 신동읍(운치2·3리, 고성리, 덕천리 일원), 평창군 미탄면 일원(기화리, 마하리 일원)이며, 핵심지역에 해당

제 4장 환경지역 아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사례 283
부르는 2.7인에서 2.3인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토지이용(지목)의 경우 전체 면적(95.97㎢)에서 임야가 80㎢(83%), 전(田) 8㎢(8%), 하천 7.1㎢(7%)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도로(0.3%), 대지(0.2%)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 현황

(단위: 인, 호)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음면별</th>
<th>리별</th>
<th>2001 인</th>
<th>세 대</th>
<th>2006 인</th>
<th>세 대</th>
</tr>
</thead>
<tbody>
<tr>
<td>영월군</td>
<td>영월읍</td>
<td>거운・문산・삼죽리</td>
<td>625</td>
<td>227</td>
<td>678</td>
<td>286</td>
</tr>
<tr>
<td>정선군</td>
<td>정신음</td>
<td>길암・광하・가수리</td>
<td>517</td>
<td>170</td>
<td>828</td>
<td>305</td>
</tr>
<tr>
<td></td>
<td>신동음</td>
<td>운치・고성・덕천리</td>
<td>282</td>
<td>110</td>
<td>344</td>
<td>161</td>
</tr>
<tr>
<td>평창군</td>
<td>미탄면</td>
<td>기화・바하・수정・한탄리</td>
<td>322</td>
<td>130</td>
<td>399</td>
<td>196</td>
</tr>
<tr>
<td>계</td>
<td>4개 읍・면</td>
<td>13개 리</td>
<td>1,746</td>
<td>637</td>
<td>2,249</td>
<td>961</td>
</tr>
</tbody>
</table>

자료: 원주지방환경청(2005),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해당군청 통계연보(2006)

(표 4-3)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이용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임야</th>
<th>전</th>
<th>하천</th>
<th>도로</th>
<th>대지</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총면적</td>
<td>96,351 (100%)</td>
<td>80,178 (83)</td>
<td>8,105 (8)</td>
<td>7,066 (7)</td>
<td>328 (0.3)</td>
<td>214 (0.2)</td>
<td>660 (0.7)</td>
</tr>
<tr>
<td>국・공유지</td>
<td>64,969</td>
<td>56,883</td>
<td>278</td>
<td>7,029</td>
<td>311</td>
<td>3</td>
<td>465</td>
</tr>
<tr>
<td>사유지</td>
<td>31,382</td>
<td>23,295</td>
<td>7,827</td>
<td>37</td>
<td>17</td>
<td>211</td>
<td>195</td>
</tr>
</tbody>
</table>

자료: 원주지방환경청(2005),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주요 자연환경으로는 총 1,840(천연기념물 10, 멸종위기 19종 등)의 동물과 총 956종(사유 4, 동강 유일종 3, 희귀 식물종 188 등)의 식물,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71개의 동굴과 동강12경, 모래톱 50여개, 단애분포 등의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http://donggang.gwd.go.kr).

또한 양식장, 축산시설 등 점오염원과 경작지 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직·간접 유입에 따른 수질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원주지방환경청, 96) 일반적인 농촌지역 및 강원도 추세(1,559천 명(2000년)→1,515천 명(2006년)과 비교하여 상반된 추세임

284 환경지역 어에너지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2005년. 특히, 상류지역의 고랭지 경작지와 도압댐으로부터 흙탕물이 유입되어 동강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유역내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여 수질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4〉 강 생태.Succession 시 역내 동강 수질변화추이 (단위: BOD(mg/L)기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0</th>
<th>2001</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h>2005</th>
</tr>
</thead>
<tbody>
<tr>
<td>정선</td>
<td>6월 12월</td>
<td>정선</td>
<td>6월 12월</td>
<td>정선</td>
<td>6월 12월</td>
<td>정선</td>
</tr>
<tr>
<td>광하리</td>
<td>1.0</td>
<td>0.7</td>
<td>1.8</td>
<td>0.7</td>
<td>0.8</td>
<td>0.5</td>
</tr>
<tr>
<td>영월읍</td>
<td>영월읍</td>
<td>영월읍</td>
<td>영월읍</td>
<td>영월읍</td>
<td>영월읍</td>
<td>영월읍</td>
</tr>
<tr>
<td>삼옥리</td>
<td>0.6</td>
<td>0.8</td>
<td>1.4</td>
<td>0.7</td>
<td>0.6</td>
<td>0.4</td>
</tr>
</tbody>
</table>

자료: 환경부(2006), 환경편람

3. 사례지역의 자원관리 및 지원 실태

1) 계획적 관리: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규제관리: 행위 및 토지이용규제

동강유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동강 생태.Succession 시역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로 토지이용규제를 받으며, 자연휴식지로서의 규제도 같이 받는다.

핵심구역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서 기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국공유지(65㎢)가 해당된다.
다. 여기에서는 기존 건축면적의 2배 이하 증축만이 허용되고 거주주민의 지속적 영농활동은 가능하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결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포위된 사유지(31㎢) 중 국가에서 매입한 사유지가 해당된다. 기존 건축면적의 2배 이하 증축과 함께 지목상 대지일 경우 건축 및 시설물 설치, 생태탐방 및 학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table>
<thead>
<tr>
<th>토지이용규제</th>
<th>핵심구역</th>
<th>완충구역</th>
<th>전이구역</th>
<th>자연휴식지</th>
</tr>
</thead>
<tbody>
<tr>
<td><strong>&lt;작용&gt;</strong></td>
<td>핵심구역의 해당사항</td>
<td>핵심구역의 해당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lt;금지&gt;</td>
<td>&lt;금지&gt;</td>
<td></td>
<td></td>
</tr>
<tr>
<td></td>
<td>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지정이전 영농환경을 위해 필요한 행위</td>
<td>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지정이전 영농환경을 위해 필요한 행위</td>
<td></td>
<td></td>
</tr>
<tr>
<td></td>
<td>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td>
<td>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법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td>
<td>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법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td>
<td></td>
<td></td>
</tr>
<tr>
<td></td>
<td>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td>
<td>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td>
<td></td>
<td></td>
</tr>
<tr>
<td><strong>&lt;활용&gt;</strong></td>
<td>조과군의 해당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신축: 건축연면적이 130㎡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td>
<td>신축: 건축연면적이 390㎡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td>
<td></td>
<td></td>
</tr>
<tr>
<td></td>
<td>증축: 기존 건축면적이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td>
<td>증축: 기존 건축면적이 2배 이하이거나 건축물의 종수가 3층 이하</td>
<td></td>
<td></td>
</tr>
<tr>
<td></td>
<td>신축: 건축연면적이 65㎢, 31㎢, 3.3㎢, 99.3㎢</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86 환경지역 에너지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전이구역은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자연휴식지 중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국 공유지(3.3㎢)가 해당된다. 이들 핵심 및 완충, 전이지역은 모두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토지형질변경 및 3층 이상 건물 설치시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동강유역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핵심지역에 해당한다.

| 표 4-6 | 동강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국제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 관리지역 | 계(㎢) |
| 64.7 | 31.6 | 0.4 | 96.7 |

주: 농도지역구분은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전이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분 자료: 원주지방환경청(2007),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세부실천계획

3) 토지매수 등 지원실태

동강유역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사유지의 공유화(공유화)를 위해서 토지매수를 추진중이다. 동강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경우 2006년까지의 사유지 매입은 1,906천㎡로 전체 사유지(8,100천㎡)의 23.5%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구역의 재설정과 동강유역의 사유지 중 개발 잠재력이 큰 토지와 주요 동식물의 서식지를 우선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강유역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경우 사유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재산상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여전히 보전지역 내 사유지역이 많이 남아있어 매입 여지가 많고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97)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호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 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임이고, 자연환경보호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 환경지역 아에너지 자원 발굴과 창출사례 287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사유지 매입추이

<table>
<thead>
<tr>
<th>년도</th>
<th>2003</th>
<th>2004</th>
<th>2005</th>
<th>2006</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매수면적</td>
<td>336,736㎡ (72필지)</td>
<td>654,481㎡ (224필지)</td>
<td>914,481㎡ (307필지)</td>
<td>2,428,032㎡ (894필지)</td>
<td>4,335,762㎡ (290필지)</td>
</tr>
<tr>
<td>매수금액</td>
<td>3,800백만</td>
<td>9,800백만</td>
<td>8,000백만</td>
<td>7,816백만</td>
<td>39,800백만</td>
</tr>
</tbody>
</table>

주: 본 사유지 매입추이는 계획에 근거한 자료로 실제투자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①생태계 및 생물다양성보전방안 ②동강수질보전대책 ③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득증대방안 ④동강유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강유역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동강유역의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생태계 쇠퇴를 막기 위한 관리,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강지역의 수질보전대책을 위하여 동강주변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강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득 증대 방안으로 동강의 생태자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동강유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4) 주민참여 및 관리체계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는 환경부(원주청)와 자치단체(강원도, 정선군·영월군·평창군)에서 추진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및 3개 군에서는 관리사무소 설치 및 토지매수 등을 담당한다.

동강유역 관리 등 주민참여를 위한 생태계보전협의회, 사유지 매입협의회, 유관기관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4.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 및 발굴

1) 어메니티 자원 발굴

김승환 외(1997)의 어메니티 자원조사기법을 토대로 동강우역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자원목록 및 필터링을 거쳐 도출한 동강우역의 어메니티 자원은 ① 거의 자연이대로의 어메니티 자원 45개와 ②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어메니티 자원 8개, ③ 인위적 어메니티 자원 17개로 나타났고, 개선·복원이 필요한 자원은 5 개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개선복원이 필요한 자원 5개를 제외하고, 동강우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70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자연이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인위적 어메니티 자원이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어메니티 자원은 1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강우역 생태·경관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인지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9월 15일~16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00부중에서 85부가 조사되었다.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주민응답률을 토대로 응답률에 따라 핵심자원, 주요자원, 일상자원, 잠재자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75%이상의 높은 주민응답률을 보인 핵심자원은 동강, 정선아리랑, 동강할미꽃, 타포탈의 4개이고, 50~75%의 응답률을 보인 자원은 백종동굴, 어라연, 동강폭포, 동강할미꽃 폭포 등 7개가 해당한다. 일상자원은 조양강, 나리소, 가수리 오송정, 화물다람쥐, 닭비, 까막딱다구리, 원앙, 배가사리, 수동 섶다리, 연포마을, 황포담백정조장, 고성리 유적지 고인돌, 목넘기는 소리, 트래킹, 등 29개이다. 잠재자원은 송전, 곤지산, 어전, 하미건너편굴(1,2), 수달굴, 석층, 황포방울, 생태체험학습장(정선), 민물고기생태관(평창) 등 30개 자원이 해당된다. 어메니티 가치평가(평균, 5점 척도)은 핵심자원과 주요자원이 4.0을 넘고, 일상자원과 잠재자원은 각각 3.8, 3.6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4-8 주민인식에 기초한 어메니티 자원 구분(주민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핵심자원 (75% 이상)</th>
<th>주요자원 (50-75%)</th>
<th>임상자원 (25-50%)</th>
<th>잡재자원 (25%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기개 지역 대표어메니티 자원</td>
<td>동강, 동강하천, 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d>매향동굴, 어라연수달, 탕강,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d>동강, 동강하천, 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d>동강, 동강하천, 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r>
<tr>
<td></td>
<td>(75% 이상)</td>
<td>(50-75%)</td>
<td>(25-50%)</td>
<td>(25% 이하)</td>
</tr>
<tr>
<td></td>
<td>거의</td>
<td>자연그대로의</td>
<td>어메니티 자원</td>
<td>동강, 동강하천, 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r>
<tr>
<td></td>
<td>2</td>
<td>5</td>
<td>16</td>
<td>22</td>
</tr>
<tr>
<td></td>
<td>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어메니티 자원</td>
<td>운천리, 수목, 수목터널, 고인돌, 경상고, 수목터널, 고인돌, 경상고성</td>
<td>율곡리, 수목터널, 고인돌, 경상고성</td>
<td>율곡리, 수목터널, 고인돌, 경상고성</td>
</tr>
<tr>
<td></td>
<td>-</td>
<td>-</td>
<td>5</td>
<td>3</td>
</tr>
<tr>
<td></td>
<td>인위적 어메니티 자원</td>
<td>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d>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d>매향동굴, 어라연수달,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td>
</tr>
<tr>
<td></td>
<td>2</td>
<td>2</td>
<td>8</td>
<td>5</td>
</tr>
<tr>
<td></td>
<td>개수</td>
<td>4</td>
<td>7</td>
<td>29</td>
</tr>
<tr>
<td></td>
<td>어메니티 가치평가 (평균)</td>
<td>40</td>
<td>41</td>
<td>38</td>
</tr>
</tbody>
</table>

주 1) 신동 동강생태대학원(정산) 및 생태체험학습장(정산), 동강생태정보센터(영월)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2) 고성산성과 고성산성제 석다리 축제를 하나로 묶은 경우 핵심자원으로도 볼 수 있으며,
3) 어메니티 가치평가는 5점 척도로 5점이 가장 높고, 3점이 보통, 1점이 가장 낮음을 의미합니다.

주민인식에 기초한 핵심 자원과 주요 자원은 총 11개로 전체 자원목록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대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개의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자연대개의 어메니티 자원이 7개(63.6%), 인위적 어메니티 자원이 4개(36.4%)로 나타났으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어메니티 자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도시지역 어메니티 조사결과(군산시 및 안양시)와 비교한다면, 도시 어메니티 자원 조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자원(역사, 문화자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자연 대개로의 자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사 및 문화자원, 경
제활동 등 인간의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원보다는 환경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자원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주요자원 및 핵심자원에 포함된 자원개수를 중심으로 주요·핵심자원으로의 선택율을 분석하면, 자연 그대로의 자원은 15.6%, 인위적 자원은 23.5%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활동이 주요가 되거나 스며든 자원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 지라도 인식강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연 그대로의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관심, 인식노력을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 고, 고성산성과 고성산성제의 어메니티 자원 인식수준(45.9%, 35.3%)과 공간적 범역 등을 고려할 경우 하나의 핵심자원으로 볼 수 있고, 씨담야와 씨담리 축제도 같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주요·핵심 자원으로 인식되는 자원이 증가한다.

2) 어메니티 자원의 기능 및 가치 평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메니티 자원의 주요 기능으로 환경·생태성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지 역·역사성이 25.6%, 문화·심미성이 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강유역 생태·경관보호지역의 어메니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자원이 지난 환경·생태성을 보전·관리하면서 역사·문화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메니티 자원으로 응답한 주민 응답율 1/3이상에 해당하는 26개 자원을 대상으로 환경·생태성, 문화·심미성, 지역·역사성, 경제성, 접근성, 기타의 기능(속성)을 분석하였다. 환경·생태성은 동강산, 배가사시리, 어름치, 수달, 어라연, 백룡동굴, 백운산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문화·심미성과 지역·역사 성 모두에 대해서는 멧목남기는 소리, 고성산성, 씨담야, 고성산성제 등에서 뚜렷하고 가수리 오송정은 지역·역사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성은 친환경농업, 복분자생산, 래프팅 등과 같이 농업과 레크리에이션에서 뚜렷하고, 축제인 동강축
제, 동강사진축제, 동강할미꽃축제는 문화성과 지역역사성, 경제성으로 기능(속성)이 고무 분산되어 나타났다.

3)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 및 활용

주요 어메니티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정책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자원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환경지역 관리기관 및 실무자에게는 지속적인 관리 및 활성화 등을 가능케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인지도 제고 및 풍부효과를 귀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강에 대한 자원 인벤토리를 예시로 작성하였다. 동강은 정선군 광교와 영월군 신연의 46㎞의 하천이며, 동강유역 래프팅 구간(4개소)을 정하여 탐방객들이 이용하거나 동강 내외 경관자원을 동강 12경으로 지정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은 미흡하고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개발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강의 관리는 동강과 주변의 어메니티 자원을 묶어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과 생태체험을 위한 테마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

<table>
<thead>
<tr>
<th>분류 기호</th>
<th>동강-01</th>
<th>자원 이름</th>
<th>동강</th>
</tr>
</thead>
<tbody>
<tr>
<td>자원분류</td>
<td>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대)→자연자원(중)→자연화천(소)</td>
<td></td>
<td></td>
</tr>
</tbody>
</table>

###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

#### 분류
- 동강-01
- 동강

#### 자원의 특성 및 개요

<table>
<thead>
<tr>
<th>위치 및 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동강 생태·경관보전지구 일대</td>
</tr>
</tbody>
</table>

#### 입지유형

<table>
<thead>
<tr>
<th>환경지역</th>
<th>위자도 및 환경 사진</th>
</tr>
</thead>
<tbody>
<tr>
<td>[그림 4-3]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어메니티 축성 (%)</th>
</tr>
</thead>
<tbody>
<tr>
<td>동강-01</td>
</tr>
<tr>
<td>[그림 4-3]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인벤토리 작성(예시)</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어메니티 가치평가</th>
</tr>
</thead>
<tbody>
<tr>
<td>4.1 / 5.0</td>
</tr>
</tbody>
</table>

#### 자원의 특성 및 이용현황

1. 자원의 특성
   - 정선군 광하교∼영월군 섭새의 46㎞의 수자원

2. 이용현황
   - 동강유역 래프팅 구간(4 곳)을 정하여 탐방객들 이용
   - 동강 주변 경관을 동강 12경으로 정하여 경관자원으로 이용

#### 문제점 및 잠재력

- 생명체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미흡
-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 증가(이치수 및 지역개발 위주의 도로, 재방, 교량 수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수질오염 및 수중생태계 교란)
- 각종 규제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되었다는 인식으로 지역 개발욕구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향후 정책지원 및 활성화 방안

- 지역주민들의 높은 지역개발 욕구로 인하여 어메니티자원과 동강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과 체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동강유역 생태 경관지역의 어메니티자원과 지역을 둘어 태마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

출처: 동강유역생태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 (2005.1) 표지그림

제 4장 •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사례 293
5. 환경지역 지정 및 관리효과 분석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① 자연환경보전 ② 과학적 조사와 교육 ③ 사회적 발전 ④ 경제적 발전의 4개 분야와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자연환경보전에 5개 항목, 과학적 조사와 교육에 6개 항목, 사회적 발전에 4개 항목, 경제적 발전에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신뢰도 검증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Cronbach’s Alpha) 분석 결과, 모든 분야(4개) 및 세부항목(18개)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4개 분야(대분류)에 대한 지정·관리효과는 0.67을, 중요도는 0.86으로 나타났고, 4개 분야별 세부항목의 신뢰도는 지정·관리효과는 0.74~0.87을, 중요도는 0.81~0.91로 분석되었다.

(표 4-9)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thead>
<tr>
<th>분 류</th>
<th>지정·관리 효과</th>
<th>중요도</th>
</tr>
</thead>
<tbody>
<tr>
<td></td>
<td>Cronbach’s Alpha</td>
<td>표준화된 Cronbach’s Alpha계수</td>
</tr>
<tr>
<td>전체 4개 분야(대분류)</td>
<td>0.6660</td>
<td>0.6657</td>
</tr>
<tr>
<td>세부 항목</td>
<td></td>
<td></td>
</tr>
<tr>
<td>자연환경보전(5개)</td>
<td>0.8546</td>
<td>0.8570</td>
</tr>
<tr>
<td>과학적조사와 환경교육(6개)</td>
<td>0.8669</td>
<td>0.8698</td>
</tr>
<tr>
<td>사회적 발전(4개)</td>
<td>0.7435</td>
<td>0.7433</td>
</tr>
<tr>
<td>경제적 발전(3개)</td>
<td>0.8542</td>
<td>0.8547</td>
</tr>
<tr>
<td>세부항목 전체신뢰도</td>
<td>0.9237</td>
<td>0.9247</td>
</tr>
</tbody>
</table>

2) 지정·관리 효과 및 중요도 분석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4개 분야별 지정·관리 효과 및 평가와 중요도(5점 척도)의 분석 결과, 지정·관리효과는 자연환경보전이 2.7로 가장 높았고...
고, 사회적 발전(2.1), 과학적 조사와 교육(2.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발전은 1.8로 나타나 거의 효과가 없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중요도는 경제적 발전이 3.7로 가장 높았고 과학적 조사와 교육이 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4개 분야 모두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세부항목별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 분석결과, 자연환경보전의 경우 민목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종다양성 보전은 3.1로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등의 보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중요도 분석에서는 동강12경 등 자연경관의 보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과학적 조사와 교육의 경우는 주민과 탐방객의 환경의식 제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과학적 조사와 교육을 위한 주민단체의 형성과 협력강화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 자율적 조사 및 협력체계의 강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중요도 분석에서는 탐방객의 환경의식 제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10〉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

<table>
<thead>
<tr>
<th>항 목</th>
<th>지정관리에 따른 효과</th>
<th>환경적 보전 관리의 중요도</th>
</tr>
</thead>
<tbody>
<tr>
<td></td>
<td>N</td>
<td>평균</td>
</tr>
<tr>
<td>자연환경 보전</td>
<td></td>
<td></td>
</tr>
<tr>
<td>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자연경관의 보전에 기여</td>
<td>81</td>
<td>2.7</td>
</tr>
<tr>
<td>과학적 조사와 교육</td>
<td></td>
<td></td>
</tr>
<tr>
<td>과학적 조사와 생태환경교육기반의 강화에 기여</td>
<td>80</td>
<td>2.0</td>
</tr>
<tr>
<td>사회적 발전</td>
<td></td>
<td></td>
</tr>
<tr>
<td>주민들에게 편리와 안전, 역사문화적 환경의 유지에 기여</td>
<td>80</td>
<td>2.1</td>
</tr>
<tr>
<td>경제적 발전</td>
<td></td>
<td></td>
</tr>
<tr>
<td>생태탐방 및 친환경농업 등 경제적 활동과 자립성에 기여</td>
<td>80</td>
<td>1.8</td>
</tr>
</tbody>
</table>

주: 효과의 경우 효과없음(1)→약간 효과있음(2)→효과있음(3)→상당한 효과있음(4)→매우 효과있음(5)으로,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지 않음(1)→중요하지않음(2)→중요함(3)→상당히 중요함(4)→매우 중요함(5)으로 구성

제 4장 환경지역 아에나티 자원 발굴과 창출사례 295
<table>
<thead>
<tr>
<th>항 목</th>
<th>지정관리에 따른 효과</th>
<th>환경적 보전 관리의 중요도</th>
</tr>
</thead>
<tbody>
<tr>
<td>지역 환경 보전</td>
<td></td>
<td></td>
</tr>
<tr>
<td>1. 동굴, 절벽, 모래톱, 자갈톱 등의 특이한 지형 지질 자원 보전</td>
<td>85</td>
<td>2.6, 1.3</td>
</tr>
<tr>
<td>2. 명승지, 아름다운 서식지 등의 생물종 다양성 보전</td>
<td>85</td>
<td>3.1, 1.4</td>
</tr>
<tr>
<td>3. 동굴12경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의 보전</td>
<td>85</td>
<td>2.9, 1.2</td>
</tr>
<tr>
<td>4. 자연생태계의 보전</td>
<td>85</td>
<td>2.8, 1.3</td>
</tr>
<tr>
<td>5. 구석내 등 자연환경의 생태계 보전</td>
<td>82</td>
<td>2.6, 1.3</td>
</tr>
<tr>
<td>과학적 조사와 환경 교육</td>
<td></td>
<td></td>
</tr>
<tr>
<td>6. 생태탐방시설 등 환경교육기반의 확충</td>
<td>83</td>
<td>2.0, 1.2</td>
</tr>
<tr>
<td>7.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td>
<td>84</td>
<td>2.1, 1.3</td>
</tr>
<tr>
<td>8. 과학적 조사 및 교육을 위한 주민단체의 형성과 협력 강화</td>
<td>82</td>
<td>1.9, 1.2</td>
</tr>
<tr>
<td>9. 과학적 조사 및 교육을 위한 자원 발굴 및 관리 강화</td>
<td>84</td>
<td>2.0, 1.2</td>
</tr>
<tr>
<td>10. 주민의 환경의식 제고</td>
<td>83</td>
<td>2.3, 1.3</td>
</tr>
<tr>
<td>11. 탐방객의 환경의식 제고</td>
<td>84</td>
<td>2.2, 1.3</td>
</tr>
<tr>
<td>사회적 발전</td>
<td></td>
<td></td>
</tr>
<tr>
<td>12. 수준높은 학교시설과 교육기회의 제공</td>
<td>84</td>
<td>1.7, 1.0</td>
</tr>
<tr>
<td>13. 아울렛과 복습시설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향상</td>
<td>84</td>
<td>2.0, 1.2</td>
</tr>
<tr>
<td>14. 야간문화 활성화, 지역질모임 등 사회 분위기의 시장화</td>
<td>84</td>
<td>2.0, 1.2</td>
</tr>
<tr>
<td>15. 오랜만에 내려온 고유한 전통문화와 유적의 보전</td>
<td>84</td>
<td>2.6, 1.3</td>
</tr>
<tr>
<td>경제적 발전</td>
<td></td>
<td></td>
</tr>
<tr>
<td>16. 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td>
<td>83</td>
<td>1.7, 1.1</td>
</tr>
<tr>
<td>17. 생태탐방과, 친환경농업 등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 생태효율성 제고</td>
<td>85</td>
<td>1.8, 1.0</td>
</tr>
<tr>
<td>18. 자원보호 등 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td>
<td>85</td>
<td>1.8, 1.1</td>
</tr>
</tbody>
</table>

주: 효과의 경우 효과없음(1)→약간 효과있음(2)→효과있음(3)→상당한 효과있음(4)→매우 효과있음(5)으로,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지 않음(1)→중요하는 않음(2)→중요함(3)→상당히 중요함(4)→매우 중요함(5)으로 구성

그리고 사회적 발전의 경우, 학교시설과 교육기회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지만 고유한 전통문화와 유적의 보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경제적 발전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경제 생태효율성 제고, 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5개 항목 모두에서 지정 및 관리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3개 항목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발전의 경우 중요도는 높지만 실제 지정 및 관리 효과는 거의 없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낮게 평가하였다.
3) 효과-중요도 실행격자(Action Grid) 분석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부 항목 18개를 대상으로 효과-중요도에 대한 실행격자를 작성하였다. 제1사분면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2사분면은 과잉노력 지양, 3사분면은 낮은 우선순위, 4사분면은 우선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의미한다.98)

각 항목 번호는 〈표 4-12〉세부항목별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를 참고

 구체적으로 우선시정이 필요한 항목(제4사분면)으로는 탐방객의 환경의식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자원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의 강화의 3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제1사분면)는 자연경관, 산림 및 하천생태계, 전통문화의 유적의 보호, 주민의 환경의식 제고 등 5개 항목이 해당하며, 이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사분면에 속하는 생물종다양성과 지형.

지질 보전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환경교육기반의 강화와 다양한 체험기회의 제공, 과학적 조사와 자원 발굴, 학교시설과 생활시설의시설, 사회적 안전성 등 사회적 발전은 중요도나 효과가 떨어지는 낮은 우선순위(제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학적 조사와 사회적 안전성 등의 항목에 대한 주민 요구는 낮더라도 지속가능한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개선요구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개선사항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결과 동강 및 상류지역(도암댐)의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요구가 가장 높았고, 동강 주변 도로확충도 개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thead>
<tr>
<th>주민인식에 기초한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개선사항</th>
<th>N</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동강의 수질오염</td>
<td>85</td>
<td>4.2</td>
<td>1.2</td>
</tr>
<tr>
<td>동강상류지역(도암댐)의 수질오염</td>
<td>85</td>
<td>4.4</td>
<td>1.2</td>
</tr>
<tr>
<td>동강주변 양식장정비</td>
<td>85</td>
<td>3.3</td>
<td>1.6</td>
</tr>
<tr>
<td>동강주변의 도로확충</td>
<td>85</td>
<td>3.7</td>
<td>1.4</td>
</tr>
</tbody>
</table>

주: 효과의 경우 매우 낮다(1)→낮다(2)→보통(3)→높다(4)→매우 높다(5)로 구성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자율적 협약의 강화가 가장 높았고 컨설팅강화, 인력증가에 대한 요구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입장표 인상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토지매수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확대 외에도 자율적 협약과 컨설팅 강화 등 지원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 4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창출사례

<table>
<thead>
<tr>
<th>항 목</th>
<th>N</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생태경관보전구역의 지정확대</td>
<td>85</td>
<td>2.6</td>
<td>1.5</td>
</tr>
<tr>
<td>토지매수확대</td>
<td>84</td>
<td>2.7</td>
<td>1.3</td>
</tr>
<tr>
<td>이용료 인상</td>
<td>84</td>
<td>2.1</td>
<td>1.3</td>
</tr>
<tr>
<td>주민의 자율적 협약강화</td>
<td>84</td>
<td>3.7</td>
<td>1.3</td>
</tr>
<tr>
<td>컨설팅 강화</td>
<td>83</td>
<td>3.6</td>
<td>1.4</td>
</tr>
<tr>
<td>보전 및 관리인력의 증가</td>
<td>84</td>
<td>3.4</td>
<td>1.5</td>
</tr>
</tbody>
</table>

주: 효과의 경우 매우 낮다(1)→낮다(2)→보통(3)→높다(4)→매우 높다(5)로 구성

6. 종합검토 및 시사점

동강유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조사와 더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효과를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메니티 자원은 자원조사 및 발굴, 필터링 등을 거쳐 ①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 45개와 ②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어메니티 자원 8개, ③인위적 어메니티 자원 17개로 전체 70개 자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원 인식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주민인식에 기초한 핵심 자원과 주요 자원은 총 11개로 전체 자원목록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강유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대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강유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주요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를 도시 어메니티 조사 결과(안양 및 군산)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어메니티 기능의 경우도 생태환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주요 자원 이상의 자원 선택율은 거의 자연그대로의 자원이 15.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관심, 인식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거의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다음으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① 자연환경보전 ② 과학적 조사와 교육 ③ 사회적 발전 ④ 경제적 발전의 4개 분야와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지정·관리 효과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효과(4개 항목)에서 경제적 발전은 1.8로 나타났고, 과학적 조사와 교육(2.0)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요도는 경제적 발전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발전은 중요도는 높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지역 어메니티 관리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감사 등 보호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18개 세부항목별 효과-중요도 실행력 분석에서는 우선시정이 필요한 항목(제4사분면)에 탐방객의 환경적 제고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자원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강화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강유역 생태·경관지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협약 강화와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과 이용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원사업 위주의 자원이나 물리적 건설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지방·중앙정부) 혹은 관리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자원이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수리 등에서 자원 발굴 및 활용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동강유역 생태·경관지역에서 발굴된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을 묶어 테마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래프팅 위주의 단편적, 소모적 관광체험이에서 탈피하고 테마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ESCO MaB 사례와 전안군 백운면의 에코뮤지엄 추진전략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사례조사는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림, 프랑스의 지역자연공원(RNP), 에코뮤지엄 등을 중심으로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등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보호지역의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1) 기본방향

UNESCO의 MaB와 IUCN의 보호구역(proTECTED AREA)에서의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을 살펴보았다. 우선, UNESCO는 MaB를 통해 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전 ② 환경과 개발의 연계 등 발전 ③ 연구와 조사를 위한 국제적 연결망 지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Lü(2003)은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을 보전과 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추진하는 다목적 기능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UCN의 경우, 보호지역을 6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지정·관리목적을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은 ① 과학적 조사·연구 ② 야생생물 보전 ③ 생물다양성 보호 ④ 환경서비스 유지 ⑤ 자연 및 문화적 특성의 보전 ⑥ 관광과 레크레이션 ⑦ 교육 ⑧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IUCN 카테고리 II에 1개소, IV에 16개소, V에 19개소에 포함되어 카테고리로 분류된 지역은 총 36개소라 할 수 있다(허학영 외, 2007).
### 표 5-1 IUCN의 보호지역의 관리목적

<table>
<thead>
<tr>
<th>구분</th>
<th>Ia</th>
<th>Ib</th>
<th>II</th>
<th>III</th>
<th>IV</th>
<th>V</th>
<th>VI</th>
</tr>
</thead>
<tbody>
<tr>
<td>과학적 조사⋅연구</td>
<td>1</td>
<td>3</td>
<td>2</td>
<td>2</td>
<td>2</td>
<td>2</td>
<td>3</td>
</tr>
<tr>
<td>자연생상 보전</td>
<td>2</td>
<td>1</td>
<td>2</td>
<td>3</td>
<td>3</td>
<td>-</td>
<td>2</td>
</tr>
<tr>
<td>종다양성 보호</td>
<td>1</td>
<td>2</td>
<td>1</td>
<td>1</td>
<td>1</td>
<td>2</td>
<td>1</td>
</tr>
<tr>
<td>환경서비스 유지</td>
<td>2</td>
<td>1</td>
<td>1</td>
<td>-</td>
<td>1</td>
<td>2</td>
<td>1</td>
</tr>
<tr>
<td>자연 및 문화적 특성의 보전</td>
<td>-</td>
<td>-</td>
<td>2</td>
<td>1</td>
<td>3</td>
<td>1</td>
<td>3</td>
</tr>
<tr>
<td>생태관광과 레크레이션</td>
<td>-</td>
<td>2</td>
<td>1</td>
<td>1</td>
<td>3</td>
<td>1</td>
<td>3</td>
</tr>
<tr>
<td>교육</td>
<td>-</td>
<td>-</td>
<td>2</td>
<td>2</td>
<td>2</td>
<td>2</td>
<td>3</td>
</tr>
<tr>
<td>지속가능한 자원이용</td>
<td>-</td>
<td>3</td>
<td>3</td>
<td>-</td>
<td>2</td>
<td>2</td>
<td>1</td>
</tr>
<tr>
<td>문화적⋅통합적 요소의 유지</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2</td>
<td>-</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의 적용사례

<p>| | | | | | | |</p>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설악산 국립공원 (1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태경관 보전지역 (15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천연보호지역 (4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왕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 (20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1: Ia= 엄격한 자연보호지역, Ib=야생지역, Ia=자연공원, III=자연기념물, IV=종/서식지관리지역 V=생태보호지역, VI=자연자원보호지역
주2: 1=근본적인 1차 목표, 2=2차 목표, 3=적용가능한 잠재목표
주3: 천연보호구역은 면허제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며, 홍도, 설악산 등이 해당

이러한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별로 관리목적을 정리하면, 카테고리 Ia의 경우 종다양성 보호, 환경서비스 유지, 생태관광과 레크레이션을 1차 목표로 관 리하고, 카테고리 IV는 종다양성보호와 환경서비스 유지를 1차 목표로 한다. 카테고리 V의 2차 목표는 자연 및 문화적 특성의 보전, 생태관광과 레크레이션, 문화적⋅통합적 요소의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설악산 국 립공원 등은 카테고리 II에,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천연보호지역은 카테고리 IV에, 주왕산, 가야산 국립공원 등은 카테고리 V에 포함된다.

따라서 IUCN의 관리목적을 고려할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으로서 관리활동을 통한 보전을 도모하고, 대중에게 자연관리 및 서식처 특성을 감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
### 표 5-2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IUCN의 카테고리에 따른 이용유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명칭</th>
<th>이용유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II</td>
<td>국립공원</td>
<td>・자연상태/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  정도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목적 방문객 이용관리,  생존을 위한 자원이용을 포함한 원주민의 필요 고려(관리목적에 부응)</td>
<td>성악산, 지리산, 오대산, 원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5개)</td>
</tr>
<tr>
<td></td>
<td></td>
<td>・관리활동을 통한 보전,  ・대중에게 아생관리 및 서식지 특성을 감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 개발</td>
<td>생태・정관 보전지역 (15개), 천연보호지역 (4개)</td>
</tr>
<tr>
<td>IV</td>
<td>종/서식지 관리지역</td>
<td>・산림/서식지 관리 (15개), 천연보호지역 (4개)</td>
<td>주왕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 (16개)</td>
</tr>
<tr>
<td>V</td>
<td>경관보호지역</td>
<td>・산림/서식지 관리 (15개), 천연보호지역 (4개)</td>
<td>주왕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 (16개)</td>
</tr>
</tbody>
</table>

주: 지리산, 오대산, 원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은 2007년 7월에 카테고리 V에서 II로 변경인증 중에 대한 공식인증식을 가졌으며, 향후 해상(해안) 국립공원 카테고리 채택방안 연구와 주왕산, 월출산, 다도해, 속리산 등 4개 국립공원에 대한 변경인증을 추진할 예정

### 2) 사례 연구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경제발전의 축진, 문화가치 유지라는 상충되는 목표들간의 균형을 실천하는 공간이며, IUCN은 자연경관이나 생물종이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이들 사례지역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IUCN의 보호지역(고릴라서식지나 사바나초원의 복원지역 등)은 생물자원의 보호 및 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생물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탐방을 도모한다.

UNESCO의 MaB는 보전과 복원을 토대로 상품화 및 축제・이벤트 개최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마련하여 경제적 활동과 보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라파마는 지역특산품에 지리적 인증제와 라벨링을 통해 판매량 축진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다시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회수하여 재투자하고 있으며, 독일의 뤼텐 지역의 경우는 지역의 농산품(라벨링이 된 농산품의 우선 구매)을 호텔이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 판매하여 농가와 서비스업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그리고

---

제5장 환경지역 아메니티 관리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303
환경의 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브라질의 상파울로시 그린벨트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주변 도시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Youth programme)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환경관련 4개 주제에 대한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양병이 외, 2007).

엘리레로(El Hierro)와 Vosges de nord-Pfalzerwald, 야쿠시마(Yakushima) 생물권보전지역은 환경 특성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창조적 공간화를 도모하는데, 엘리레로의 경우 숲을 확장하고, 전통채수시설과 소택지를 조성하며, 공파를 호텔로 개조하고 수소연료 및 전기자동차,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한다. Vosges de nord-Pfalzerwald의 경우 지역자원도 및 지역자원해설센터를 설립하고, 탐방로(4개, 10~23km) 및 사암표석 해설판, 박물관, 전시시설, 관광열차, 레프팅 등을 설치하고 편의 및 숙박시설 등급을 구분한다. 야쿠시마 생물권보전지역은 환경문화재단과 환경문화마을센터, 환경문화학습센터 설치하고 방문자 센터를 설치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

3) 시사점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처음, 지역의 자긍심이 기반이다. 라팔마, 엘리레로 등의 경우 환경지역의 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지역의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

둘째, 환경보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중시한다. 보전에만 중점을 둔다면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을 적극 발굴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농업 등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핵심지역은 보전주로 관리하지만, 핵심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전이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한다. 물리적 개발보다는 콘텐츠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야거나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을 통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304 환경지역 아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셋째, 지역주민(지역사회)이 주도 한다. 지방 혹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역주민(지역사회)이 주도하고 있다. 지역의 지도자와 주민이 협심하여 미래를 구상하면서 관련전문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조언을 받아 추진한다.

넷째, 지역이 상품이다. 환경지역의 특성상 업업,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과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가내수공업 등이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산업(地緣産業)을 상품화하여 품질 우수성을 과시하고 관광을 하고,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수한 역사, 문화, 경제, 기술, 자연 등을 고려 알맞은 전략과 대안을 구준하게 탐구하고 개척해가려고 한다. 세계 최고가 되기보다는 여기밖에 없는 체험과 경험, 지식을 알려주고자 한다.

2. 국립공원 애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영국 국립공원은 사유지 및 지역주민이 많은 전원경관, 농촌마을, 개활지(mooreland), 구릉성 산지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국립공원내에 행해지는 각 기관, 단체의 사업 및 활동을 조율, 지원, 공동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양병이 외, 2007).

구체적으로 노템버랜드(Northumberland) 국립공원은 사회·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해 특정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공동추진하는 협력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기금(sustainable development fund)과 지역사회 협력기금(action fund)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금은 동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난방시스템(biomass heating system), 역사·문화적 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복원, 지역생산물 생산·판관 등 지역사회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협력자금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장애자용 시설설치, 탐방로 보수, 썩어채취장비기증, 화장실 설치 등 자연환경개선, 탐방환경 개선, 경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 및 물품, 인력을 지원한다.

스코틀랜드의 케어건(Cairgorm) 국립공원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를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환경보전강화, 공동협력체계 구축, 탐방안내 및 해설 강화, 탐방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 특성개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한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경우 북서지역 주민이 농업목적의 토지이용으로 인해 산림 황폐화, 방목지 확대 및 관목제거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기금조성을 통해 세렝게티 국립공원 완충지역에 집단 이주지역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완전한 이주를 추진하였다.

일본은 국립공원 등 생태관광 추진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풍부한 자연내에서의 추진방안과 많은 방문객이 관광지에서의 추진방안, 지역에 맞는 자연환경 및 지역의 산업과 생활문화를 활용한 추진방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국립공원 등 생물다양성 등 지정 및 관리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하고 기금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영국의 지속가능발전기금과 지역사회 협력기금 및 보호지역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표 5-3>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관리 및 창출전략

<table>
<thead>
<tr>
<th>구분</th>
<th>UNESCO의 MaB</th>
<th>Eco-Museum</th>
<th>IUCN의 보호구역</th>
</tr>
</thead>
<tbody>
<tr>
<td></td>
<td>La Palma</td>
<td>El Hierro</td>
<td>Vosges de nord-Pfalzerwald</td>
</tr>
<tr>
<td>일반 현황</td>
<td>• 스페인</td>
<td>• 스페인 Carry 군도</td>
<td>• 프랑스 알자스 및 레인지역의 독일의 Pfälzerwald를 연결</td>
</tr>
<tr>
<td></td>
<td>• 면적: 728㎢</td>
<td>• 해발 2,426m</td>
<td>• 2000년 29,600ha가 MaB로 지정</td>
</tr>
<tr>
<td></td>
<td>• 화산지형</td>
<td></td>
<td>• 301,800ha가 MaB로 지정되고, 인구는 총 24만 명 거주</td>
</tr>
<tr>
<td></td>
<td>• 83,000명 인구</td>
<td></td>
<td>• 1997년 MaB로 최초지정되고 2002년 확대지정</td>
</tr>
<tr>
<td></td>
<td>• 1997년 MaB로 지정</td>
<td></td>
<td></td>
</tr>
<tr>
<td></td>
<td>• 스페인 Carry 군도</td>
<td></td>
<td></td>
</tr>
<tr>
<td>자원관리 및 창출전략</td>
<td>보전</td>
<td>• 도미발연구센터, 해양생태연구소 설치</td>
<td>• 시라소니 및 잠자리, 하이언드 소 보전, 해식 및 수질모니터링</td>
</tr>
<tr>
<td>복원</td>
<td></td>
<td>• 환도마뱀생태복원, 전통공예 공업체정 복원운동, 수공예지원</td>
<td>• 전통적 남아프리카 복원</td>
</tr>
<tr>
<td></td>
<td></td>
<td>• 전통주거지와 원주민 문자 복원</td>
<td></td>
</tr>
</tbody>
</table>

제5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위한 해외사례 감보와 시사점 307
<table>
<thead>
<tr>
<th>자원 관리 및 창출 전략</th>
<th>촉진 및 이벤트화</th>
<th>사례화(특산품 관리)</th>
<th>상품화(특산품 관리)</th>
<th>창조적 공간 개발화</th>
<th>특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관광사례 교육 및 훈련</td>
<td>WTO 씽들리닝 대회 1,000 여명 참여</td>
<td>MaB발성성품: 여행사, 수산물eventType</td>
<td>호텔객실수의 제한</td>
<td>방문자 관리와 라벨링 수익의 환경분야 두자</td>
</tr>
<tr>
<td></td>
<td>해저활동대회</td>
<td>특정수상품 rewriting</td>
<td>사례 활성화 석재, 크리스탈공예</td>
<td>하방위적 기능성을 부여</td>
<td>호평도 및 관광.Qual로고 설정</td>
</tr>
<tr>
<td></td>
<td>지정문화재</td>
<td>수질정화를 위한 소택지 조성</td>
<td>BR Business Partner 구축: 농업생산품을 레스토랑, 호텔, 농협, 슈퍼 등 공급판매</td>
<td>고릴라 서식지 활용</td>
<td>전기펜스설치 (코끼리, 사자 등 이동 제한)</td>
</tr>
<tr>
<td></td>
<td>자연생태계</td>
<td>특수시공적 활용과 복원</td>
<td>BR Business Partner 구축: 농업생산품을 레스토랑, 호텔, 농협, 슈퍼 등 공급판매</td>
<td>고릴라 서식지 활용</td>
<td>관리필름 건축</td>
</tr>
</tbody>
</table>

3. 원시림과 지역자연공원의 어메니티 관리 사례(99)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림은 OECD(1999)에서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에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원시림 관리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삼림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임산물 추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포함하며, 협약 메커니즘의 핵심 부분으로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평가는 각 지방의 특성과 원시림이 존재하는 장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경제적·비경제적 활동들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통해 모든 범위의 지방적 이해관계를 상호작용적인 자문과정에 흡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활용하였으며, 혁신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약과 사회적 영향평가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모든 범위의 평가 이슈들에 걸쳐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는 협약 결과의 수용과 준수를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협약이 특정 지역 공동체나 산업 부문에 대해 중요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하게 될 때 지원 대상을 전략적으로 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프랑스 지역자원공원은 OECD(1999)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 자원으로 구분하는데, 중요한 환경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토대로 개발을 촉진한다. 이는 지속가능하고(지역자원에 기초하여 수년에 걸쳐 모니터링하는 접근) 종합적인(중앙정부를 포함하여 지역의 모든 행정자들이 참여하여 형성한 파트너십을 강조) 개발을 체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지역자원공원은 고유한 경계, 전략적 계획, 계약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한 지역이 지역자연공원으로 분류되려면 그 지역이 차별적인 경제성과 풍부한 자연적·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으면서 생태학적 균형이 이뤄진 고유 공간이어야 하며 그 경계는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공

원에 속한 코뮌들을 위해 이루어진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구현된다. 다음으로 해 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 조화로운 개발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계획을 토대로 추진된다. 계획은 기초 및 광역지자치단체의 당국을 포함하는 기구가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연공원 협장”이라고 알려진 일종의 계약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들은 10년 계약 프로젝트에 연계시키고, 목 표설정 및 추진정책 제시와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다.

지역자연공원의 도입으로 인해 ① 농업活動의 다양화,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가공네트워크 형성, 농업-환경정책의 도입 등 환경적으로 더욱 건전한 농업을 확 립하는데 기여하고, ② 관광업부문의 기업을 지원하고 관광상품에 대한 품질인 증재, 교육시설(특정주제, 박람회, 답사코스, 생태박물관 등)을 통한 관광개발을 촉진하며, ③ 코뮌들 간의 연대에 기초한 주도권을 증진시키고 도·농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케냐 키브웨지(Kibwezi) 삼림지역은 반복되는 가뭄 등 불리한 기후요인과 높 은 지역민인 발생빈도 등의 영향으로 농작 실패율이 25~75%로 높은 지역이다. 지역생계수단들은 매우 불확실하고 짧은 시간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교육훈련 제공과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개량된 농작물수확장비제공 등을 통하여 삼림지 활용의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고급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생산품 판매량 및 소득증대를 통한 가구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러한 원시림 및 지역자연공원 등의 어메니티 전략을 살펴보면, 전자는 계약과 사회적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후자는 고유한 경제, 전략적 계획, 계약으로 구성되 었다.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 영향평가나 전략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4. 에코뮤지엄에 기초한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사례

에코뮤지엄은 “지붕 없는 박물관”을 의미하는데, 일본의 아소구주 국립공원과 시라가와촌 등에, 우리나라의 진안군 백운면 등에서 추진중이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유산을 현지(인시)에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유산을 활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만들기 혹은 마을만들기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진, 2001). 이러한 에코뮤지엄은 지역유산과 영역, 거점박물관, 탐방로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시라가와촌의 경우 합장가옥촌 복원과 더불어 고유의 전통생활문화(국수 만들기, 천연염색, 벼룩짜기, 짐공예 등)를 복원하고 야영이야기 수업, 눈 축제 등을 통해 콘텐츠(Contents)와 스토리(story telling episode)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아소구주국립공원은 등산객을 위해 고산습지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에코뮤지엄을 배치하고, 우리나라 전안군 백운면의 경우 간판 및 안내판 정비를 통한 접객 리모델링에서 경비소 탐방길 프로젝트 등 선적개발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고유성을 강화하는 면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의 경우도 지역의 자공심과 지역주민 주도, 지역 장소성과 유일전략을 어메니티 창출전략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 아소구주국립공원의 에코뮤지엄
5. 종합 검토 및 시사점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자원 발굴이 핵심이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관심도 요구된다. 자원 발굴과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자긍심을 제고하고, 개별적인 자원 발굴·보전과 더불어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물리적 개발과 함께 고유한 콘텐츠의 발굴과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강조하는 등 개별적인 어메니티 자원을 묶어 주제를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백운면의 정비소 탐방길이 좋은 사례이다.

남기고 싶은 음 풍경, 향기 좋은 풍경, 별의 거리, 푸른 하늘 거리, 고양이 하천 등과 같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에 어메니티적 요소를 추가하여 감성적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메니티는 협약과 계약,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현행 보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법제도 및 계획체계 정비, 지원수단 강화, 주민참여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환경지역 어메니티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현재 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과 관련되는 환경분야 법·제도와 토지 이용규제, 관련조사 및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법제도를 살펴보면, 헌법(제35조)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에서 쾌적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택토대간보호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을 포함한다. 이들 법·제도들은 모두 복합성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거나 규제·관리해야 하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관리의 목적으로 토지이용 및 행위 규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국립·도립·군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핵심-완충 보호지역), 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규제지역),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 등이다. 전체적으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지구는 23개 법률에 따른 47개에 이르며, 법적인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백두대간 체손지역, 연안침식지역, 사용종료 매립지 등이 포함된다(환경부, 2005).

자원 발굴 및 조사는 자연경관조사, 자연환경조사, 기타조사(겨울철 조류, 자연동굴 등) 등이 존재한다. 자연경관조사는 2006년에 경주 등 10개 시·군의 자연 경관을 조사하여 우수 자연경관지역 807건과 조망점 1,195건에 대한 경관정보를 구축하였고, 2007년부터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사중이다.

어메니티 관련 사업에는 생태마을·생태복원마을, 에코시티 시범사업, 생태복원사업, 청정지역 등 존재하는데, 생태마을·생태복원마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근거하여 2001년 14개 지역을 지정한 이래 2005년 2월 기준 총 54개 지역(생태마을 42개, 복원우수 사례 12개)을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 홍보자료 제작·배포, 환경관련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은 2006년 강원도 가평군을, 2007년 부천시(도시재정비사업), 고성군(개발촉진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들 에코시티는 환경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는 미흡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범도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천, 도로(생태통로, 비탈면), 공산, 생태공원, 생태도로, 자연간지로, 백두대간 등의 복원사업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청정지역은 수질기준 I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립공원 마을 및 집단시설지구 정비와 함평 나비축제, 당양 대나무축제 등 환경브랜드나 환경테마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계약 및 협약의 경우 생물다양성계약관리제도101),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 광양만 대기오염 저감 자발적 협약, 올산지역 5-15 자발적 협약 등이 시행중이다.

2) 문제점

앞에서 어메니티에 관련되는 환경분야의 법·제도, 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 및 이용행위는 규제수단이 대부분이고, 지원수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어메니티(쾌적성)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어메니티 관련 정책 및 실천수단이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전국적 차원의 자원 발굴 및 조사로 인해 지역적 가치의 고려 및 지역민 참여가 부족하다. 국가적 가치를 지닌 환경지역일지라도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의 가치와 요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보다 잘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과 협약은 획일적이고 단방적으로 운용되어 지역의 환경브랜드 육성이나 특성화의 추진이 미흡하고, 엄격한 보전중심의 관리패러다임으로 지역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수요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환경지역내 꼭 보전되어야 할 자원 보전을 전제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101) 생물다양성계약관리제도는 93년 군산·서산·김제 등 5개 시·군에서 철원군·홍성군·서천시·김포시 등이 추가되어 총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심경 금지제도(철원군)와 벼실존치계약제도(서산시)도 도입하고 전체 23억 6천만 원을 지원함
2. 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정책 방향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기본속성인 생태-문화다양성, 공간성과 위계, 사전예방성,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환경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 등 환경지역의 여러 마을들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지역의 자원관리는 세계에 하나뿐인 장소를 만들도록 하는 원칙하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공간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모듈(Noss, 1986)을 이용하여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으로 구성된 공간단위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어메니티의 자원도 점적 관리에서 벗어나 선적, 망적(network) 공간관리 및 이용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보전 및 창출을 위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간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지속적인 자원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철저한 보전 및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창출 방향은 보전 및 복원에 따른 자원화와 계획화(가치창출)로 구분할 수 있다. 보전 중심의 자원화는 원시림, 생물 서식지, 독특한 경향형태, 정주지 등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방안과 조류관찰 등과 같이 원형 그대로를 조사·감상·체험·교육하는 형태이며, 구체적으로 과학적 조사·연구, 야생생 보전, 종 다양성 보호, 환경서비스 유지, 자연 및 문화적 보호 등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17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환경생태</th>
<th>사회문화 및 경제</th>
</tr>
</thead>
<tbody>
<tr>
<td>계획적 수단</td>
<td>관리계획(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구역 등)</td>
<td>보전계획(수원환경수리, 홍수력 환경수리, 수보수리, 대기환경수리, 청정지역, 환경생태 및 사회문화 수리 등)</td>
</tr>
<tr>
<td></td>
<td>사업단위계획(습지조성)</td>
<td>사업단위계획(습지조성 등)</td>
</tr>
<tr>
<td></td>
<td>보전계획(전통건축물 보호, 전통문화재 보호, 전통건축물 보호 등)</td>
<td>보전계획(전통건축물 보호, 전통문화재 보호, 전통건축물 보호 등)</td>
</tr>
<tr>
<td></td>
<td>마을디자인, 마을계획 등</td>
<td>마을디자인, 마을계획 등</td>
</tr>
<tr>
<td>법·제도적 규제수단</td>
<td>생태 경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 지정</td>
<td>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 지정</td>
</tr>
<tr>
<td></td>
<td>전통건물보전지구 등 보전지역 지정</td>
<td>전통건물보전지구 등 보전지역 지정</td>
</tr>
<tr>
<td></td>
<td>청정지역(대기, 수질) 고시</td>
<td>청정지역(대기, 수질) 고시</td>
</tr>
<tr>
<td></td>
<td>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규제</td>
<td>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규제</td>
</tr>
<tr>
<td></td>
<td>입장료</td>
<td>입장료</td>
</tr>
<tr>
<td>사업 및 지원 수단</td>
<td>보전·복원사업(서식지 등)</td>
<td>보전·복원사업(서식지 등)</td>
</tr>
<tr>
<td></td>
<td>관찰로 조성</td>
<td>관찰로 조성</td>
</tr>
<tr>
<td></td>
<td>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수, 소택지, 습지, 하천 등)</td>
<td>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수, 소택지, 습지, 하천 등)</td>
</tr>
<tr>
<td></td>
<td>생물다양성협약</td>
<td>생물다양성협약</td>
</tr>
<tr>
<td></td>
<td>토지매수와 지역권(trust 등)</td>
<td>토지매수와 지역권(trust 등)</td>
</tr>
<tr>
<td></td>
<td>입장료</td>
<td>입장료</td>
</tr>
<tr>
<td></td>
<td>어메니티 기반 기업의 지원(유전자원 활용 환경 등)</td>
<td>어메니티 기반 기업의 지원(유전자원 활용 환경 등)</td>
</tr>
<tr>
<td>평가·참여적 수단</td>
<td>상의(자연환경관련의제도 등)</td>
<td>상의(자연환경관련의제도 등)</td>
</tr>
<tr>
<td></td>
<td>교육 및 조사, 해설 등</td>
<td>교육 및 조사, 해설 등</td>
</tr>
<tr>
<td></td>
<td>협력체제(협력기관, 전문가, 어메니티 기업 등)</td>
<td>협력체제(협력기관, 전문가, 어메니티 기업 등)</td>
</tr>
</tbody>
</table>
| 주: 일본 시라가와촌에서 자연환경 확보에 관한 조례(환경생태)와 전통적 건축물보존지구보존조례 (사회문화), 시라가와 서 오가미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주민환경(환경생태) 등을 마련

표 6-1 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특성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복원중심의 자원화란 생태적 단절이나 해손, 인간 활동의 영향 등을 받은 종합적인, 야생성, 자연 및 문화적 특성의 복원이나 회복을 의미하고 환경서비스의 강화·보완(홍수처리 복원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복원은 디스어메니티(dis-amenity) 요소의 개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창출을 위한 계획화는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브랜드화 등을 토대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창출·확성하게 되며, 생태관광과 레크레이션, 교육,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창조공간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의 경우 환경생태 및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계획적 수단, 법·제도적 수단, 사업 및 지원 수단, 평가·참여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2) 정책 과제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법제 및 계획체계의 정비, 지원수단의 강화, 주민참여의 강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어메니티자원 조사 및 발굴, 사업 및 지원, 평가 및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공간구분에 그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자원 발굴, 주민참여, 지속가능한 자원이용방안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생태경관보전지역별로 지역 특성과 여건,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자원 발굴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등을 규정하는 지침이나 관리협약을 마련하여 자율적 관리와 체계적 지원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마을협약(마을디자인협약) 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 및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환경지역의 관리계획이 해당 시·군의 환경보전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그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환경지역의 관리가 환경보전계획과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삼과 같은 별도의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지역 관리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도시계획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Emeton, 2002). 경제적 지원유형은 크게 재산권, 생계수단, 시장수단, 재정수단, 금전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권의 인정과 발생편익의 배분,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재산권 인정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및 보전활동에 대한 보상 등이 해당된다.

넷째, 환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는 많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을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현실화하고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한 기금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노섬버랜드(Northumberland) 국립공원의 “지속가능 발전기금(sustainable Development Fund)”과 “지역사회 협력기
금(Action Fund)” 조성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환경지역에서 배분교란(해손)부담금 제도(의)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그래서 일반시설물이 가져가는 경제적 편익의 일부를 환경지역 자원기금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며, 유사한 사례로 수변구역 보호기금을 살펴볼 수 있다.

〈표 6-2〉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유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직접적 지원수단</th>
<th>간접적 지원수단</th>
<th>규제수단</th>
</tr>
</thead>
<tbody>
<tr>
<td>재산권</td>
<td>소유권, 관리, 접근, 토지 및 자원의 이용, 공유연대, 협동관리, 리스, 전세권 및 프랜차이즈</td>
<td>지역발전, 생태수단의 다양화 및 개선</td>
<td>배제, 이주, 범위청 및 벌칙</td>
</tr>
<tr>
<td>생계수단</td>
<td>자원활용의 지속성, 효율성 활용</td>
<td>지역발전, 생태수단의 다양화 및 개선</td>
<td>-</td>
</tr>
<tr>
<td>시장수단</td>
<td>현존 자원시장 및 가격의 개선, 신규자원시장의 개발과 사용요</td>
<td>자원시장의 다양화 및 상품 대체수단 개발</td>
<td>생산 및 판매금지, 생산량 할당 및 제한</td>
</tr>
<tr>
<td>제정수단</td>
<td>자연생태계도에 대한 보조금, 세금감면 또는 토지이용에 따른 차등적</td>
<td>-</td>
<td>세금할증, 차별적인 토지 이용 세금</td>
</tr>
<tr>
<td>(세금, 보조금)</td>
<td>지출</td>
<td></td>
<td></td>
</tr>
<tr>
<td>금전수단</td>
<td>보전활동 보상, 비효율적 활동감소에 대한 보상, 대안기업 개발자금 지원</td>
<td>-</td>
<td>불법 및 비효율적 활동에 대한 벌금 및 벌칙</td>
</tr>
<tr>
<td>(유동자금, 기금)</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다섯째,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육성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환경지역의 보전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혼성지역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철저한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창조공간화를 도모한다. 국립공원

102) Bioprospecting(Biodiversity Prospecting)은 육상 및 해안해상국립공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편익 창출과 그 일부를 국립공원관리기금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의 개념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103) 현재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약 65조 원에 달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원내에 위치한 일반시설물(펜션, 농원, 호텔 등)의 경우 공원이 지닌 자원의 총화 해택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생태계교란을 유발하지만 이에 관한 정책적 제재(교란비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6장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19
원 마을 및 집단시설지구 정비나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전이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범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및 사업의 폐기지화를 통해 우수사례로 육성한다. 또한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초한 정책적 사업추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Thermus aquaticus에 대한 연구 성과로 상업적 가치와 수익을 배분받고 있다.104

여섯째,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하여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체감도 등을 제고하고, 보전지역 관리 효율성 평가에 주민인식을 반영하고, 이들 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수렴절차를 제도화한다. 어메니티 자원지도(amenity map)를 작성하고 생태문화탐방 및 교육, 자원해설, 관리, 조사 및 분석 등에 활용하는 Ubiquitous-Amenity 환경지역 모델 개발을 검토한다. 이로나 주민 및 탐방객의 실시간 반응과 평가가 이루어 될 수 있어 어메니티 자원지도(amenity map)의 작성과 관리, 자원평가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그 결과를 즉각 알 수 있어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규제에 의해 자연환경 및 경관, 환경적 질이 우수한 환경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으로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보는 역량상 전략이 공공부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잘 보전된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 및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환경지역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04) 친절성(호열성)미생물의 한 종류인 Thermus aquaticus는 특히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미생물로 온천에 사는 박테리아이며, 이는 Biodiversity Prospecting(Bioprospecting)의 한 사례이다. Biodiversity Prospecting(Bioprospecting)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표본(식물, 동물, 미생물)의 수집과 검사를 통해 유전학적 또는 생화학적으로 유용한 자연 유기물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옐로스톤에서는 Thermus aquaticus를 종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에 응용하여 DNA의 특정부위를 증폭함으로써 생명과학분과 동물분부에서의 기술적 진보와 그에 수반하는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였고, 이를 위하여 1997년 Diversa 기업과 공동연구협의를 체결하였다(http://serc.carleton.edu/microbelife/topics/bioprospecting/index.html).
참고문헌

김승환 외. 1997. “괴석산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발굴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34」.
Agroinfo Issue No.6.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국립공원∙중앙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주도. 2006.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허학영 외. 2007.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연구」13 : pp 71-96.
한국조경학회.
환경부. 2006. 환경편람.


Grazia Borrini-Feyerabend et. al. 2004.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 IUCN Series No.11.


http://donggang.go.kr

http://serc.carleton.edu/microbelife/topics/bioprospecting/index.html
부록

1. 설문조사 분석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 개요

(1) 조사지역 설정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05.1)에 포함된 13개 행정리(영월군 영월읍 3개리, 정선군 정선읍 3개리, 정선군 신동읍 3개리, 평창군 미탄면 4개리)에서 한탄리를 제외
   ◦ 한탄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일부 포함되지만 주민들의 거주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주민들도 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제외
   ◦ 다음으로, 조사대상 12개 행정리에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한정, 예를 들어, 광탄리의 경우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포함되는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주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의식 조사대상에서 제외

(2) 조사표본 설정
   ◦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는 해당 보전지역내 주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여야 하는데, 가장 경제적이면서 대표성이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표본규모를 설정하여야 함(홍두승, 2007)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한탄리를 제외한 지역주민(2,167명)을 모집단으로

부록 325
보고 표본 수 결정공식(한국능률협회, 1973)을 활용하여 최소 조사표본 (n=65명)을 설정하고, 시간과 경비 등을 고려하여 100부를 조사표본으로 설정

다음으로 해당 행정리의 거주인구 규모에 따라 비례할당한 다음 단순무작위 표집으로 추출하는 집단표집(cluster sampling; 홍두승, 2007)을 토대로 조사표본을 설정

(3) 설문조사 기간 및 회수

2007년 9월 15일-16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00부중에서 85부가 조사되었음

〈설문조사 결과〉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행정리</th>
<th>조사계획(100부)</th>
<th>조사결과</th>
</tr>
</thead>
<tbody>
<tr>
<td>영월군</td>
<td>삼옥1리, 삼옥2리, 거문리, 문산1리, 문산2리</td>
<td>29</td>
<td>23</td>
</tr>
<tr>
<td>정선군</td>
<td>광하1리, 광하2리, 금암리, 가수리, 고성2리, 덕천리, 온적2리, 온적3리</td>
<td>51</td>
<td>52</td>
</tr>
<tr>
<td>평창군</td>
<td>백운리, 기화리, 마하리</td>
<td>18</td>
<td>10</td>
</tr>
<tr>
<td></td>
<td>총계</td>
<td>100</td>
<td>85</td>
</tr>
</tbody>
</table>

2) 어메니티 자원목록

어메니티 자원목록은 ‘자원리스트 구축 → 워칭조사(amenity watching) → 자원 필터링(filtering) → 어메니티자원 인벤토리(inventory) 작성’으로 진행

표본 수 결정공식은 \[ n = k^2 \times N \times p \times q / (d^2 \times (N-1) + k^2 \times p \times q) \]과 같은, 여기에서,
- \( k \) = 신뢰도계수 (0.6이상이면 신뢰가능)
- \( d \) = 허용오차 (5% 가정)
- \( N \) = 모집단의 크기 (2006년 12월 거주인구 기준)
- \( n \) = 표본의 수
- \( p \) = 모집단에서 어느 표집을 가진 것이 비율 (%)
- \( q \) = 모집단에서 어느 표집을 갖지 않은 것의 비율 (%)
- \( p+q=1 \)

326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 어메니티 자원목록은 인터넷 검색, 문헌조사(관리기본계획 등) 등을 토대로 1차 목록(159개)을 작성하고, 동강안내소(삼육, 기화, 고성, 광하) 및 동강유역의 17개리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2차 목록 작성

○ 현장방문(2007년 7월, 8월 2회)을 통한 자원위치조사와 함께 동강유역관리사무소 관리자 및 강원발전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목록으로 제시된 각 자원에 대표성 및 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70개 자원목록 확정

○ 전제적으로 어메니티 자원은 ① 자연구조의 자원인 45개와 ②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자원 8개, ③ 인간이 만든 자원 17개로 목록을 구성하였고, 개선·복원이 필요한 자원(5개)을 발굴

3)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 설문지 구성 : 설문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정주의식,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효과, 어메니티 자원여부와 가치평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개선필요수, 효율적 보전 및 관리가 위한 필요사항, 연령 등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으로 구성
-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효과와 중요도 측정은 Yihe Lü et al.(2003)이 제시한 5점 척도를 활용

○ 분석방법
- 통계프로그램인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교차분석을 실시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효과와 중요도 항목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도출
4)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거주기간 및 정주의향
- 설문응답자의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69.4%로 가장 높고 10년 이상이 12.9%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인 82.3%가 10년 이상 거주
- 설문응답자의 거주 대부분인 91.8%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정주의향을 나타냄

○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남성과 여성은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였으며, 중졸이하가 전체의 56.5%로 나타났고, 거주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7%로 대부분을 차지함
- 설문응답자는 주로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농축산업을 생계로 하는 50대 연령의 응답 비율이 높음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응답자특성</th>
<th>빈도수</th>
<th>비율(%)</th>
<th>구분</th>
<th>응답자특성</th>
<th>빈도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성 별</td>
<td>남성</td>
<td>48.0</td>
<td>56.5</td>
<td>그 름 다</td>
<td>37.0</td>
<td>43.5</td>
<td></td>
</tr>
<tr>
<td></td>
<td>여성</td>
<td></td>
<td></td>
<td>그렇다</td>
<td>48.0</td>
<td>56.5</td>
<td></td>
</tr>
<tr>
<td>거주 년수</td>
<td>1년미만</td>
<td>4.0</td>
<td>4.7</td>
<td>그렇지 않다</td>
<td>0.7</td>
<td>1.2</td>
<td></td>
</tr>
<tr>
<td></td>
<td>1~3년</td>
<td>8.0</td>
<td>9.4</td>
<td>잘 모르겠다</td>
<td>4.0</td>
<td>4.7</td>
<td></td>
</tr>
<tr>
<td></td>
<td>5~10년</td>
<td>3.0</td>
<td>3.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0~20년</td>
<td>11.0</td>
<td>12.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0년 이상</td>
<td>39.0</td>
<td>46.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직 업</td>
<td>농축산업</td>
<td>51.0</td>
<td>60.0</td>
<td>연령</td>
<td>1.0</td>
<td>1.2</td>
<td></td>
</tr>
<tr>
<td></td>
<td>어업</td>
<td>0.1</td>
<td>0.1</td>
<td>20~29</td>
<td>30.0</td>
<td>36.8</td>
<td></td>
</tr>
<tr>
<td></td>
<td>자영업</td>
<td>10.0</td>
<td>11.8</td>
<td>30~39</td>
<td>5.0</td>
<td>6.1</td>
<td></td>
</tr>
<tr>
<td></td>
<td>회사원</td>
<td>4.0</td>
<td>4.7</td>
<td>40~49</td>
<td>0.5</td>
<td>0.6</td>
<td></td>
</tr>
<tr>
<td></td>
<td>공무원</td>
<td>2.0</td>
<td>2.4</td>
<td>50~59</td>
<td>0.3</td>
<td>0.3</td>
<td></td>
</tr>
<tr>
<td></td>
<td>주부</td>
<td>9.0</td>
<td>10.6</td>
<td>60~69</td>
<td>0.3</td>
<td>0.3</td>
<td></td>
</tr>
<tr>
<td></td>
<td>은퇴</td>
<td>1.0</td>
<td>1.2</td>
<td>70 이상</td>
<td>16.0</td>
<td>18.8</td>
<td></td>
</tr>
<tr>
<td></td>
<td>무직</td>
<td>4.0</td>
<td>4.7</td>
<td>가구 소득</td>
<td>9.0</td>
<td>10.6</td>
<td></td>
</tr>
<tr>
<td></td>
<td>기타</td>
<td>3.0</td>
<td>3.5</td>
<td>1000만원 이하</td>
<td>16.0</td>
<td>18.8</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000~2000</td>
<td>16.0</td>
<td>18.8</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2000~3000</td>
<td>8.0</td>
<td>9.4</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3000~4000</td>
<td>1.0</td>
<td>1.2</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4000~5000</td>
<td>0.5</td>
<td>0.6</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5000만원 이상</td>
<td>3.0</td>
<td>3.5</td>
<td></td>
</tr>
</tbody>
</table>

328 환경지역 아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2. 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지역의 자원분석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어메니티자원 분석결과 〉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어메니티자원여부</th>
<th>환경생태성</th>
<th>문화심미성</th>
<th>지역역사성</th>
<th>경제성</th>
<th>접근성</th>
<th>기타</th>
<th>어메니티자원가치평균</th>
<th>응답수</th>
<th>응답률</th>
<th>응답수</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동강</td>
<td>84</td>
<td>98.8</td>
<td>73</td>
<td>8</td>
<td>35</td>
<td>21</td>
<td>8</td>
<td>2</td>
<td>41.1</td>
<td>1.1</td>
<td></td>
<td></td>
</tr>
<tr>
<td>조암강</td>
<td>35</td>
<td>41.2</td>
<td>27</td>
<td>9</td>
<td>9</td>
<td>9</td>
<td>1</td>
<td>1</td>
<td>39.1</td>
<td>1.2</td>
<td></td>
<td></td>
</tr>
<tr>
<td>창리천</td>
<td>15</td>
<td>17.6</td>
<td>10</td>
<td>2</td>
<td>3</td>
<td>8</td>
<td></td>
<td>4.1</td>
<td>36.1</td>
<td>1.0</td>
<td></td>
<td></td>
</tr>
<tr>
<td>지장천</td>
<td>19</td>
<td>22.4</td>
<td>14</td>
<td>4</td>
<td>4</td>
<td>2</td>
<td>3</td>
<td>3.6</td>
<td>36.1</td>
<td>1.4</td>
<td></td>
<td></td>
</tr>
<tr>
<td>오대천</td>
<td>17</td>
<td>20.0</td>
<td>12</td>
<td>3</td>
<td>2</td>
<td>1</td>
<td>1</td>
<td>1</td>
<td>35.1</td>
<td>1.2</td>
<td></td>
<td></td>
</tr>
<tr>
<td>송천</td>
<td>9</td>
<td>10.6</td>
<td>5</td>
<td>2</td>
<td>3</td>
<td>2</td>
<td></td>
<td>3.2</td>
<td>32.1</td>
<td>1.2</td>
<td></td>
<td></td>
</tr>
<tr>
<td>골지천</td>
<td>11</td>
<td>12.9</td>
<td>5</td>
<td>4</td>
<td>1</td>
<td>2</td>
<td></td>
<td>3.2</td>
<td>32.1</td>
<td>1.4</td>
<td></td>
<td></td>
</tr>
<tr>
<td>여천</td>
<td>8</td>
<td>9.4</td>
<td>4</td>
<td>2</td>
<td>1</td>
<td>1</td>
<td></td>
<td>3.3</td>
<td>30.1</td>
<td>1.0</td>
<td></td>
<td></td>
</tr>
<tr>
<td>백룡동굴</td>
<td>47</td>
<td>55.3</td>
<td>35</td>
<td>15</td>
<td>12</td>
<td>9</td>
<td></td>
<td>1</td>
<td>43.1</td>
<td>1.2</td>
<td></td>
<td></td>
</tr>
<tr>
<td>하미僑의관 1,2</td>
<td>10</td>
<td>11.8</td>
<td>8</td>
<td>1</td>
<td>3</td>
<td>1</td>
<td></td>
<td>3.3</td>
<td>33.1</td>
<td>1.3</td>
<td></td>
<td></td>
</tr>
<tr>
<td>수달굴</td>
<td>15</td>
<td>17.6</td>
<td>10</td>
<td>1</td>
<td>3</td>
<td>3</td>
<td></td>
<td>3.5</td>
<td>35.1</td>
<td>1.3</td>
<td></td>
<td></td>
</tr>
<tr>
<td>연포굴</td>
<td>15</td>
<td>17.6</td>
<td>14</td>
<td>2</td>
<td>8</td>
<td>1</td>
<td></td>
<td>3.9</td>
<td>39.1</td>
<td>1.2</td>
<td></td>
<td></td>
</tr>
<tr>
<td>한탄교 옆굴</td>
<td>9</td>
<td>10.6</td>
<td>5</td>
<td>1</td>
<td>3</td>
<td>1</td>
<td></td>
<td>3.3</td>
<td>33.1</td>
<td>1.4</td>
<td></td>
<td></td>
</tr>
<tr>
<td>민지굴</td>
<td>17</td>
<td>20.0</td>
<td>14</td>
<td>1</td>
<td>10</td>
<td></td>
<td></td>
<td>3.6</td>
<td>36.1</td>
<td>1.0</td>
<td></td>
<td></td>
</tr>
<tr>
<td>비리소</td>
<td>15</td>
<td>17.6</td>
<td>12</td>
<td>4</td>
<td>4</td>
<td>2</td>
<td></td>
<td>1</td>
<td>38.1</td>
<td>0.9</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록 329
<table>
<thead>
<tr>
<th>자원명</th>
<th>어메니티자원</th>
<th>환경</th>
<th>문화</th>
<th>지역</th>
<th>경제성</th>
<th>접근성</th>
<th>기타</th>
<th>어메니티 자원 가치평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생태성</td>
<td>심미성</td>
<td>역사성</td>
<td></td>
<td></td>
<td></td>
<td>평균</td>
</tr>
<tr>
<td></td>
<td>응답수</td>
<td>응답률</td>
<td>응답수</td>
<td>응답률</td>
<td>응답수</td>
<td>응답률</td>
<td>응답수</td>
<td>응답률</td>
</tr>
<tr>
<td>나리소</td>
<td>23</td>
<td>27.1</td>
<td>17</td>
<td>5</td>
<td>10</td>
<td>2</td>
<td>2</td>
<td>3.7</td>
</tr>
<tr>
<td>아라연</td>
<td>46</td>
<td>54.1</td>
<td>36</td>
<td>3</td>
<td>22</td>
<td>11</td>
<td>2</td>
<td>4.3</td>
</tr>
<tr>
<td>연일평미의다리</td>
<td>6</td>
<td>7.1</td>
<td>36.4</td>
<td>27.3</td>
<td>27.3</td>
<td>9.1</td>
<td>0.0</td>
<td>0.0</td>
</tr>
<tr>
<td>동강황미봉</td>
<td>64</td>
<td>75.3</td>
<td>31</td>
<td>9</td>
<td>21</td>
<td>12</td>
<td>4</td>
<td>1</td>
</tr>
<tr>
<td>동강대극</td>
<td>7</td>
<td>8.2</td>
<td>5</td>
<td>2</td>
<td>4</td>
<td>1</td>
<td>1</td>
<td>4.3</td>
</tr>
<tr>
<td>가수리 오솔림</td>
<td>29</td>
<td>34.1</td>
<td>14</td>
<td>9</td>
<td>21</td>
<td>4</td>
<td>1</td>
<td>4.6</td>
</tr>
<tr>
<td>수탈</td>
<td>47</td>
<td>55.3</td>
<td>39</td>
<td>7</td>
<td>10</td>
<td>2</td>
<td>2</td>
<td>3.9</td>
</tr>
<tr>
<td>하늘다람쥐</td>
<td>24</td>
<td>28.2</td>
<td>22</td>
<td>3</td>
<td>6</td>
<td>1</td>
<td>1</td>
<td>4.2</td>
</tr>
<tr>
<td>닭비</td>
<td>23</td>
<td>27.1</td>
<td>19</td>
<td>4</td>
<td>6</td>
<td>1</td>
<td>4.0</td>
<td>1.3</td>
</tr>
<tr>
<td>까막딱따구리</td>
<td>25</td>
<td>29.4</td>
<td>23</td>
<td>4</td>
<td>6</td>
<td>1</td>
<td>2</td>
<td>4.1</td>
</tr>
<tr>
<td>원앙</td>
<td>27</td>
<td>31.8</td>
<td>25</td>
<td>4</td>
<td>7</td>
<td>1</td>
<td>1</td>
<td>4.0</td>
</tr>
<tr>
<td>목남자류</td>
<td>16</td>
<td>18.8</td>
<td>16</td>
<td>2</td>
<td>3</td>
<td>1</td>
<td>1</td>
<td>3.8</td>
</tr>
<tr>
<td>참종개기</td>
<td>11</td>
<td>12.9</td>
<td>11</td>
<td>3</td>
<td>3</td>
<td>1</td>
<td>4.1</td>
<td>0.7</td>
</tr>
<tr>
<td>금강모치</td>
<td>19</td>
<td>22.4</td>
<td>17</td>
<td>4</td>
<td>4</td>
<td>1</td>
<td>1</td>
<td>3.5</td>
</tr>
<tr>
<td>배가사리</td>
<td>38</td>
<td>44.7</td>
<td>36</td>
<td>5</td>
<td>6</td>
<td>1</td>
<td>3</td>
<td>3.7</td>
</tr>
<tr>
<td>새코미꾸리</td>
<td>20</td>
<td>23.5</td>
<td>19</td>
<td>3</td>
<td>2</td>
<td>1</td>
<td>1</td>
<td>3.2</td>
</tr>
<tr>
<td>참조개</td>
<td>17</td>
<td>20.0</td>
<td>14</td>
<td>2</td>
<td>1</td>
<td>1</td>
<td>1</td>
<td>3.6</td>
</tr>
<tr>
<td>통가리</td>
<td>39</td>
<td>45.9</td>
<td>37</td>
<td>3</td>
<td>5</td>
<td>4</td>
<td>1</td>
<td>3.7</td>
</tr>
<tr>
<td>어름처</td>
<td>57</td>
<td>67.1</td>
<td>53</td>
<td>10</td>
<td>13</td>
<td>4</td>
<td>1</td>
<td>3.8</td>
</tr>
<tr>
<td>백운산과 절촉평</td>
<td>31</td>
<td>36.5</td>
<td>21</td>
<td>8</td>
<td>12</td>
<td>3</td>
<td>3</td>
<td>4.1</td>
</tr>
</tbody>
</table>

330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table>
<thead>
<tr>
<th>지원명</th>
<th>어메니티자원</th>
<th>환경</th>
<th>문화</th>
<th>지역</th>
<th>경제성</th>
<th>접근성</th>
<th>기타</th>
<th>어메니티 가치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응답률</td>
<td>응답수</td>
<td>응답률</td>
<td>평균</td>
<td>표준편차</td>
<td></td>
<td></td>
<td></td>
</tr>
<tr>
<td>빛나는 소리</td>
<td>34</td>
<td>40.0</td>
<td>3</td>
<td>26</td>
<td>23</td>
<td>3</td>
<td>1</td>
<td>3.9</td>
</tr>
<tr>
<td>상산소리</td>
<td>68</td>
<td>80.0</td>
<td>6</td>
<td>47</td>
<td>48</td>
<td>8</td>
<td>1</td>
<td>4.4</td>
</tr>
<tr>
<td>트래킹</td>
<td>25</td>
<td>29.4</td>
<td>4</td>
<td>5</td>
<td>6</td>
<td>17</td>
<td>6</td>
<td>3.3</td>
</tr>
<tr>
<td>레프팅</td>
<td>73</td>
<td>85.9</td>
<td>7</td>
<td>11</td>
<td>12</td>
<td>57</td>
<td>15</td>
<td>6</td>
</tr>
<tr>
<td>산바람</td>
<td>22</td>
<td>25.9</td>
<td>8</td>
<td>9</td>
<td>5</td>
<td>10</td>
<td>2</td>
<td>4.0</td>
</tr>
<tr>
<td>생태체험</td>
<td>19</td>
<td>22.4</td>
<td>8</td>
<td>7</td>
<td>4</td>
<td>6</td>
<td>2</td>
<td>3.6</td>
</tr>
<tr>
<td>민물고기</td>
<td>20</td>
<td>23.5</td>
<td>10</td>
<td>3</td>
<td>3</td>
<td>10</td>
<td>3</td>
<td>3.6</td>
</tr>
<tr>
<td>동강생태정보센터</td>
<td>20</td>
<td>23.5</td>
<td>8</td>
<td>5</td>
<td>6</td>
<td>11</td>
<td>2</td>
<td>4.1</td>
</tr>
<tr>
<td>동강축제</td>
<td>53</td>
<td>62.4</td>
<td>5</td>
<td>31</td>
<td>24</td>
<td>27</td>
<td>1</td>
<td>4.1</td>
</tr>
<tr>
<td>동강사진축제</td>
<td>39</td>
<td>45.9</td>
<td>4</td>
<td>23</td>
<td>20</td>
<td>13</td>
<td>1</td>
<td>3.9</td>
</tr>
<tr>
<td>자생식물</td>
<td>12</td>
<td>14.1</td>
<td>6</td>
<td>3</td>
<td>3</td>
<td>10</td>
<td>2</td>
<td>3.8</td>
</tr>
<tr>
<td>판매시설</td>
<td>32</td>
<td>37.6</td>
<td>15</td>
<td>3</td>
<td>4</td>
<td>26</td>
<td>2</td>
<td>3.8</td>
</tr>
<tr>
<td>정진</td>
<td>27</td>
<td>31.8</td>
<td>6</td>
<td>17</td>
<td>15</td>
<td>6</td>
<td>1</td>
<td>4.0</td>
</tr>
<tr>
<td>동강필자리축제</td>
<td>44</td>
<td>51.8</td>
<td>17</td>
<td>17</td>
<td>13</td>
<td>20</td>
<td>2</td>
<td>4.1</td>
</tr>
<tr>
<td>복합자생</td>
<td>40</td>
<td>47.1</td>
<td>9</td>
<td>3</td>
<td>6</td>
<td>36</td>
<td>3</td>
<td>1</td>
</tr>
<tr>
<td>고성산성제</td>
<td>30</td>
<td>35.3</td>
<td>2</td>
<td>23</td>
<td>19</td>
<td>4</td>
<td>2</td>
<td>4.1</td>
</tr>
<tr>
<td>청하교</td>
<td>17</td>
<td>20.0</td>
<td>2</td>
<td>6</td>
<td>6</td>
<td>6</td>
<td>1</td>
<td>2.8</td>
</tr>
<tr>
<td>자원명</td>
<td>어메니티자원</td>
<td>환경</td>
<td>문화</td>
<td>지역</td>
<td>경제성</td>
<td>접근성</td>
<td>기타</td>
<td>어메니티 자원 가치평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여부</td>
<td>생태성</td>
<td>심미성</td>
<td>역사성</td>
<td></td>
<td></td>
<td></td>
<td>평균</td>
</tr>
<tr>
<td>브라질미리와</td>
<td>24</td>
<td>28.2</td>
<td>20</td>
<td>4</td>
<td>10</td>
<td>1</td>
<td>1</td>
<td>1</td>
</tr>
<tr>
<td>황제어초와</td>
<td>43</td>
<td>50.6</td>
<td>28</td>
<td>13</td>
<td>14</td>
<td>1</td>
<td>5</td>
<td>5</td>
</tr>
<tr>
<td>두꺼비 담배에</td>
<td>23</td>
<td>27.1</td>
<td>18</td>
<td>3</td>
<td>20</td>
<td>2</td>
<td>1</td>
<td>2</td>
</tr>
<tr>
<td>완코라리와</td>
<td>32</td>
<td>37.6</td>
<td>16</td>
<td>9</td>
<td>20</td>
<td>2</td>
<td>4</td>
<td>1</td>
</tr>
<tr>
<td>가수리 느티나무와</td>
<td>45</td>
<td>52.9</td>
<td>23</td>
<td>20</td>
<td>22</td>
<td>4</td>
<td>1</td>
<td>1</td>
</tr>
<tr>
<td>가수리 운고개</td>
<td>25</td>
<td>29.4</td>
<td>16</td>
<td>9</td>
<td>6</td>
<td>6</td>
<td>1</td>
<td>1</td>
</tr>
<tr>
<td>가수리 개바위</td>
<td>25</td>
<td>29.4</td>
<td>10</td>
<td>13</td>
<td>7</td>
<td>3</td>
<td>1</td>
<td>1</td>
</tr>
<tr>
<td>가수리 금오광</td>
<td>17</td>
<td>20.0</td>
<td>14</td>
<td>3</td>
<td>7</td>
<td>7</td>
<td>1</td>
<td>1</td>
</tr>
<tr>
<td>가수리 삼형제봉</td>
<td>17</td>
<td>20.0</td>
<td>12</td>
<td>6</td>
<td>6</td>
<td>3</td>
<td>1</td>
<td>1</td>
</tr>
<tr>
<td>가수리 금오광</td>
<td>20</td>
<td>23.5</td>
<td>11</td>
<td>9</td>
<td>6</td>
<td>4</td>
<td>1</td>
<td>1</td>
</tr>
<tr>
<td>연포마을</td>
<td>32</td>
<td>37.6</td>
<td>6</td>
<td>23</td>
<td>22</td>
<td>1</td>
<td>1</td>
<td>1</td>
</tr>
<tr>
<td>연포마을</td>
<td>28</td>
<td>32.9</td>
<td>10</td>
<td>6</td>
<td>16</td>
<td>3</td>
<td>4</td>
<td>1</td>
</tr>
<tr>
<td>황제어초와</td>
<td>30</td>
<td>35.3</td>
<td>6</td>
<td>8</td>
<td>14</td>
<td>9</td>
<td>1</td>
<td>1</td>
</tr>
<tr>
<td>제암유적지고인돌</td>
<td>19</td>
<td>22.4</td>
<td>3</td>
<td>11</td>
<td>14</td>
<td>10.7</td>
<td>39.3</td>
<td>50.0</td>
</tr>
<tr>
<td>고성리유적지고인돌</td>
<td>23</td>
<td>27.1</td>
<td>4</td>
<td>14</td>
<td>17</td>
<td>10.5</td>
<td>36.8</td>
<td>44.7</td>
</tr>
<tr>
<td>적성동(정선군 산동읍 덕천리 비바 내외 6곳)</td>
<td>11</td>
<td>12.9</td>
<td>6</td>
<td>5</td>
<td>5</td>
<td>2</td>
<td>1</td>
<td>1</td>
</tr>
<tr>
<td>완택산성</td>
<td>18</td>
<td>21.2</td>
<td>5</td>
<td>9</td>
<td>13</td>
<td>1</td>
<td>1</td>
<td>1</td>
</tr>
<tr>
<td>고성산성</td>
<td>39</td>
<td>45.9</td>
<td>17.9</td>
<td>32.1</td>
<td>46.4</td>
<td>0.0</td>
<td>3.6</td>
<td>0.0</td>
</tr>
</tbody>
</table>

332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
Strategies to Create National Amenity Resources
Enhancing Quality of Life

Sun-Hee Kim, Mi-Sook Cha, Hyun-Sik Kim, Mun-Won Lee, Yun-Jung Yu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wo-fold: (i) to identify the amenity resources at the national territorial level, to build livable and healthy life-worl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enhance local and regional capacity and (ii) to propose policy agenda and strategies that support these efforts in the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refore, the key words of this research are national territorial amenity, amenity resources, amenity creation, quality of life, amenity plan, and amenity network.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one, in Chapter two, we attempt to define the concept of national territorial amenity and discuss its structures,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values in various aspects. The question of how the external effec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amenity
could be internalized in the local quality of life and regional economy is also explored reviewing literature in wide range of related disciplines. The national territorial amenity is characterized both as a part of nature and as an object of man-made creation. It is also strongly related with "social capital" with non-exclusive and irreversible nature.

Chapter three develops the framework to classify and categorize the national territorial amenity resources in four types: (i) urban, (ii) agricultural and forest, (iii) coastal area and fishing village, and (iv)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The inventorizing process has four steps: (i) listing-up, (ii) amenity watching, (iii) filtering, and (iv) inventory-making. Case studies are conducted in four types, Anyang-Shi and Gunsan-Shi for urban type, Jina-Gun and Hwachun-Gun for agricultural and forest, Suncheon bay area for coastal and fishing village, and Donggang ecological and scenic view preservation district for environmental area. We found that overall perception of amenity resources was low regardless of resources and perceiving groups such as professional experts, civil servants and local residents. Policies integrating amenity resources within the same types as well as between different types appear to be imperative.

In Chapter four, we review amenity related polici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 implications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territorial amenity policies in Korea. The City Beautiful Movement and various NGO efforts of U.S.A., U.K., and Japan since mainly 1960’s are summarized and more recent effort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focusing more on regional revitalization approach are
analyzed.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Japanese cases. Japan started making amenity plan and ordinances since late 1960's and now 349 local governments have amenity guidelin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in Korea recently to enhance the level of amenity at different spatial scales and resources types. Large scale projects of "making livable city and region" that are driven by central governments such as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re some examples of these efforts.

〈Strategies to Create National Amenity Resources〉

Finally, Chapter six provides basic policy directions and principles of creating national amenities and proposes key policy agendas. "Beautiful national territory and competitive region" is suggested as a new vision of national amenity policies. Five principles recommended are: (ⅰ) emphasizing territorial identity, (ⅱ) integrating amenity-related policies, (ⅲ) networking amenity resources, (ⅳ) enhancing market value of amenity resources, and (ⅴ) encouraging sustainable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